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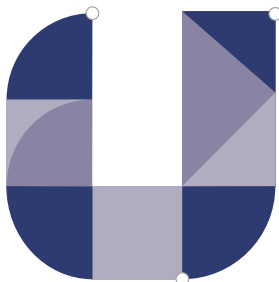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II: 모성과 양육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윤진 | 김문정 | 김자연 | 황나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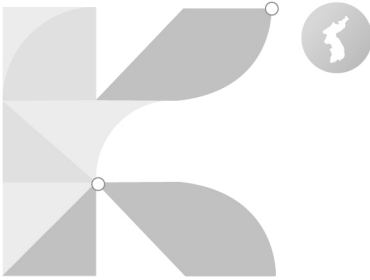
“북한의 인구변동과 정책 변화 분석(2/3년차)”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1-65-01-01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 여성과 섹슈얼리티	통일연구원
21-65-01-02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 모성과 양육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지원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박영자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이금순 선임연구위원 최지영 연구위원 김화순 연구위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조영주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인애 초빙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권주현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김문정 전문연구위원 김자연 부연구위원 황나미 객원교수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김현아 박사 (경기도청) 김영희 박사 (한국금융정책공사) 엄주현 박사 (어린이야담지원본부)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연구책임자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문정(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김자연(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황나미(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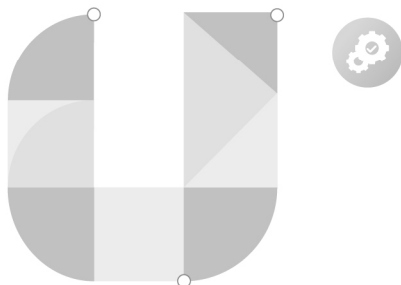


연구지원

김현아(경기도청)

김영희(한국금융정책공사)

엄주현(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II: 모성과 양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1-65-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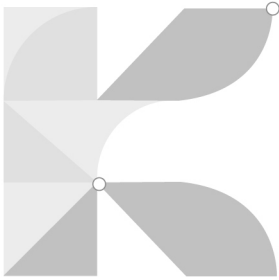
북한의 인구변동과 정책 변화 분석(2/3년차)

KINU 연구총서 21-20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이운진, 김문정, 김자연, 황나미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현대아트컴(02-2278-4482)
I S B N	979-11-6589-071-1 93340
가격	11,000원

© 통일연구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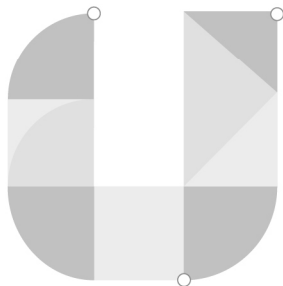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의 성 · 재생산 건강과 권리II: 모성과 양육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11
I.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과 방법	31
3. 용어 정의	37
II. 건강권 관점에서 ‘성과 재생산’ 정책 동향 고찰	41
1. 국제사회	43
2. 북한	50
3. 한국	58
4. 소결	68
III. 김정은 시기의 모성과 양육 정책 현황 및 지표 변화	71
1. 성과 재생산 관점에서 모성과 양육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73
2. 건강권 관점에서 모성과 양육 관련 지표별 변화	88
3. 소결	127

IV. 김정은 시기 모성 및 양육 실태	131
1. 모성 실태	133
2. 양육 실태	150
3. 소결	160
V. 결론 및 정책제언	163
1. 총평	165
2. 인구통계학적 남북 비교	172
3. 정책적 시사점: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 중심으로	176
참고문헌	179
부록	185
1. 심층면담 질문지	187
2. 노동신문 육아관련 기사 정리(2012~2021)	1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3

표 차례

〈표 I-1〉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일반적 사항	33
〈표 I-2〉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북한에서의 모성 및 양육 현황	34
〈표 I-3〉 심층면담조사 면담 내용	35
〈표 I-4〉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36
〈표 I-5〉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실시 현황	37
〈표 I-6〉 UN의 건강권 4대 보장 요소	38
〈표 II-1〉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세부목표 및 지표	44
〈표 II-2〉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3의 세부목표 및 지표	45
〈표 II-3〉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6의 세부목표 및 지표	46
〈표 III-1〉 유엔 SDGs와 북한 NDGs 연계: 개요	74
〈표 III-2〉 유엔 SDGs와 북한 NDGs 연계: 세부목표	74
〈표 III-3〉 북한의 모자 건강 관련 사망률(2000~2020년)	89
〈표 III-4〉 북한 15~49세 여성 대상 생리용품 사용과 가정 내 위생처리 공간 확보 실태	93
〈표 III-5〉 북한의 가임여성 규모와 합계 출산율, 의료진에 의한 출산 현황	94
〈표 III-6〉 산전관리 제공자에 따른 임신 중 산전관리 수급 현황	96
〈표 III-7〉 출산 장소와 출산 지원 인력 분포	98

〈표 Ⅲ-8〉 출산 후 산모 건강검진 수급 여부와 검진서비스 제공자 분포	100
〈표 Ⅲ-9〉 신생아 건강검진 수급과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자 분포	102
〈표 Ⅲ-10〉 가족계획 충족 또는 미충족한 15세~49세 기혼여성 분포 및 가족계획에 대한 수요	105
〈표 Ⅲ-11〉 피임방법에 따른 15~49세 기혼여성 분포 변화	106
〈표 Ⅲ-12〉 북한이탈주민 내원객 산부인과 주진단명 기준의 외래 및 입원 규모	108
〈표 Ⅲ-1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월령별 모유수유 진행과 계속 수유 현황	110
〈표 Ⅲ-1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젖병 수유(분유수유) 현황	111
〈표 Ⅲ-1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이유식 현황	112
〈표 Ⅲ-16〉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태	114
〈표 Ⅲ-17〉 북한 가정 내 동화책, 장난감 구비 실태	117
〈표 Ⅲ-18〉 북한 영유아의 탁아소·유치원 이용 실태	119
〈표 Ⅲ-19〉 안전한 식수원 접근성	122
〈표 Ⅲ-20〉 배설물 처리를 위한 위생시설 접근성	125
〈표 V-1〉 남북 모성과 양육의 성과 재생산 비교	174
〈표 V-2〉 남북 인구통계학 지표(2020년)	176
〈표 V-3〉 남북 모성과 양육 분야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177

그림 차례

[그림 V-1] 북한의 인도적 지원 필요 우선지역	178
-----------------------------------	-----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의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국제사회 담론을 바탕으로 성과 재생산 담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모성과 양육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하여 북한의 인구변동이란 큰 틀에서 경제난, 기근난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북한의 기혼 유자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인구규모와 인구의 질을 예측하는 데 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의 모성과 양육을 개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대북 지원 및 교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취약한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 보건, 의료, 영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물적, 인적자원의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표본조사에 참여하면서 당면문제를 타개해 나갔다. 또한, 북한은 2001년에 국제연합(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하여 여성 권리 증진과 모성과 양육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도에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여성과 아동의 건강보호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동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모성과 양육 관련한 의료시설, 애육원, 보육원 등을 확충하였고, 식량이나 깨끗한 식수 공급 등의 문제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역, 가구소득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 거주,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모성과 양육 관련 건강이 개선되었으나, 농촌 거주,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북한은 2020년 곡물생산량이 전년 대비 5.2%가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계속되는 대북 제재 등으로 식량을 비롯한 경제부문

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소득에 따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담조사 결과, 북한에서의 임신, 출산, 산전 및 산후 관리, 피임 및 낙태 등은 본인 집 또는 의사 집 등 사적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2017년 다중지표 클러스터 조사(MICS) 조사와 불일치한 결과이다. 북한 당국은 글로벌 기준인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해 모성과 양육의 건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면담조사와 2017년 MICS 조사 결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나, 북한의 모성과 양육의 전반적인 실태가 지역, 소득에 따라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건강권의 4대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고품질의 틀로 분석한 결과, 모성과 양육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모두,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미래 한반도의 인구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 모두 안정된 공교육체제와 높은 교육열로 양질의 인력이 양성되면서 인구 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구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북한은 경제난 이후 지역, 소득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과 영유아 인구의 질적 격차가 북한 내에서도, 남북 사이에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북한 여성과 영유아, 건강권, 모성, 양육, 인구 격차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North Korea II: Motherhood and Nurture

Lee, Yun Jin et al.

Based on the international discourse of strengthening self-determination rights on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he scope of discussion in this study was expanded to motherhood and nurture, which were not that often addressed in the usual sexual and reproductive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in North Korea, and to predict the future population size and quality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n addition, a general comparative analysis of maternity and nurtu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conducted,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otential inter-Korean aid and exchange were presented building on the finding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North Korea faced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1990s. To tackle problems such as health, sanitation, medical care, and nutrition of the most vulnerable women and young children, North Korea worke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not

only provide material support but also to solve immediate problems by engaging in a regular sampling survey. In addition, North Korea joined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in 2001 and joined the international movement for promoting women's rights and the health of motherhood and nurture. As a result, in 2010, the Act for Guarantee of Women's and Children's Rights and the Labor Protection Act were enacted to fulfill the principles of health protection for women and children.

Since the Kim Jong-un regime took power, North Korea has expanded medical facilities and child care facilities related to maternity and child rearing. Although problems related to the providing of food and water supply have been improved, there still remain gaps among regions and household income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urban residents and high-income households, the level of health related to maternity and child-rearing was improved, but rural residents and low-income households were not. North Korea's crop production went down by 5.2% in 2020 year-over-year. North Korea is expected to confront economic difficulties as borders are being locked down due to COVID and continued sanctions, leading to a widening gap among regions and incomes.

According to the survey interview, pregnancy, childbirth, antenatal and postpartum management, contraception and abortion in North Korea were mainly conducted in the private sphere, such as in one's own house or the doctor's house. This result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2017 MICS survey result. To achieve the SDGs, North Korea is promoting policie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right to the health of motherhood and nurture, but such policies are not being delivered properly to th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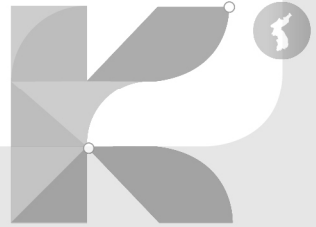
Al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interview survey results and the 2017 MICS survey results, both surveys corresponded with the fact that the overall maternity and child rearing condition in North Korea has been unequal by region and income. After analyzing these results with the four elements of the right to health –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high quality – it was found that much tasks were still to be resolved to promote the right to health of motherhood and nurture.

As the birthrate continues to decline in both Koreas, the size of popul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expected to decline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quality of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s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nurture high-quality human talents through stable public education and show high enthusiasm for education. In

South Korea, welfare policies to promot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have been enlarged and high-quality universal services are being provided, raising the overall population quality. However, in North Korea, as social disparities by regions and incomes have widened due to economic hardship, the qualitative gap among the population, especially women and infants in the vulnerable group, is expected to widen within North Korea an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s well.

Keywords: North Korean Women and Young Children, the Right to Health, Motherhood, Nurture, the Population Gap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은 정권 수립 직후부터 여성을 남자와 동등한 주체로 규정하고 모성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영역으로 제도화하였다. 북한 「헌법」(1948년 채택)¹⁾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1946년 채택)²⁾에는 일찍이 남녀평등의 원칙과 반차별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1946년에 제정한 「노동법령」은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한 법으로서, 산전산후휴가, 임신 중의 경노동 보장, 수유시간 보장, 임신 또는 수유 중의 야간노동 금지 등의 모성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³⁾

탁아소와 유치원 설립 역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라 하겠다.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47년 「탁아소 규칙」,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였다.⁴⁾ 북한의 첫 탁아소는 1948년에 설립한 김일성의 부인 이름을 붙인 ‘김정숙 탁아소’인데 후에, ‘세계여성

1) 1948년 「헌법」에는 북한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헌법 11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헌법 22조)고 규정함. 위키문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https://ko.wikisource.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_%EC%82%AC%ED%9A%8C%EC%A3%BC%EC%9D%98%ED%97%8C%EB%B2%95> (검색일: 2021. 7. 9.).

2)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에는 “국가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1조)라고 되어 있으며 이어 “지방 또는 국가최고기관에 있어서 여성들을 남자들과 동등으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2조), “동등한 노동권, 동일임금과 사회보장, 교육의 권리”(3조), 자유 결혼의 권리, 자유로운 이혼의 권리에 대해 4조와 5조에는 각기 규정하고 있다.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 (2006), p. 174.

3) 위의 글, pp. 173~174.

4) 이윤진·구자연,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3), p. 60.

의 날'인 3월 8일로 해서 '3·8 탁아소'로 개칭한⁵⁾ 사례에서 북한은 여성 노동권과 모성보호권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5급 이상 고위 여성 공무원 및 지방위원의 여성 비율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⁶⁾ 북한 고학력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은 이러한 법제화의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은 일찍이 여성을 어머니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자와 어머니 두 축을 비교적 균형있게 견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양성평등을 일찍이 법제화하였고, 실제 고위관료직의 여성 비율도 높으나, 전반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사회의 이러한 모순적 현상을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가부장적 사회주의'⁷⁾로 해석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기근과 경제난은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권리를 앗아갔다.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성매매는 급속히 증가하였다.⁸⁾ 식량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한 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성매매와 성폭력 문제는 심각하였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 탈북 여성들은 유흥산업과 성매매산업에 매매되거나 중개자를 통하여 중국남성과 강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위해 가정폭력, 성적 학대에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⁹⁾

또한, 심각한 기근난에서 영양부족으로 인해 북한여성들의 출산력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영양부족 상태는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

5) 위의 책, p.59.

6) 이운진 외, 『남북한 여성가족 통계 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2016), pp. 102~106.

7)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pp. 173~178.

8)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53~64.

9)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pp. 169~172; 위의 책, pp. 53~61.

숙아, 저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¹⁰⁾ 기근난에서 벗어난 2010년에도 남북한 모성 사망비를 비교하면, 북한은 81/100,000명으로 한국의 16/100,000명에 비해 5배 높은 것으로 나와서¹¹⁾ 그 후유증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여성의 지위는 새롭게 변화하였다.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을 통해 자생적 시장 주체로 성장하였고, 그 결과, ‘젠더인식’을 갖게 되었다.¹²⁾ 소위, ‘돈주’라는 신흥 부유층으로 성장하면서, 여성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경제력을 지닌 여성은 가정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남편의 주도권은 약해지는 등 가부장적 가족위계 질서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이들 여성은 여성인권,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개인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아이를 적게 낳으며, 이혼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¹³⁾ 스스로 경제력을 갖춘 북한 여성들은 결혼, 이혼, 출산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여주는 등 젠더의식을 형성하면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신흥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류는 오랫동안 성과 재생산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본능의 영역이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해 왔고, 국가 역시 이러한 인식하에 인구관리 차원에서 성과 재생산 정책을 수립,

10) 임순희, 위의 책, pp. 66~67.

11) 이운진,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추진방안,” 강일규 외,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서울: 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2), p. 190.

12) 박영자, 『북한 여자』 (서울: 엘피, 2017), p. 550.

13) 위의 책, pp. 575~578.

추진해 왔다.¹⁴⁾ 여기에는 여성은 ‘모성’이라는 본능에 따라, 자신이 어머니가 될 것으로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사회규범이 깔려있다.¹⁵⁾ 21세기 현대인들도 성과 재생산은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기조를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한 것은 얼마 안 된다. 2019년도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부터 성과 재생산 정책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¹⁶⁾

국제사회에서 성과 재생산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도의 ‘세계인권선언’¹⁷⁾부터이다. 이후 1968년 국제인권총회에서 건강과 권리의 기본적 내용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성과 재생산권은 인구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¹⁸⁾ 성과 재생산권이 인구관리 차원이 아닌 권리 보장의 개념으로 비로소 확립된 것은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이하 ICPD)’에서였다.¹⁹⁾ 여기서 정립된 성과 재생산의 건강과 권리(Sexual and

14) 김정혜,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法學論叢』, 제27집 1호 (2020), p. 266.

15) 오나 도나스 저, 송소민 옮김, 『엄마됨을 후회함』 (서울: 반니, 2016), pp. 30~53, 재인용: 위의 글, p. 267.

16)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12), pp. 87~93,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09404401602_20201231174643.pdf&rs=/upload/viewer/result/202111/> (검색일: 2021.1.2.).

17) 김정혜,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p. 268.

18) 위의 글, pp. 268~269.

19) 위의 글, p. 269.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SRHR)는 다음과 같다. 재생산 권리는 “자녀의 수, 간격 및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갖출 수 있는 모든 커플 및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재생산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차별, 강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최고 수준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을 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²⁰⁾ ICPD 행동계획은 권리의 보편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의료 및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차별받는 집단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²¹⁾

ICPD 25주년을 맞이해서 개최한 2019년 11월 나이로비 정상회의(이하, ICPD 25)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장애, 언어, 민족적 기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과 무관한” 모두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였다.²²⁾

이처럼 성과 재생산을 모성이 발현되는 자연스런 본능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누구나가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는 여성을 어머니로(만) 규정하지 않는다. 즉, 모성과 양육은 여성(개인)의 당연한 몫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성과 재생산 관련 연구에서는 피임, 성관계, 임신과 낙태, 성병, 성폭력, 성교육 등을 주로 다루었고, 출산 이후 산전산후 관리, 영아 건강, 양육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다루지 않았다.²³⁾

20)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Development: 20th Anniversary Edition*, 2014, p. 59,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programme_of_action_Web%20ENGLISH.pdf> (검색일: 2021.10.27.), 재인용: 위의 글, p. 270.

21) 김정혜, 위의 글, p. 273.

22) 위의 글, p. 273.

23) 김동식 외는 기존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과 양육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서술하였다. 김동식 외,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p. 7.

여성을 어머니로(만) 규정하는 모성과 양육은 인구조절의 수단이지만, 자기주도적으로 어머니가 되기를 선택한 여성(개인)의 모성과 양육은 성과 재생산의 담론 확장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여성(개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어머니가 되어(모성) 자녀를 키우는 것(양육)’을 선택하고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환경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ICPD 25에서 성과 재생산은 특정한 생애주기가 아닌 “전생애를 걸쳐”²⁴⁾ 누리야 하는 건강과 권리임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주기의 모성과 양육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담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성과 재생산의 건강과 권리에 있어 특히, 기혼 유자녀 여성의 건강권 관점에서 김정은 시기의 변화된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모성과 양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일반 여성의 성과 재생산은 본 연구의 모(母)과제인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 여성과 섹슈얼리티」에서 젠더관점으로 다룬다. 즉, 모과제는 모든 북한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측면을 고찰한다면, 위탁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기혼 유자녀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건강 측면에 초점을 둔다. 모과제와 본 과제(위탁과제)는 『북한의 인구변동과 정책 변화 분석』이란 대주제 하의 3년 연구프로젝트 중 2년차에 해당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가 여성(개인)의 성과 재생산의 주체적 결정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였다면, 이 시기의 북한은 유례없는 기근을 겪으면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은 생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

24) 김정혜,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p. 274.

고, 건강·영양상태도 최악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모자보건과 영아건강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의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국제사회 담론을 바탕으로 성과 재생산 담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모성과 양육으로 논의의 장을 확대하여 북한의 인구변동이란 큰 틀에서 경제난, 기근난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북한 기혼 유자녀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건강권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인구규모와 인구의 질을 예측하는 데 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의 모성과 양육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대북 지원 및 교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관련성

(1) 본 연구주제의 1차 연도 연구

앞서 진술했듯이 본 연구는 3년 차 연구 중 2년 차에 해당한다. 1년 차 연구는 주관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을,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는 협력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전자 연구에서는 북한은 저소득국임에도 인구변동 추세와 인구구조는 중상소득국의 특성을 갖게 된 이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의 출산율이 국제사회가 목표로 삼는 바람직한 수준에 가깝게 떨어진 데에는 현대적 피임법 보급”²⁶⁾에 있으며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과거의 높은 생산력과 주민들의 생

25) 본 연구총서의 III장 2절 참조.

26) 홍제환 외,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7.

활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 제공으로²⁷⁾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셋째, 결혼·가족 문화의 요인으로 다른 개도국에 비해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 활발한 경제활동 등이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²⁸⁾ 작용했음을 밝혔다.

후자 연구는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북한에서의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였다. 동구권의 체제전환은 출산율의 빠른 감소, 피라미드에서 방추형 인구구조로의 변화, 실질임금 하락과 실업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동유럽의 체제전환은 새로운 기회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²⁹⁾ 동남아 국가는 출산율은 감소했으나 절대치는 높은 수준이어서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였다.³⁰⁾ 인구구조는 경제규모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는 2차 연도의 협력연구로써, 북한의 인구변동이란 큰 틀에서 북한의 성과 재생산 권리의 관점으로 모성과 양육 정책 및 실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구변동과 인구 질을 예측하고자 한다.

(2)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관련 연구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의 특

27) 위의 책, p. 18.

28) 위의 책, p. 18.

29) 최장호 외,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3.

30) 위의 책, p. 13.

성을 살펴보면 김동식 외(2018)는 크게 네 가지로 보았고, 이는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불평등, 사회적 성 규범과 젠더 폭력, 법·제도, 의료 기술이다.³¹⁾ 구체적으로 각각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면 지역적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같은 불평등은 개인의 성과 재생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 등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의 격차를 가져온다.³²⁾

전통적 성 규범은 남녀 간의 평등성을 잘못 인지하게 하고, 이는 남녀 간의 불균형적인 권력 배분을 가져옴으로써 성행위에 있어서 특정성(주로 여성)의 의사권이 간과될 수 있다.³³⁾ 법·제도의 영향은 임신중단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 등과 같이 성과 재생산에 있어서 제약과 한계, 또는 부정적 결과를 유도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술의 영향을 살펴보면, 현대적 피임도구, 약물적 방법의 임신중절, 난임시술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의료기술이 성과 재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³⁴⁾

이 외에 굿마허-란셋(Guttmacher-Lancet) 위원회³⁵⁾의 보고서에서는 성관계-결혼-재생산에 대한 규범과 가치의 변화를 하나의 영향 변인으로 보았다.³⁶⁾ 전 세계적으로 결혼이 항상 성적 행위에 선행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과 성적 행위 모두 임신과 출산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식 결혼한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출산이 더욱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필요한 성과 재

31) 김동식 외,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pp. 22~24.

32) 위의 책, p. 22.

33) 위의 책, p. 23.

34) 위의 책, pp. 22~23.

35)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16개 위원회로 구성됨.

36) Ann M Starrs et al.,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Guttmacher-Lancet Commission,” *The Lancet*, vol. 391, no. 10140 (2018), p. 2650.

생산 건강 정보와 서비스의 유형과 시기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동식 등(2018)의 연구에서도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정도가 20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³⁷⁾ 전국 기혼 여성(15~49세) 대상 조사에서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25세 미만의 찬성률이 36%로 다른 연령에 비하여 높았다.³⁸⁾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으로는 성,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지역 등이 있다. 출산력 조사와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재생산건강 관련 요인을 분석한 천희란(2016)의 연구 결과 유배우 여성의 피임 실천율과 인공임신중절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35세 이후), 대졸자에 비해 고졸 이하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무직 여성에 비해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 여성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³⁹⁾ 2018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의 임신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평균 임신유지율은 초혼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취업 중인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동 연구에서 피임실천율은 고연령층일수록, 취업 중인 경우, 출생아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⁴¹⁾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인식과 경험에 대하여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동식 등(2018)의 연구에서는 성적 동의 및 자기결정에 관한 인식, 피임에 관한 인식, 성매개 감염성질환에 관한

37) 김동식 외,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p. 184.

38)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 81.

39) 천희란, “지표로 보는 한국여성의 재생산건강,” 『보건복지포럼』, 제235호 (2016), pp. 38~39, pp. 41~42.

40)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p. 127~129.

41) 위의 책, pp. 129~131.

인식, 재생산 권리 등과 같은 인식과 성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생식기 질환 및 성병 경험과 의료서비스 접근, 성적 동의 없는 피해와 가해 경험, 난임 진단 및 시술 경험, 임신중단(낙태)에 대한 결정 등의 경험에 있어서 연령, 성, 혼인여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예로 ‘여성의 선택에 따라 임신여부, 자녀 수, 임신 시기,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50대 이상보다 20대 이하로 어려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생식기 질환 및 성병 관련 의료기관 방문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⁴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굿마허-란셋(Guttmacher-Lancet)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수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도시거주와 같은 특성이 성·재생산 건강 문제로 인한 사망과 장애가 더 적은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⁴⁵⁾

한편 북한의 재생산 영역에서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질적 실천을 살펴본 김석향과 박민주(2016)의 연구결과, 북한에서는 거주 지역, 시기, 경제적 환경, 직장 재직 여부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달라지는데 이 중 특히 신분과 경제력이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⁴⁶⁾ 1990년대 중반 배급제 붕괴 이후 북한 사회는 실질적으로 시장과 자본을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의사와 의료

42) 김동식 외,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pp. 143~256.

43) 위의 책, pp. 184~186.

44) 위의 책, pp. 212~213.

45) Ann M Starrs et al.,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Guttmacher-Lancet Commission,” p. 2649.

46) 김석향·박민주,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3집 1호 (2016), p. 111.

기관이 산모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경험이 달라졌다.⁴⁷⁾ 또한 이 시기 이후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여성의 피임 시도도 증가하였다.⁴⁸⁾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교육수준, 신분(계층), 경제력(가구 소득) 등이 성과 재생산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인 심층면담조사의 참여자 선정 시,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했다.⁴⁹⁾

(3) 통일 대비 여성·아동 건강 정책 관련 연구

북한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 2015년에 황나미 외가 수행한 정책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심각한 기근은 향후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통일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통일시점에서 남북한 간 사회적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 있는 여성 및 아동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⁵⁰⁾

47) 위의 글, p. 119, p. 122, p. 130.

48) 위의 글, pp. 122~124.

49) 북한이탈주민 특성상, 본 연구 면담참여자 참여 조건에 부합하면서 이러한 변인을 골고루 갖춘 사례자를 섭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50) 황나미·최정수·김소은, 『통일한국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 북한, 그리고 한국의 성과 재생산 관련 정책 변천과 최신 동향을 건강, 보건, 위생 등 건강권 관점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관점에서 모성과 양육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전·후로 해서 북한의 모성과 양육 관련 전반적인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건강 관련해서 모성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5세미만 사망률, 중증 영양실조, 저체중 출산, BCG 접종률, 생리용품, 합계출산율, 산전관리 수급율, 의료진에 의한 출산율, 출산 장소와 출산지원인력, 피임, 모유수유율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방접종, 가정내 환경, 안전한 식수, 배설물 처리를 위한 위생시설, 탁아소 이용 여부, 탁아소 이용 만족도 등의 개선 정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앞서 분석한 지표들이 실제와의 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김정은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모성과 양육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여기에 추가로 가정관계의 평등성을 파악하고자 배우자의 가사일과 양육에 참여정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정보 접근성⁵¹⁾ 차원에서 육아정보의 습득경로를 알아보았다.

끝으로 향후 북한 인구의 규모와 질적 수준을 예측하고, 연구결과

51) ICPD 25에서는 성과 재생산 권리의 정의의 하나로, “전 생애에 걸쳐, 차별, 강제, 착취, 폭력없이 이상의 모든 사항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정보, 자원, 서비스, 지원에 접근한 권리”를 포함하였다. 김정혜,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p. 274.

를 바탕으로 주요 지표들에 대해 남북한 비교, 분석하여 대북지원,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나. 연구 방법

(1) 문헌분석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노동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아울러 김정은 시기 이후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모성, 양육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둘째, 국내 문헌으로는 선행연구 및 주로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청의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셋째, 김정은 시기 이후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북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한다. 2014년 사회경제연구 및 건강조사(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이하 SDHS), 2017년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이하 MICS), 가장 최근(2021년)에 북한이 제출한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이하, VNR 보고서)”⁵²⁾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며 통계분석 기법이 가능한 주제는 분석, 정리하였다.

52) 이 보고서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번역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가 나옴.

(2) 심층면담조사

북한이탈주민 중 김정은 시기에 1)임신, 2)출산, 3)영아자녀(출생 12개월 이내) 양육 경험이 있고, 4)최근 5년 이내(2016년 이후) 입국한 여성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⁵³⁾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감소 추세라, 이 같은 4개 조건을 모두 갖춘 사례를 찾기란 상당히 어려웠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특정 지역(함경북도, 양강도 등 국경지역)⁵⁴⁾ 출신이 다수이고 약 70%가 중졸(고등학교)⁵⁵⁾ 학력자란 동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면담참여자가 7명에 불과하다보니 출신지역, 학력,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례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섭외가 쉽지 않았다. 결국, 조건을 완화해서 실시하였다. 사례 2, 5, 7은 김정은 집권 시기에 출산하지는 않았으나 양육경험이 있고, 학력, 출신지역, 직업이 달라서 면담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1회 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되었다.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7명의 일반적 사항과 모성 및 양육 개요는 다음과 같다(〈표 I-1〉, 〈표 I-2〉 참조).

〈표 I-1〉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일반적 사항

번호	나이	지역 ¹⁾	학력	직업	결혼연도	출산연도	자녀수	입국연도
1	30대	양강도	고졸	장사	2011년	2013년	1명	2016년
2	40대	양강도	대졸	교원/장사	2005년	2007년	1명	2016년
3	30대	황해남도	고졸	사무직	2009년	2010년	2명 ²⁾	2014년
4	20대	양강도	고졸	무직	동거 ³⁾	2018년	1명	2019년

53) 예산문제로 사례수가 적음.

54)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1), pp. 72~73.

55) 위의 책, p. 69.

번호	나이	지역 ¹	학력	직업	결혼연도	출산연도	자녀수	입국연도
5	40대	양강도	전문대졸	디자이너	2003년	2006년	1명	2018년
6	30대	양강도	고졸	군인	동거 ³	2014년	1명	2020년
7	40대	청진시	고졸	사무직	2006년	2008년	1명	2019년

주1: 지역은 출생지가 아닌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을 기준으로 함

2: 사례 3: 큰 아이 북한 출생, 작은 아이 한국 출생(2015년)

3: 사례 4, 6: 북한에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하고 결혼식만 함.

자료: 필자 작성

〈표 1-2〉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북한에서의 모성 및 양육 현황

번호	생리대	피임	낙태경험	산전/후 검진	출산 장소	산후 조리	양육 현황	생활수준/ 비고
1	가제천	출산 후 피임 (루프)	1회 (인공중절)	無	병원	친정집	모유 탁아소	중상 - 경제력있는 시댁
2	일반천, 일회용 병행	출산 후 본인피임	2회 (자연유산, 인공중절)	無	집	친정모와 동거	모유	중하 - 친언니가 산 부인과 의사
3	가제천	출산 후 본인피임	2회 (인공중절)	無	친정집	친정집	모유	중하
4	일회용	출산 후 본인피임 (하나원)	1회 (인공중절)	병원 (2~3)	친정집	친정집	모유, 분유 병행	중상 - 경제력있는 시댁 - 출산 45일만에 탈복
5	일회용	출산 후 피임	첫째 아이 출산 직후 사망	전직 산부인과 의사 집에서 1~2회	병원 (제왕 절개)	친정집	모유 개인보육 사, 탁아소 미이용, 유 치원 이용	중상
6	가제천, 일회용 (외출 시)	출산 후 피임 (루프) *군병원에서 시술	1회 (동거 전, 인공 중절)	산전 2회	친정집	친정집 (친정 아버지와 고모)	모유 (1년6개월)	중 - 친정어머니 일찍 사망
7	일회용	無	無	기업 내 병원에서 정기	중국 친정집	출산 후 2주만에 북한으로	모유 (1년6개월)	중상 - 출산을 앞두고 친정어머니

번호	생리대	피임	낙태경험	산전/후 검진	출산 장소	산후 조리	양육 현황	생활수준/ 비고
				검진		와서 제대로 못함		만나리 중국 갔다가 출산함 - 2010년 이후

자료: 필자 작성

면담내용은 다음 <표 1-3>과 같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면담내용이 북한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면담지를 한국의 모자보건 의료체계,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 관점에서 구성하다보니 실제 면담조사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이 많았다. 북한에서는 산전검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었으며, 출산은 집에서 산파가 와서 한 경우가 많았다. 산후검사를 받은 사례는 한 사례도 없었다. 산후검사를 받지 않아서 관련 후속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출산휴가제도 질문도 직장을 다니지 않고 등록만 해둔 경우가 많아서⁵⁶⁾ 북한의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이었다. 따라서 면담참여자의 입장에 맞추어 면담을 진행하다보니 준비한 질문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3> 심층면담조사 면담 내용

구분		면담내용
일반사항		- 출생연도, 학력, 직업, 결혼연도, 탈북 및 입국년도 - 임신 및 출산연도, 자녀현황,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직위 등
모성	생리	- 사용한 생리용품 종류, 비용, 구입장소
	가족계획 및 피임	- 이상적인 자녀수, 몇 살 터울로 출산 계획 등 배우자와의 상의, 추가출산 계획 등 - 북한에서의 일반적인 피임방법, 본인이 선택한 피임방법, 배우자의 피임 여부

56) 직장에서 배급이나 월급이 나오지 않지만, 소속 기관이 없으면 사회조직(여맹 등)에 동원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에 등록만 해 두거나 오히려 돈을 회사에 내고 안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함.

구분	면담내용	
임신	- 임신시기, 원해서 임신했는지 등	
산전관리	- 산전 정기검진 여부, 첫 수진시기, 검사 횟수, 검사 서비스 등 - 병원과의 접근성 - 임신부에 대한 북한 사회 분위기	
출산	- 출산 장소,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 출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산후관리	- 산후조리 장소,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 기간 - 산모 건강을 위한 조치: 병원 검진 등	
모유수유	- 모유수유 여부 및 기간, 분유 사용 여부	
모성상	- 이상적인 어머니상, 이를 위한 노력	
양육	보건·위생	- 예방접종, 정기 검진, 이유식 시작 시기 및 종류 -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등
	가정내 환경	- 자녀방 유무, 장난감 및 동화책 구비 정도
	탁아소·유치원	- 이용 및 미이용 여부·이유, 이용 시기
	배우자 지원	- 육아 및 가사일 참여 정도
	육아정보 습득	- 정보습득경로, 정보제공을 위한 공적기관 여부
기타	- 북한에서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 남북의 모성과 양육의 차이점	

자료: 필자 작성

다. 전문가 자문회의

북한 의료 관련 남북한 전문가 대상으로 연구방향, 연구방법(면담 참여자 섭외 포함), 자료수집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표 1-4〉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정	안건	참석자
1	2021.6.3.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 여성의 생식건강 실태와 최근 변화	탈북 여성을 진료, 치료한 한국 산부인과 의사
2	2021.6.10.	북한 여성 생식건강 및 모자 보건 의료체계 제도와 실태 파악	북한 의료 관련 선행연구자
3	2021.6.11.	북한 여성의 성과 재생산 인식 파악 및 연구대상자 섭외 협조 등	북한 고위 관료 출신

구분	일정	안건	참석자
4	2021.7.3.	북한 의료체계 변화 과정 및 임신, 출산 의료 현황 파악	북한 의료진 출신 (한의사, 산부인과 의사)

자료: 필자 작성

라.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모(母)과제의 연구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 1-5〉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실시 현황

구분	일정	내용
중간보고회	2021.7.15.	착수보고회 일정이 없었으므로 연구계획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진도를 보고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 논의함.
최종보고회	2021.10.12.	과제 종료 직전 중간보고 이후 진행 상황 및 최종 원고에 대해 검토받음.

자료: 필자 작성

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하였다(220996-210414-HR-002에 대한 육아정책연구소 IRB 승인-KICCEIRB-2021-제02호).

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모성과 양육 영역으로 논의의 장을 확장해서 북한 기혼 유자녀 여성의 모성과 양육을 건강권 중심으로 고찰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을 어머니로(만) 규정하는 모성과 양육은 인구조절의 수단이지만,

자기주도적으로 어머니가 되기를 선택한 여성의 모성과 양육은 성과 재생산의 담론 확장에 기여하는데, 여성이 자발적으로 ‘어머니가 되어(모성) 자녀를 키우는 것(양육)’을 선택하고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환경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건강권’은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자유권)’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사회권’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right to health: 건강할 권리)은 개인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인 인권의 일종이다.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right to health care)은 의료서비스들이 시장원리에 의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권리이다.⁵⁷⁾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건강권은 UN에서 제시한 4대 보장 요소(<표 I-6> 참조)를 포함한 개념이다.

<표 I-6> UN의 건강권 4대 보장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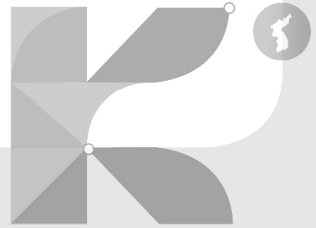
보장요소	내용
가용성(Availability)	국가는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보건의료기관, 보건 의료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여 국민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은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다.
접근성(Accessibility)	보건의료시설, 상품 및 서비스에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affordability), 정보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성(Acceptability)	모든 보건의료시설과 상품 및 서비스는 의료 윤리와 문화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인이나 소수, 민족, 지역사회, 젠더에 민감하거나 생활주기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57) 우리나라 보건의료기본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1항)”,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2항)”고 명시하고 있다. 최세문,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토픽리뷰 세미나발제자료(비공개), 2004.5.11., p. 9.

보장요소	내용
고품질(Quality)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 상품과 서비스 또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양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잘 훈련된 의료진, 과학적으로 승인된 안전한 약과 병원 장비, 충분한 위생과 안전한 식수 등이 포함된다.

자료: UN Doc. E/C.12/2000/4 (2000), 재인용: 최세문,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토픽리뷰 세미 나발제자료(비공개), 2004.5.11., p. 11.

II. 건강권 관점에서 ‘성과 재생산’ 정책 동향 고찰



이 장에서는 국제사회, 북한, 그리고 한국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 건강권 중심으로 정책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1. 국제사회

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대두배경 및 이행 경과

서론에서 진술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성과 재생산 담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80개국이 참가하여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인구회의(Internation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t, 이하 ICPD)였다. 본 회의에서 인적자질 향상 정책으로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의⁵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과 재생산권의 이행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였다.⁵⁹⁾ 카이로 행동강령에서 비로소 성과 재생산권이 인구관리 차원이 아닌 권리 보장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⁶⁰⁾

전 세계 국가들이 시행하기로 한 ‘카이로 행동강령’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행동강령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그 맥을 이어받았다. 2009년 9월 유엔은 전 세계의 지도자 총회를 개최하여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8개의 MDGs를 채택하였다.⁶¹⁾

이들 8개의 MDGs에서 MDG 4 ‘아동 및 사망률 감소’와 MDG 5

58) 학자들마다 생식보건 또는 재생산 또는 출산 등의 용어로 해석해서 사용하는데(황나미·최정수·김소운, 『통일한국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p. 19) 본고에서는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재생산이란 용어로 통일함.

59) 위의 책, p. 19.

60) 김정혜,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p. 269.

61) 황나미·최정수·김소운, 『통일한국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p. 21.

‘모성의 건강증진’ 목표를 설정하면서 아동과 여성의 건강권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한편, MDG 3에는 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목표가 제시되어 있어 건강과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⁶²⁾

한편,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건강권리 측면에서 모두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인권으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⁶³⁾

〈표 II-1〉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세부목표 및 지표

목표	세부 목표	지표
MDG 4 아동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4: 1990년 기준, 2015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2/3감소	4-1.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4-2. 영아사망률 4-3. 1세 아동 중 홍역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의 비율
MDG 5 모성 건강 증진	세부목표 5: 1990년 기준, 2015년 5세 미만 모성 사망률을 1/4감소	5-1. 임산부 사망률 5-2. 숙련된 의료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세부목표 6: 2015년까지 재생산 건강의 보편적 접근 달성	6-1. 피임도구 사용률 6-2. 청소년 출산율 6-3. 산전관리율(1회 이상 최소 4회) 6-4. 가족계획 미충족 비율

자료: UN, “Official list of MDG indicators,” January 15, 2008, (<https://millenniumindicators.un.org/unsd/mdg/Host.aspx?Content=Indicators/OfficialList.htm>) (Accessed July 5, 2021).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종료된 시점인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회원국들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⁶⁴⁾ 17개 목표 중

62) 위의 책, p. 21.

63) UN Doc. E/CN.4/RES/2003/28 (2003), pp. 1~2.

3번째 목표인 ‘건강한 생활과 복지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표 II-2〉 참조).

〈표 II-2〉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3의 세부목표 및 지표

목표	세부목표	지표
SDG 3 건강한 생활과 복지 증진	3.1 2030년까지 산모사망률 10만 명당 70명 이하로 감소	3-1-1. 모성사망비 3-1-2. 숙련된 보건인력 도움에 의한 출산 비율
	3.2 2030년까지 5세 미만 아동사망률 1,000명당 25명 이하 감소 및 신생아 사망률 1,000명당 12명 감소	3-2-1. 5세미만 아동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을 포함한 성과 재생산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및 재생산건강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통합 보장	3-7-1. 가임기 연령(15-49세) 중 현 대적 방식의 가족계획 필요여성의 실천 비율

주 1: 세부목표 중 3.4, 3.5, 3.6은 성·재생산 건강과 무관하여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음.

2: SDG 5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소녀의 역량 강화”는 모(母)과제에서 다름.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health/>〉 (Accessed October 28, 2021);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3/>〉 (검색일: 2021.10.28).

한편, SDG 6인 ‘깨끗한 물과 위생(Ensure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for all)’⁶⁵⁾도 모성과 양육과 밀접하다. 월경 및 목욕, 기저귀, 분유 관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오염된 물을 사용할 경우, 생식기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식수로 사용 시 수인성 질환에 노출되며,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64)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Accessed June 15, 2021).

65)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health/>〉 (Accessed October 28, 2021).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깨끗한 물과 위생환경은 임신, 출산, 산후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임기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다. 자녀를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빨고, 분유를 먹이는 등 양육에 있어서도 깨끗한 식수와 위생환경은 자녀건강에 필수적이다.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SDG 6의 세부목표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 달성’ 및 ‘여성/여아 및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주의와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 접근 달성, 야외 배변 근절’이며 해당 지표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이용인구 비율’과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 이용인구 비율’이다(〈표 II-3〉 참조).

〈표 II-3〉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6의 세부목표 및 지표

목표	세부목표	지표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	6.1 모두를 위해 적정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 달성	6-1-1.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여성/여아 및 취약 계층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	6-2-1. (a)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 시설과 (b)비누와 물로 손씻기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water-and-sanitation/>〉 (Accessed October 28, 2021);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6/>〉 (검색일: 2021.10.28.).

나. 성과 재생산 건강 구성 지표 및 요소

UN은 1994년 카이로 행동강령(ICPD 행동강령)의 후속조치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2015년까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성과 재생산 관련 정보 접근 및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⁶⁶⁾ UN 산하 보건전문기구인 ‘세

66) 황나미·최정수·김소은, 『통일한국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p. 2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 및 권리에 대해 각 국가별 행동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1997년에 17개의 성과 재생산 건강지표(Reproductive Health Indicators)를 개발하였다.⁶⁷⁾

ICPD 25주년을 맞이해서 나이로비 정상회의에 제출된 국제연합 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PFA)의 보고서에 서는 굿마허-란셋(Gutmacher-Lancet) 위원회에서 제안한 성과 재생산 권리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권리들을 포함하는 성과 재생산 권리의 포괄적 정의를 제안하였다.⁶⁸⁾

- 신체적 통합성, 사생활, 개인적 자율성을 존중받을 권리
-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및 성별 표현을 포함하여,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게 정의 할 권리
- 성적 행동(sexually active)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권리
- 성적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안전하고 즐거운 성적 경험을 할 권리
- 결혼 여부, 시기,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

67) 17개 건강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한 아기수, ② 피임실천율(남성 포함), ③ 모성사망비: 출생 10만명당 모성사망수, ④ 산전수진율, ⑤ 전문인에 의한 분만개조, ⑥ 필수 산과관리(일차보건의료강화, 응급산과서비스 제공 등) 유용성, ⑦ 포괄적 필수 산과관리(적정의뢰 및 이송, 일차보건의료 강화) 유용성, ⑧ 주산기 사망률: 임신 22주~출산 후 1주일 이내 태아 및 출생아 사망, ⑨ 저체중아 출생 비율, ⑩ 매독 혈청 검사 양성 임부 유병률, ⑪ 가임여성 빈혈 유병률(12g/dl 이하, 단, 임부 11g/dl 이하), ⑫ 산부인과(분만 제외) 입원 비율, ⑬ 여성 Genital Mutilation(여성의 생식기 일부에 상처를 내는 아랍과 유태인의 종교이식으로 일명 '할례'라고 일컬음) 비율: 여성의 성적 학대 금지 목적, ⑭ 여성 불임 유병률, ⑮ 요도염 발생률(15세 이상 남성의 연간 발생 기준), ⑯ 임신여성의 HIV 양성자 비율, ⑰ HIV-관련 예방실천 지식(15~24세 여성 및 남성의 HIV 등의 방지를 위한 건강. 위의 책, p. 20.

68) 김정혜,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pp. 273~274.

- 자녀를 가질지 여부, 시기, 방법, 자녀수를 결정할 권리
- 전 생애에 걸쳐, 차별, 강제, 착취, 폭력없이 이상의 모든 사항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정보, 자원, 서비스, 지원에 접근할 권리⁶⁹⁾

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94년 카이로 행동강령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의 이해도는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유엔인구기금(UNFPA)’이 ‘카이로 행동강령’에 대한 국가별 주요 이행수준을 발표하는데 최근에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한국어판)’에 의하면 여전히 많은 여성과 여아들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동의하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⁷⁰⁾ 또한, “여성 할례의 위협에 처한 여아의 수가 약 410만 명에 달하며 매일 33,000건의 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조혼으로 여성과 여아의 건강권, 어린 나이의 임신과 관련된 사망,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⁷¹⁾ 등 여전히 많은 여성과 여아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4월 ‘유엔인구기금(UNFPA)’이 처음으로 『My Body is My Own』의 제목으로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World Population

69) UNEPA,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 Essential Element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2019.11., p. 12,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pub-pdf/UF_SupplementAndUniversalAccess_30-online.pdf> (Accessed October 28, 2021), 재인용: 위의 글, p. 274.

70)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보도자료,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2020.6.30.), p. 2, <http://www.ppfk.or.kr/sub/data/report_material.asp?mode=view&bid=9&s_type=&s_keyword=&s_cate=&idx=29752&page=2> (검색일: 2021.11.8.).

71) 위의 글, p. 2.

Report)’를 발간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였다.⁷²⁾ 전 세계 여성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해 평균적으로 남성이 갖는 법적 권한의 75%만을 누리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⁷³⁾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 간주할 수 있는 피임의 경우, 15~49세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세계 평균 49%이며 현대적 방법의 피임으로 국한할 경우 45%라고 제시하였다. 한국은 각각 81%와 73%이었다.⁷⁴⁾

현재 성과 재생산 건강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도전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안전한 피임법의 사용이다. 가임기 여성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게 되면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안전하지 못한 유산으로 인한 감염 등의 질병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교육과 함께 현대적 피임법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문화적 규범 내에서 아동·청소년기부터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성·재생산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72) UNFPA, *My Body is My Own* (New York: United Nation Population Fund, 2021), pp. 109~120.

73) *Ibid.*, p. 8.

74)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보도자료,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p. 9.

2. 북한

가.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법제도

북한은 전통적으로 모성을 사회주의 체제를 이끄는 인력이자 후속세대(자녀양육)를 재생산하는 인구로 간주하고 정책적으로 일찍이 관리하였다. 북한 당국은 재생산 관련 모성보호 및 어린이 건강, 자녀양육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1948년도 사회주의 헌법에 천명한 이후, 1972년 「헌법」(제62, 63조), 1976년 「어린이교육보양법」(제20, 21조), 1978년 「노동법」(제30조), 「인민보건법」(제10조) 등의 입법에서 더욱 구체화하였다.⁷⁵⁾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대해서는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보장 원칙을 공표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다(7장 172개 조항으로 구성). 동법 제77조에는 ‘여자는 남자와 동일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고 명시하여⁷⁶⁾ 모성의 건강권과 함께 사회적 활동권도 강조하고 있다.

75) 김영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권 4호, (2014), p. 93.

76)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8.개정)」,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 (검색일: 2021.5.23.).

(2)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 당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해 노동부담이 높은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평등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을 1976년 제정하였고, 2013년 개정하였다.⁷⁷⁾ 출생 후 취학 전 영유아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의 조기 집단교육을 통한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을 형성하여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여성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영유아 보육제도를 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법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 양육(제2조)”을 표방하여, 부모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고(제6조), 어린이에게는 현대적인 탁아소,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설립해서(제13조)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⁷⁸⁾

동법에도 모성보호를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제20조(어머니의 보호)에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여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의 보장”과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여성들을 제 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노동시간 안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옹근 생활비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⁹⁾

또한,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 봉사와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할 것을

77)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2013. 4. 4. 개정)」,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 (검색일: 2021.10.30.).

78)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2013. 4. 4. 개정)」.

79)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2013. 4. 4. 개정)」.

(제25조) 규정하고 있다.

(3) 인민보건법

「인민보건법」은 1980년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인민보건과 관련된 기본 법률이다(7장 51개 조항으로 구성). 동법의 취지(목적)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2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3장)”, “주체적인 의학과과학기술(4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장(5장)” 등을 기초로 한다.⁸⁰⁾

동법에는 “국가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들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며(제11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제13조)고 명시하여 여성과 아동 건강보호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환자 및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여성들과 그의 부양가족들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몹”을 지원하고, 이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제14조)하고 있다.⁸¹⁾

또한, 국가는 “산원, 소아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요양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불편 없이 치료를 받도록 한다(제15조)”.⁸²⁾

(4) 노동보호법

북한의 모성보호는 「노동보호법」에 반영되어 있다. 동법은 기존의 「사회주의노동법」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의 내용을

80)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2012.4.3. 개정)」,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 (검색일:2021.10.30.).

81)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2012.4.3. 개정)」.

82)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2012.4.3. 개정)」.

보다 강조하고, 아울러 「인민보건법」에 명시된 여성과 아동의 건강 보호 원칙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었고, 2014년 한 차례 수정되었다(7장 총 73개 조항으로 구성).⁸³⁾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되(제36조),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하여 노동의 강도 및 조건에 따라, 또는 젖먹이 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노동·시간외 노동·휴식 일 노동을 금지하며(제38조), 산전·산후휴가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4, 40조).⁸⁴⁾

근로 모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임신한 여성의 경우, 2015년부터 산전 2개월(60일)과 산후 8개월(24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⁸⁵⁾

(5) 여성권리보장법

북한 당국은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7장 55조항으로 구성).⁸⁶⁾ 동법의 제정 배경에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열악한

83)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북한의 노동 법제 소식,” 『남북법제소식』, 2021.6.17., p. 45,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346¤tPage=1&&keyField=ALL&keyWord=%EB%82%A8%EB%B6%81&yrr=2021&mn=?> (검색일: 2021.11.8.).

84)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보호법(2014.3.5.개정)»,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검색일: 2021.10.30.).

85) 2015년 이전 적용되었던 산후 3개월의 휴가만으로는 출생아의 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모성의 근로활동에 지장을 주고, 모유수유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생후 6개월까지의 모유수유 권장을 위해 산후휴가를 연장하였다.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 합계출산율이 1.9명이었고,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 및 출생아의 건강도모를 위해 산전·산후휴가의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노동보호법」(제66조) 과 「여성권리보장법」(제33조)을 개정하여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5개월)보다 더 긴 기간의 산전·산후휴가 보장을 규정하였다.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6.1.)OHCHR_국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Center/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11&mode=view&cntId=53926&category=&pageIdx=3> (검색일: 2021.10.30.).

국가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해 취해진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하면 “여성은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여성에 대한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올바른 여성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제18조). “교육기관에서는 여학생의 육체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며, “여성을 위한 해당 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여학생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켜야 한다”(제20조). 요컨대, “여성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을 갖추고 여성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며” 치료받도록 하여 여성이 치료받을 권리를 규정(제24조)하였다.⁸⁷⁾

재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 50조)”. 동시에 국가는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하여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고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의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제50조)”고 규정한다.

이처럼 동 법에서는 여성의 출산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모성영웅제도’를 실시하여 다자녀를 부양하는 여성과 다자녀 아동에 대해 다수의 우대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여성이 자녀의 양육 책임자라는 점에서 다자녀 여성을 보호하는 관점으로 강조된 측면이 있다.

(6) 탁아소에 관한 규정⁸⁸⁾

북한은 “1947년도에 제정한 ‘탁아소규칙’과 ‘탁아소조직제’를 보다

86)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2015. 6. 30. 개정)」,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 (검색일: 2021. 10. 30.).

87)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2015. 6. 30. 개정)」.

88) 규정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여 김영규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김영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pp. 86~87.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1949년 2월 1일 보건성 규칙 제1호로 ‘탁아소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⁸⁹⁾ 본 규정에는 영아(생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양육에 관한 대책 수립 및 실시, 영유아의 질병예방·양육·위생적 문화적 습성의 함양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제3조). 또한, 탁아소의 의사에게 일상적으로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관찰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제12조), 탁아소 생활을 가정에까지 확대하여 모성에 영양·위생·방역 및 양육에 대한 위생선전사업을 실시할 의무 부과(제17조) 등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규정한다.⁹⁰⁾

(7) 산원에 관한 규정⁹¹⁾

“북한은 1949년 10월 28일 보건성 규칙 제9호로 ‘산원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⁹²⁾ 이 규정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인권과 관련하여 “산원의 사업범위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이병율과 사망률 저하를 위한 사업·여성상담소와 간이산원 및 기타 치료기관에서 이송하여 온 분만예정 1주일 전 임부에 대한 건강보호와 치료사업·임산부의 대한 위생선전, 가택방문 간호사업(제3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⁹³⁾ 이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산원 원장에게 결핵 기타 전염병이 있는 산욕부에 대해서 담당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할 전원(轉院) 의무를 부과(제11조)”하고 있으며, “인공유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공유산을 실시하도록 강제(제13조)”하며,

89) 위의 글, pp. 86~87.

90) 위의 글, p. 87.

91) 규정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하여 김영규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위의 글, pp. 87~88.

92) 위의 글, p. 87.

93) 위의 글, p. 87.

산원에서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질환의 예방”을 의무화(제15조)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⁹⁴⁾

나. 국제사회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정책 동향에 공조 노력

국제사회에서 1994년 카이로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각 국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서비스 접근을 목표로 채택할 것을 권고할 당시, 북한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의 여파로 인해 경제난과 에너지난이 심각한 시기였다. 더욱이 연이어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북한사회는 사회경제 전반적인 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 1960년대부터 표방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보건의료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영양결핍에 의한 면역력 저하와, 방역체계의 붕괴로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모성과 아동의 사망률이 급증하는 등 성과 재생산의 건강수준은 악화일로였다.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성과 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자생력이 심각하게 열악해지면서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이하 UNFPA)’,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이하 UNICEF)’ 등에 의한 물질, 인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하에서 지원규모는 감소하였지만 2017년까지 임신부 및 수유부의 건강 개선상황을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평가조사를 실시하면서 모성과 아동 건강을 집중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왔다.⁹⁵⁾

94) 위의 글, p. 88.

95)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Center/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11&mode=view&cntId=53926&category=&pageIdx=3> (검색일: 2021.10.30.).

2008년부터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긴급 상황에서의 생식보건 서비스를 위한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가 진행되었으며 긴급 및 재난 상황에서의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상설 조정기구를 마련하였다.⁹⁶⁾ 또, 2008년부터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모자보건에 사용될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비축한 의약품은 매년 새 의약품으로 대체되고 있다.⁹⁷⁾

한편, 심각한 경제난, 기근난 속에서도 북한은 2001년에 UN이 1979년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해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정책 동향에 동참하였다. 결과, 2010년도에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동 협약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⁹⁸⁾ 북한은 2002년 9월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16년에 통합국가보고서(2, 3, 4차)를 제출하였다.⁹⁹⁾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팀(UN HCT)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2018년 북한 총인구의 영양부족 인구비율은 47.8%이며 특히, 모성과 아동의 높은 사망률에 주목하여 우선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¹⁰⁰⁾

96)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6.1.)OHCHR_국문,” p. 31.

97) 위의 글, p. 31.

98) “여성차별철폐협약,” KWDI Biref 제47호, 2018.6.29., p. 1,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16944&no=1>> (검색일: 2021.10.30.).

99) UN Doc. CEDAW/C/PRK/1 (2002), p. 1.

100)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2020,” 2020.4., pp. 18~19, <<http://ksm.or.kr/?charity-project=download&uid=1519&mod=document&pageid=1>> (검색일: 2021.10.30.).

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서비스 제공

북한은 유엔 산하 여러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당국의 열악한 재정적, 기술적 상황에서도 재생산 건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 또, 북한은 가족계획과 성·재생산 건강 분야에서 제기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제 비영리 조직인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이하 IPPF)’과 연대하였다. 1990년 평양에 ‘조선가족계획연맹’을 설치하고 ‘국제가족계획연맹’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서 1995년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조선가족계획연맹’은 임신부와 출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명칭을 ‘조선 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로 변경하여 모자보건서비스를 비롯한 청소년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교육 자료들을 개발, 배포하고 있다.¹⁰¹⁾

3. 한국

가.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주요 법제도

(1) 모자보건법¹⁰²⁾

한국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모자보건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등

101)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 6. 1.)OHCHR_국문,” p. 35.

102) 이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LSW/lsc.do?dt=20201211&subMenuId=15&query=%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menuId=1#undefined>> (검색일: 2021.10.30.).

법(제2조)에서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재생산) 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¹⁰³⁾

동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재생산 건강권을 강화하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임산부의 날’을 통해 전 국민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임신·출산 친화적 문화와 임산부가 배려 받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낙태에 대해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시하여 일부 허용하고 있다.¹⁰⁴⁾ 반면, 형법(269조)에서는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¹⁰⁵⁾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 의사와 해당 여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모자보건법」과 배치된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부각되어 와,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태아의

103)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104)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의사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그리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여성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임신 24주 이내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37541&urlMode=lsScJoRltInfoR&joNo=0015&joBrNo=00&docCls=jo>> (검색일: 2021.10.30.).

105)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269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0269%EC%A1%B0>> (검색일: 2021.10.30.).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입법 개선¹⁰⁶⁾을 2020년 12월까지 마련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2021년 7월 현재, 개정 입법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2)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¹⁰⁷⁾

근로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무급). 임신한 근로자는 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제74조의 2).¹⁰⁸⁾

근로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총 90일로 북한보다 5개월 더 짧다. 다만,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배우자인 근로 남성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

106)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에만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지가 가능하고 24주 이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신중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107) 해당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 조항을 인출해서 정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검색일: 2021.9.30.);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2%B7%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검색일: 2021.9.30.).

10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¹⁰⁹⁾ 또한, 북한에 존치하지 않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자연유산(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 또는 사산이 초래되었을 때, 모성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유·사산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연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된 날로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까지(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후 90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¹¹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¹¹¹⁾

이에 더하여 제18조의3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도 명시하고 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해야하며,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¹¹²⁾

109)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https://www.law.go.kr/LSW/lSideInfoP.do?lsiSeq=236819&urlMode=lsScJoRltInfoR&joNo=0043&joBrNo=00&docCls=jo>> (검색일: 2021.9.30.).

111)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12)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¹¹³⁾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낮아졌고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저출산 문제가 새로운 사회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다.¹¹⁴⁾ 이에 2005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에 의하면 국가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¹¹⁵⁾

동법(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

113) 이하 해당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 조항을 인출해서 정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query=%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menuId=1#undefined>>(검색일: 2021.9.30.).

114) 통계청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검색일: 2021.10.27.).

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편,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증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¹¹⁶⁾

나. 성과 재생산 건강권 관련 추진정책

우리나라는 여성의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2020년 평균 초혼 연령이 30.78세이고, 평균 초산연령은 32.2세이다.¹¹⁷⁾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이다.¹¹⁸⁾ 이러한 가운데 영아사망률은 2019년 출생 1천 명당 2.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4.1명)보다 낮아 높은 의료수준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성사망비는 2019년 출생 10만 명당 9.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8.9명)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¹¹⁹⁾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지원

장기적인 초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1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17) 통계청,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검색일: 2021.10.27.); 통계청,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I2> (검색일: 2021.10.27.).

118) 통계청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검색일: 2021.10.27.).

119) 통계청 e-나라지표, “2019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 사망 통계,”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69> (검색일: 2021.10.27.).

모성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를 활용하여 비용 일부(단태아 임신 시 2021년 6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¹²⁰⁾ 또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임신·출산할 경우, 의료비(급여 또는 비급여)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²¹⁾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부(사실혼 포함)가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¹²²⁾ 이와 같이 임신 및 출산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출생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통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다.¹²³⁾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 가정에 대해서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¹²⁴⁾

120) 고운맘카드, <<http://ah.korea-ins.co.kr/>> (검색일: 2021.10.30.).

121) 보건복지부, “2021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1.2., pp. 29~32, <http://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1001&CONT_SEQ=363496> (검색일: 2021.10.30.).

122) 위의 글, pp. 93~99.

123) 위의 글, p. 193, p. 258, p. 284.

124) 위의 글, p. 323.

(2) 알 권리 보장

정부는 성·재생산 건강보호를 위해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고위험 임신의 조기 대처를 위해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한국마더세이프)’를 운영하여 약물복용 시 부작용 여부 및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무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²⁵⁾

그러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피임, 안전한 성관계 및 책임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유산유도약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음성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입하는 등 안전한 임신 중단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수많은 교재 개발 및 배포를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 상품화가 팽배한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실화된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2021년 4월, 시민사회단체가 UNESCO의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포괄적 성교육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즉, UNESCO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성과 재생산 건강 등 8가지¹²⁶⁾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과 지역사회 등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 제정을 촉구하였다.¹²⁷⁾

125) 한국마더세이프, <<http://mothersafe.or.kr/>> (검색일: 2021.10.29.).

126) ① 관계, ②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③ 젠더이해, ④ 폭력과 안전, ⑤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⑥ 인간의 신체와 발달, ⑦ 섹슈얼리티의 성적행동, ⑧ 성과 재생산 건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식블로그, 2020.9.4.,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nesckor&logNo=222080364650>> (검색일: 2021.10.29.).

127)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204개 시민사회단체가 2021년 7월 포괄적 성교육 입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과 지역사회 등을 통해서 제공받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3)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범 사회적 홍보 및 배려 제고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해 재생산 건강을 보호하고자 도입한 ‘임산부의 날(10월 10일)’에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의료기관, 의료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포상·격려를 통해 사회적 배려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¹²⁸⁾

아울러 자연유산의 가능성이 높은 임신초기에는 의견상 알아보기 어렵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공공장소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기 어려우므로 임부임을 나타내는 상징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공장소 안내문과 임산부가 상징물품을 소지하도록 하는 등, 초기 임부들이 공공장소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 있다.

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정부는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국가 실천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세 차례 걸쳐 시행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임신 및 출산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 안정화와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성과 재생산 건강’ 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 시작되는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처음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을 단독 영역으로 선정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배

추구했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포괄적 성교육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2021.7.22., <<https://www.diversity.or.kr/column/?q=YToyOntzOjEY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7373911&t=board>> (검색일: 2021.10.28.),

128) 보건복지부, “2021 모자보건사업 안내,” pp. 19~20.

경에는 재생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의 증가로 인해 청년의 생식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대응이 미흡하여, 임신, 출산 건강 지원만으로는 건강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재생산권 및 생식건강을 인권으로 정립하여 정보·상담·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성지식 부족과 정확하지 않은 피임의 실천은 원치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의 가능성을 높이며, 향후 건강한 임신, 출산까지 저해한다는 관점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피임, 월경, 생식기질환, 난임, 임신의 유지·종결, 임신, 출산 등 모든 생식과정을 포함하였으며, 이들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¹²⁹⁾ 2021년부터 향후 5년간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¹³⁰⁾

첫째, 출산을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중심의 건강에서 남녀 모두의 보편적 건강 측면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둘째,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 인식 제고 및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개인의 생애주기(life course approach)에 따라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넷째, 여성·영유아 등 건강을 생애전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법제

129)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p. 90~93.

130) 위의 글, p. 88.

정비 및 성인지·인권 중심으로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계획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성·재생산권 보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한다. 아동·청소년기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점을 유지하도록,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9년 19세 이상 성인(1,840명)의 52.5%가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이들 중 교육이 도움이 안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이었고,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의 70.1%가 ‘인터넷 커뮤니티·SNS·유튜브’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¹³¹⁾

4. 소결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의 건강권 측면에서 모성과 양육 관련 정책 동향을 국제사회, 북한, 한국으로 나눠서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성과 재생산 담론이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카이로 행동계획부터이다. 이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각국이 달성해야 할 8개의 MDGs를 발표하였고, 이 중 MDGs 4(아동 및 사망률 감소)와 MDGs 5(모성의 건강증진)에 모성과 양육 관련 지표가 반영되었다. 본고에서는 MDGs 3(건강한 생활과 복지 증진)과 MDGs 6(깨끗한 물과 위생)도 모성과 양육 관련 지표에 넣어서 살펴보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7년도에 17개의 성과 재생산 건강지표를 개발하여 각 국가별 행동계획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국제사회가

131) 김동식 외,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pp. 234~235.

모성(여성)과 양육(여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여성과 여아가 할례, 조혼, 이른 나이 임신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모성의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는 피임 실천율은 세계 평균 50%가 채 안 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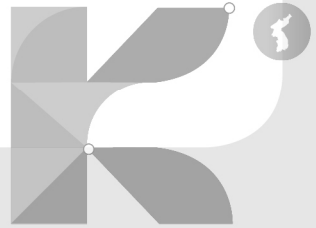
북한은 모성과 양육(어린이)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구로 간주하고 「사회주의 헌법(1948 제정)」, 「어린이교육보양법(1976년 제정)」, 「인민보건법(1980년 제정)」 등 일찍이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1990년에 ‘국제가족계획연맹’에도 가입하여 회원국으로서 1995년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전무후무한 심각한 기근난, 경제난 속에서 임부, 산모, 영유아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보건, 의료, 영양 영역의 개선을 위해 물질, 인적자원의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표본조사에 참여해서 개선상황을 점검하는 등 당면문제를 타개해 나갔다. 여전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은 2001년에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하여 여성 권리 증진과 모성과 양육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였다. 결과, 2010년도에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기존의 「인민보호법」에 명시된 여성과 아동의 건강보호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동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총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모성과 아동의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모성과 양육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관련 법제정과 개정을 통해 경제적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임신 및 육아 정보 제공 및 상담센터 운영으로 모성과 양육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0월 10일 임신부의 날 제정, 공공장소에 임신부 배려 안내문 및 공간 마련 등 임부들이 임신 초기부터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처음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성과 재생산 건강’을 단독 영역으로 구성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Ⅲ. 김정은 시기의 모성과 양육 정책 현황 및 지표 변화



앞 장에서는 북한의 성과 재생산 제도와 정책을 모성과 양육의 건강권 관점에서 시대순으로 개략적으로 고찰했다면, 이 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들어선 이후의 모성과 양육 관련 정책과 실제 변화를 고찰한다. 특히, 가장 최근에 북한 당국이 보고한 북한의 VNR 보고서에 실린 모성과 양육 관련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김정은 시기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고자 이전의 지표 수치들을 수집, 비교분석하였다.

1. 성과 재생산 관점에서 모성과 양육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북한은 2021년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진행되는 자발적 국가별 리뷰(Va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였다.¹³²⁾

이 보고서는 북한의 SDGs 이행 동향을 담은 것으로, 북한은 MDGs의 북한식의 이행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국가개발목표와 연계하여 ‘북한식 SDGs(NDGs)’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³³⁾ 요컨대, 북한은 사회주

132) 최규빈·홍제환,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22, 2021.7.20.), p. 1,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a0774f72-dded-4c48-aaf9-451f3fdb200>> (검색일: 2021.10.15.).

1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번역본),” p. 7, <<http://ksm.or.kr/?uid=1715&mod=document&charity-project=>

의 강국 건설과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달성을 위해 4개의 국가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SDGs를 배치시켰다(〈표 III-1〉 참조).

모성과 양육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 SDGs 3, 6(〈표 III-2〉 참조)은 북한 국가발전목표 3, 4 하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⁴⁾

〈표 III-1〉 유엔 SDGs와 북한 NDGs 연계: 개요

목표	북한 NDGs	유엔 SDGs
사회주의 강국건설	1. 인민의 정부 강화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4, 9, 16
	2. 과학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모든 부문의 발전	4, 5, 9, 12, 14, 17
	3. 자립과 지식경제 구축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4. 발전된 사회주의 문화 구축	1, 3, 4, 9, 13, 14
	5. 공통목표	4, 5, 9, 17

주: 굵은 글씨는 본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임.

자료: 최규빈·홍제환, “지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22, 2021.7.20), p. 5,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a0774f72-dded-4c48-aa19-451f3fdbc200>>, (검색일: 2021.10.15.).

북한식 SDGs(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와 유엔 SDGs 간의 세부목표 연계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유엔 SDGs와 북한 NDGs 연계: 세부목표

SDGs	유엔	북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인민들의 생계 증진
2	기아 종식, 안전하고 영양이 개선된 식량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의 자족 실현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건강한 삶 보장과 모두를 위한 웰빙 증진

download) (검색일: 2021.10.15.).

134) SDG 5(양성평등 달성)과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는 (연구총서 21-19) 박영자 외,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여성과 섹슈얼리티(서울: 통일연구원, 2021)에서 다룸.

SDGs	유엔	북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전민인텔리화 준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접근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
8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이고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자립적이며 지식 기반의 경제구축과 일자리 제공
9	회복력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주체와 과학 기반의 국가 경제 건설과 인프라 현대화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모든 대중의 지위와 역할 증진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더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과 환경 보장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서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대처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토지 황폐화 중지, 생물다양성 유지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사회주의 체제 강화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우호적인 파트너십 개발

주: 굵은 글씨는 본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임.

자료: 최규빈·홍제환, “지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p. 4.

이처럼 북한 당국은 유엔 SDGs와 북한 NDGs를 연계하여 각 세부 목표의 추진 현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였다. 여기서는 본 연구 주제인 모성과 양육 관련 개발목표 추진현황과 계획을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또한, 2016년도에 북한이 UN에 제출한 CEDAW 보고서(2, 3, 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실린 관련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가. 의료 및 육아기관 설립 추진현황 및 과제

(1) 추진현황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 헌법에 의거하여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주택공급을 추진하였다. 결과,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015년에 0.8%, 2018년에는 0.6%, 2019년에는 0.5%로 보고하였다.¹³⁵⁾ 동시에 공공 및 봉사건물 설립을 추진했는데 미래 과학거리, 려명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살림집 등을 평양시에 건립하였으며, 삼지연시에는 5개의 탁아소와 유치원, 약 20개의 공공 건물과 인민병원을 설립했다고 보고하였다.¹³⁶⁾

또한, 고아와 독거노인을 위해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양로원의 수와 각 시설별 인구를 지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5년~2020년 동안 67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학교, 양로원을 신설 또는 개설했다고¹³⁷⁾ 보고하였다. 노동신문에서도 애육원, 육아원을 김정은이 방문했다는 기사, 건설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육아원, 애육원을 준공 및 완공했다는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¹³⁸⁾ 다음은 그 일례이다.

1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기관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번역본),” p. 13.

136) 위의 글, p. 13.

137) 위의 글, p. 13.

138) “육아원, 애육원을 훌륭히 완공-자강도에서,” 『로동신문』, 2016.3.10.; “강계, 평성, 사리원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6.4.15.; “남포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6.4.22.; “신의주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6.5.1.; “해주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6.5.2.;

조선의 평양에 고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이 훌륭하게 일떠섰다는 소식을 들었을때만해도 모든 것이 이처럼 최상최고의 수준 일줄은 미처 몰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족들만이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도 고아들을 위한 복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할 것이다. 평양뿐아니라 지방에도 육아원, 애육원들이 훌륭히 꾸려져있고 국가적인 관심과 전인민적인 보살핌속에 부모없는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니 조선은 정말 아이들의 왕국, 아이들의 천국이다.¹³⁹⁾

2016년도의 CEDAW 보고서에도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과 같은 보육 및 치료시설을 마련”했으며 “전국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보수하고 모든 도에 소아과 병원을 설립하는”¹⁴⁰⁾ 등 김정은 시기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을 위해 힘써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병원 및 의료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1,829개의 중앙, 도급 일반 및 전문 병원, 55개 예방원, 6,263개의 종합진료소와 진료소,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682개 요양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염병 통제를 담당하는 235개의 위생방역기관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¹⁴¹⁾ 생식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1차 진료기관으로 도 시지역 종합진료소와 농촌 지역의 리 병원이, 2차 진료기관은 시(또는 구) 및 군 병원의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있으며, 도 차원의 여성병원(산원)과 소아과 병원이 중앙에는 평양 여성병원(평양산원)과 옥

“함흥, 해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2016.5.19. 세부내용은 부록 2 참조바람.

139) “우리 원수님과 원아들의 감탄의 목소리,” 『로동신문』, 2015.1.29.

140)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6.1.)OHCHR_국문,” p. 11.

141) 위의 글, p. 27.

류아동병원이 설립되어있다.¹⁴²⁾

(2) 향후 과제

2021~2025년 5개년 계획에 따라, 평양에 500,000세대 건설,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문화적인 생활 환경 조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치산치수 사업에 더 노력할 것을¹⁴³⁾ 제시하였다.

나. 여성 및 아동 건강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1) 추진현황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당국은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 자급자족 실현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과학농업, 간석지 개발, 우수한 종자의 대량 재배, 지력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¹⁴⁴⁾ 결과, 작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2009년 5.0백만톤→2019년 6.6백만톤).¹⁴⁵⁾

그러나 자연재해와 농자재 부족, 낮은 기계화 수준 등의 이유로 곡물생산량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¹⁴⁶⁾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급격히 줄고, 모든 여성이 필요한 영양은 충족되었다고 보고하였다.¹⁴⁷⁾

142) 위의 글, p. 27.

1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번역본),” p. 15.

144) 위의 글, pp. 15~16.

145)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2020,” p. 16.

146) 위의 글, p. 15.

식량 공급 외에도 북한 당국은 모성보호와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해 앞서 진술했듯이 모성 건강과 신생아의 영양 관리를 위해 출산 휴가를 기존의 15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으며¹⁴⁸⁾ 2015년부터는 자녀에게 충분한 모유수유를 위해 8개월 간의 유급출산 휴가를 도입하였다.¹⁴⁹⁾ 또한, 임산부는 가벼운 일을 할당받아야 하며, 4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 농민은 살충제 또는 농약을 사용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¹⁵⁰⁾

한편, “산전의료의 내용과 중요성, 임신 중 영양과 위생, 태아 관리, 의료시설에서의 출산과 교육된 보건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출산의 중요성, 신생아 관리 및 모유수유, 산후 관리 및 남성의 생식보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을 강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Bringing Up Children Strong and Healthy)’ 책자를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만부씩 인쇄, 배포하는 등¹⁵¹⁾ 모성과 양육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2) 향후 과제

2021~2025년 5개년 계획 동안 종자생산, 과학농법, 저수확지의 생산량 증대, 간석지 개발, 관개용수와 기계화 추진,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수확량을 늘림과 동시에 축산, 양어, 채소, 과일 재배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여 식량 자급자족의 실현 및 농업과학과 기술 발전을 제시하였다.¹⁵²⁾

147) 위의 글, p. 16.

148)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6.1.)OHCHR_국문,” p. 9.

149) 위의 글, p. 28.

150) 위의 글, p. 11.

151) 위의 글, p. 31.

그러나 북한의 식량 문제에는 적신호가 켜져 있다. 2021년 6월에 개최한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자연재해로 식량생산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¹⁵³⁾

202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5.2%가 감소했고,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서 식료품, 수입 소비재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하는 등 북한의 식량사정은 악화되고 있음¹⁵⁴⁾을 알 수 있다. 2021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육아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 점도 여성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식량생산력을 높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¹⁵⁵⁾

다. 모성 건강을 위한 전문의료인력 양성 추진현황 및 과제

(1) 추진현황

북한의 의료제도는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¹⁵⁶⁾ 2012년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들어서면서 북한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과학기술을 의료에 접목시켜 의학교

1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번역본),” p. 17.

153) 박영자 외,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18, 2021.6.22.), p. 4,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3d41b646-b68b-41f0-9d57-4abc5f450c9e>> (검색일: 2021.11.8.).

154) 위의 글, pp. 4~5.

155) 위의 글, pp. 6~7.

1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번역본),” p. 18.

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최신 기술 서비스가 열악한 평양과 대도시 외 지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양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료체계)를 구축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촌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 고도기술의 원격의료서비스(high tech-telemedicine services)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여성건강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¹⁵⁷⁾

보건당국은 여성 재생산 건강을 위한 의료교육전략(2013~2015)을 수립하였고, 아동과 모성의 영양실조 통제전략 및 행동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다. 조산 및 신생아 응급 훈련 모듈(표준)을 개발, 배포하여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에 보다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평양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묘향산의료기구공장 등 많은 현대적 의료시설들을 설립했으며 2020년에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⁵⁹⁾ 또한, 2030년까지 산모사망률을 100,000명당 40명 이하로 감소, 아동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 6명 미만, 5세 미만 아동사망률 12명 미만으로 감소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다.¹⁶⁰⁾

이 같은 정책추진 결과, 출산 시 전문의료인력 참여비율이 2010년 97.3%에서 2017년 99.5%로 증가했으며(2030년까지 100% 달성 목표), 말라리아 발병률 및 결핵 발병률이 빠르게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¹⁶¹⁾ 사춘기, 임신, 출산 및 산후 여성들의 건강관리(재생산 건

157)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6.1.)OHCHR_국문,” p. 41.

158) 위의 글, p. 33.

1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번역본),” p. 18.

160) 위의 글, p. 19.

강) 서비스도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¹⁶²⁾

출산의 약 40%가 리 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지역에 병원과 진료소에 입원 치료를 위한 필수 장비, 기구, 의약품, 시설을 공급했으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분만을 돕는 방법에 대한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급 산과 치료 및 신생아 관리에 대한 교육지침(Training Guideline for Management of Emergency Obstetric and Neonatal Care)을 개발해서 리 급의 조산사와 의사에게 배포, 교육을 진행하는 등 농촌 여성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¹⁶³⁾

(2) 향후 과제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한 호담당의사가 담당 구역의 가정과 직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예방 검진하는 등 예방의학 정책을 유지한다.¹⁶⁴⁾ 도별 인민병원의 현대화, 원거리의료봉사체계 완비, 구급의료봉사체계(응급의료 시스템) 및 의료봉사의 질관리체계(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고, 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¹⁶⁵⁾ 향후과제를 발표하였다.

161) 위의 글, p. 19.

162) 위의 글, p. 20.

163)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6.1.)OHCHR 국문,” p. 41.

1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번역본),” p. 21.

165) 위의 글, p. 21.

라. 여성의 생식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1) 추진현황

여성의 생식보건 서비스 측면에서 2014년과 2017년 피임약 보급률이 각각 78.2%, 70.3%이며, 같은 해 가족계획 미충족 여성비율은 각각 7.0%, 6.6%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¹⁶⁶⁾

북한 당국은 ‘보건분야 발전 중기전략(2010-2015)’의 생식건강분야에 8개 전략을¹⁶⁷⁾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CEDAW에 보고하였다. 8개 전략에서 주요 전략 중 하나인 가족계획의 경우, 현대적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을 2015년까지 12%미만으로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¹⁶⁸⁾ 기혼 여성 중 피임 사용율은 70.7%이며 이 중 67.3%는 현대적 피임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⁶⁹⁾ 국가 간 현대적 방법의 피임실천율을 비교하면, 북한은 높은 축에 속한다.¹⁷⁰⁾ 그러나 90%이상의 북한 여성들은 한 가지 방식(자궁내 장치, IUD)만의 피임법을 고수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더 다양한 피임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¹⁷¹⁾

북한에서는 낙태는 합법이다.¹⁷²⁾ 산모의 생명이나 신체적, 정신

166) 위의 글, p. 24.

167) ① 안전한 모성 및 신생아 의료, ② 높은 수준의 가족계획(FP) 서비스, ③ 생식기 감염/성매개 감염과 HIV의 예방·발견·관리, ④ 안전한 낙태, ⑤ 불임치료, ⑥ 자궁경부암 및 유방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 ⑦ 갱년기 장애치료, ⑧ 청소년 건강.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6.1.)OHCHR_국문,” p. 29.

168) 위의 글, p. 33.

169) 위의 글, p. 33.

170)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보도자료,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p. 9. 해당 보도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의 현대적 방법 피임실천율은 62%임.

171)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2020,” p. 42.

172) 위의 글, p. 33.

적 건강이 위협할 경우, 태아가 기형인 경우, 그리고 여성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⁷³⁾ 안전한 낙태와 낙태 후 관리 서비스 공급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설정,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수동진공추출기 사용법 제공 및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제공하였다.¹⁷⁴⁾

그러나 2015년 11월 자유아시아 방송을 포함한 여러 국제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낙태시술과 피임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피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3년의 구속 처벌까지도 내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혼 여성이 임신할 경우 낙태수술을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¹⁷⁵⁾

북한에서 출산뿐 아니라 낙태도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¹⁷⁶⁾ 자택출산이 모성사망의 2/3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¹⁷⁷⁾ 자택낙태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안전한 출산과 낙태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향후 과제

국제기구들이 주기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재생산 건강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173) 위의 글, p. 33.

174) 위의 글, p. 33.

175) “[스칼라튜] 북한의 피임시술 금지,” 『자유아시아방송』, 2015.11.3.,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greg/gscu-11022015104033.html>> (검색일: 2021.8.8.).

176) 본 보고서 IV장 참조

177)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2020,” p. 42.

(MDGs) 달성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모성 사망의 경우, 2017년 출생 10만 명당 89명¹⁷⁸⁾, 2015년 목표치 68명¹⁷⁹⁾). CEDAW도 북한의 2016년도 통합국가보고에 대해 “특히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 중 28%가 영양결핍 상태인 점을 비롯하여 여성의 영양실조 수준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¹⁸⁰⁾며 이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함께 미국의 대북제재까지 강화되면서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활동이 위축되었고,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인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성과 재생산 건강수준은 2017년 조사결과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모성과 양육 관련 건강권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마. 식수와 위생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1) 추진현황

깨끗한 식수와 위생은 여성과 아동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요건이다. 북한은 식수 공급을 위해 중력식 급수 시스템(GFS)을 실시하고 있는데, GFS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매일 식수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있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¹⁸¹⁾ 평가하였다. 이에 2018년에는 상수도 시설 공사에서

178) WHO et al.,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Geneva: WHO, 2019), p. 100.

179) 황나미, “북한의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도 및 우선순위 보건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92권 (2012), p. 79.

180)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차 보고서 관련자료(Concluding Observation)(2017.11.17.)_OHCHR_국문,” p. 11,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Center/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11&mode=view&cntId=53926&category=&pageIdx=3> (검색일: 2021.10.30.).

1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

GFS를 우선시한다는 조항을 ‘상수도법’에 세부 시행규정으로 추가하였다.¹⁸²⁾

그러나 일부 산업 및 가정용 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토양으로 배수되면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며 충분한 물 공급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하였다.¹⁸³⁾

(2) 향후 과제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 유니세프(UNICEF) 등 기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GFS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국가환경보호 기준에 맞게 가정용·산업용 폐수의 100% 처리 보장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¹⁸⁴⁾ 또한, 안전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농촌기구 비율을 늘리고 개선된 화장실의 비율을 더욱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¹⁸⁵⁾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2021년 6월 북한 당국이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제출한 VNR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인력과 제약 및 의료기기 공장, 필수약품 부족 등이 당면과제라고 자체 평가하였다. 특히 제약, 백신, 의료기기 공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조관리기준(GM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¹⁸⁶⁾ 이처럼 현재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들에 비

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번역본),” p. 25.

182) 위의 글, p. 25.

183) 위의 글, p. 25.

184) 위의 글, p. 26.

185)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보고서 관련자료(State party’s report)(2016.6.1.)OHCHR_국문,” p. 41.

1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번역본),” p. 20.

추어 볼 때, 안전한 피임도구 부족, 안전한 유산 등에 필요한 항생제 등 필수 의약품의 부족, 그리고 고위험 임신부 및 출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 및 기술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온 사실들도 CEDAW에 보고된 통합국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모성과 양육정책도 전 인민의 생활향상이란 정책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결과, 김정은 정권 이전 보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보건의료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중상 이상의 경제수준을 갖춘 사례들(사례 5, 7)에서 김정은 시기 들어서면서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장마당 규제도 나아지고, 정책도 사람을 조인다거나 그런 것도 나아지고, 사는 게 사람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했다고 할까. 마음을 편하게 해 준다고 느꼈는데, 지금 떠난 후에는 모르겠는데, 11년도에서 12년도엔 많이 마음 편하다고 느꼈어요. (중략) 김정은 시대 시작했을 때까지도 시장에 꽃제비들이 많았어요. 김정은이 금방 시작됐을 때, **2010년, 2011년 꽃제비들이 많았거든요. 장마당 주변에 가면 많았어요.** 개네들이 머리핀도 채가서 하고, 더우면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 채가고 그랬는데 **개들이 12년, 13년부터 없어졌어요.** 시내에 싹 다 없어졌거든요. 애들 다 어디 갔냐면 감금시킨 게 아니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고아원, 보육원, 애육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살림집 있는(잘 사는) 애들보다도 몇 배로 잘해주고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애육원에서 생활지도사를 하고 있는데 들었어요. (애육원) 생활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사례 6).

그러나 CEDAW은 북한 당국에 임부와 산모를 비롯하여 여성 및 여아의 영양실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현대적 피임법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안전하고 저렴한 피임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학교 교과과정에 성과 재생산 건강교육 반영 등을 권고한 바, 북한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¹⁸⁷⁾

2. 건강권 관점에서 모성과 양육 관련 지표별 변화

북한의 모성과 양육 관련 지표들에 대해 2012년 김정일 시기 이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변화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2년 이전 자료들도 수집, 분석하였다. 모성과 양육 관련 지표는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잣대이다. 모성과 양육 정책의 주요 핵심은 모성과 영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가. 모성의 건강

북한 사회의 모성 관련 지표변화를 보기 위해 사망률(모성사망비,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과 생식기의 위생 관련해서 생리용품 종류, 처리방법 관련 연도별 추이와 실태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모성 관련된 사망률 지표는 UN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해당 지표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북한 여성의 생리(대) 관

187) 통일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한 2-4차 보고서 관련자료(Concluding Observation)(2017.11.17.)_OHCHR_국문,” p. 11.

런 지표는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이런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요』의 연구내용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1) 모성 및 영아 사망률

북한의 모성사망률과 연계된 지표로 모성사망비와 영아사망률에 대해 2000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의 흐름을 표로 제시하였다(〈표 III-3〉 참조). 모성사망비(출생아 십만 명당)은 2000~2011년까지 100명 이상의 수치를 보이다가 2012년 96명을 기점으로 계속하여 그 수치가 낮아짐을 통해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 사망률과 5세 미만 사망률 또한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영아 사망률의 경우, 출생아 천 명당 2000~2005년 지표인 28.5명에 비해 2015~2020년 기간에 13.9명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영아사망률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5세 미만 사망률의 경우, 김정은 시대가 시작 되는 2012년에 출생아 천 명당 25.7명에서 2019년 17.3명으로 30% 이상 감소하였다.

〈표 III-3〉 북한의 모자 건강 관련 사망률(2000~2020년)

(단위: %, 명)

년도	사망률		
	모성사망비 (출생아 십만 명당)	영아사망률 (출생아 천 명당)	5세 미만 사망률 (출생아 천 명당)
2000년	139	-	60.0
2001년	128	-	52.1
2002년	122	-	44.7
2003년	121	-	38.9
2004년	120	-	35.0
2005년	120	28.498	33.0
2006년	120	-	32.4
2007년	119	-	32.2

년도	사망률		
	모성사망비 (출생아 십만 명당)	영아사망률 (출생아 천 명당)	5세 미만 사망률 (출생아 천 명당)
2008년	118	—	31.8
2009년	113	—	31.0
2010년	106	27,269	29.5
2011년	100	—	27.7
2012년	96	—	25.7
2013년	94	—	24.0
2014년	93	—	22.4
2015년	91	18,540	21.1
2016년	90	—	20.0
2017년	89	—	19.0
2018년	—	—	18.2
2019년	—	—	17.3
2020년	—	13,898	—

주: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를 그해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서 보통 1,000 분비로 나타냄(중위가정). 각 해당연도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의미함 (2005: 2000~2005, 2010: 2005~2010, 2015: 2010~2015, 2020: 2015~2020)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산모 사망률(출생아 10만명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BUNSO012&conn_path=2> (검색일: 2021.5.31.);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영아 사망률(출생아 천명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EG101_204&conn_path=2> (검색일: 2021.5.31.);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BUNSO015&conn_path=2> (검색일: 2021.5.31.).

(2) 생리용품¹⁸⁸⁾

북한은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정책에 맞춰서 성과 재생산 정책을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북한 여성들의 생리용품 사용 실태와 위생관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북한 여성

188) 본 절은 안현민·심진아,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이런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요』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의 연구내용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생리 관련 실태』에서도 제시된바 있다. 북한 여성의 생리 관련 실태 조사는 탈북 시점을 2012년 이후로 제한을 두고 탈북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생리 관련 인지와 교육 정도를 조사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탈북 여성들의 북한 거주 당시 생리 기간 중 사용한 생리대는 천 생리대(94명), 일회용 생리대(64명), 종이(9명)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종이사용은 주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종이나 휴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 대상자들은 생리 기간 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 후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천 생리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⁹⁾ 재사용 생리대 사용자 중 가제천 사용자는 76.7%인 89명, 일반천 사용자는 23.3%인 27명으로 가제천으로 만들어진 생리대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여성의 생리용품 사용과 가정 내 위생처리 공간확보와 관련하여 2017년 다중지표 클러스터 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이하 2017년 MICS)에서도 일회용 생리용품 사용(43.4%)보다 재사용 생리용품의 사용(55.4%)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¹⁹⁰⁾ 그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실태조사의 결과만큼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MICS에서 조사응답자의 일회용 생리용품의 사용 비율이 가구소득(Wealth index)이 높을수록 더 커지는 경향성을 통해 일회용 생리용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생리 혹은 월경에 대한 후처리와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사적 공간

189) 안현민·심진아,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이런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요』, pp. 26~29.

190)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2018.6., p. 158, <<https://www.unicef.org/dprk/reports/2017-dpr-korea-mics-survey>> (Accessed August 8, 2021).

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조사응답자 대부분이 공간확보가 가능했다고 응답(98.1%)했지만¹⁹¹⁾, 생리로 인해 사회동원, 학교 혹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2% 내외로 매우 낮은 비율¹⁹²⁾을 보여주고 있어 생리휴가 혹은 보건휴가와 같은 개념의 사회적 배려의 개념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191) *Ibid.*, p. 158.

192) *Ibid.*, p. 158. 해당 문헌에서 생리로 인해 사회동원, 학교 혹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전체 1.7% 이었으며, 지역, 연령, 학력수준, 부유지수에 따라 2% 내외에서 변동 적이다.

〈표 III-4〉 북한 15~49세 여성 대상 생리용품 사용과 가정 내 위생처리 공간 확보 실태

(단위: %, 명)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17년 MICS					
		가정 내 월경 후처리를 위한 사적 공간 확보 비율	지난 월경 기간 적절한 생리용품사용비율		가정 내 월경 후처리를 위한 사적 공간 내에서 적절한 생리용품 사용 비율	지난 12개월 동안 생리로 인해 사회동원, 학교, 혹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기혼여성 비율	조사 대상자 수*
			재사용 생리용품	일회용 생리용품			
전체		99.0	55.4	43.4	98.1	1.7	5,443
지역	도시(Urban)	98.9	43.3	55.2	97.8	2.2	3,311
	농어촌(Rural)	99.1	74.1	25.0	98.5	0.9	2,132
모학력	초등학교(Primary)	(*)	(*)	(*)	(*)	(*)	1
	중학교(Lower secondary)	(*)	(*)	(*)	(*)	(*)	1
	고등학교(Upper secondary)	99.2	57.0	41.9	98.3	1.6	4,397
	대학교(Higher)	98.2	48.6	49.6	96.9	2.1	1,044
연령	20~24	98.4	56.9	42.2	98.4	1.2	199
	25~29	98.9	53.5	45.7	98.3	1.8	853
	30~39	98.8	53.4	45.0	97.7	1.8	2,085
	40~49	99.2	57.8	41.2	98.3	1.5	2,306
가구 소득	20% 하위	99.0	79.6	19.6	98.4	1.6	1,076
	40% 중위	99.0	62.0	36.8	98.1	1.7	2,169
	40% 상위	98.9	37.0	61.5	97.9	1.7	2,198

주: (*) 로 표기된 부분은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명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사대상자 수: 지난 12개월 이내에 생리를 보고한 15~49세 기혼여성의 비율

자료: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158.

나. 건강과 의료

(1) 임신과 출산

북한 사회의 임신과 출산의 변화에 대해, 연도별 가임여성 규모와 함께 출산율, 의료진에 의한 출생비율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가임여성의 정의는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5~49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의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은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한 명당 함께 출산율은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유엔 인구 기금(UNFPA)에서 발표한 ‘인구통계 지표(Demographic Indicators)’의 2021년 기준 북한의 함께 출산율도 2020년 지표와 동일하게 1.9명으로 발표되었다.¹⁹³⁾

〈표 III-5〉 북한의 가임여성 규모와 함께 출산율, 의료진에 의한 출산 현황

년도	가임여성 규모와 출산			
	15~49세 여성 인구(천명)	15~49세 여성 인구 비율(%)	합계 출산율(명)	의료진에 의한 출산비율(%)
2000년	6,115	52.0	2,010	96.7
2004년	—	—	—	97.1
2005년	6,535	53.4	2,000	—
2009년	—	—	—	100
2010년	6,605	52.6	1,950	—
2015년	6,711	52.1	1,930	—
2020년	6,485	49.2	1,910	—

주: 함께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중위가정)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15~49세 여성 인구 수 및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E02&conn_path=2> (검색일: 2021.5.31.); 통계청 북한 통계포털, “합계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283&conn_path=2> (검색일: 2021.5.31.);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의료진에 의한 출생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01_005&conn_path=2> (검색일: 2021.5.31.).

193) UNFPA, *My Body is My Own*, p. 144.

모성 건강과 관련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시점별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수급 정도의 실태 파악을 통해 가늠할 수 있겠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SDHS)와 2009년, 2017년 다중 지표 클러스터 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이하 2009년 MICS, 2017년 MICS)를 통해 발표된 내용 비교를 통해 지표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임신 중 산전관리는 의사 혹은 준의사, 간호사 혹은 조산사, 그리고 이외 친척 혹은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산전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2009년 MICS, 2014년 조사와 비교하면 2017년 MICS에서 의사 혹은 준의사에 의한 산전관리를 받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도시가 농어촌 지역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급률을 보여주었다. 임부(혹은 출생아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사대상자들이 의사 혹은 준의사로부터 산전관리를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 참조)

〈표 III-6〉 산전관리 제공자에 따른 임신 중 산전관리 수급 현황

(단위: %, 명)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14년 SDHS						2009년 MICS		2017년 MICS					
		산전관리 제공자				산전관리 수급비***	조사 대상자 수*	산전관리 제공자		산전관리 제공자				산전관리 수급비***	조사 대상자 수**
		의사/준의사	간호사/조산사	친척/지인*	합계			의사/준의사	간호사/조산사	의사/준의사	간호사/조산사	산전관리 받지않음	합계		
전체		86.3	13.7	0.1*	100.0	99.9	2,016	71.0	29.0	91.7	7.9	0.5	100.0	99.5	931
지역	도시	94.4	5.6	0.0	100.0	100.0	1,127	75.1	24.9	97.0	3.0	0.1	100.0	99.9	559
	농어촌	74.6	25.2	0.1	100.0	99.9	889	64.7	35.3	83.6	15.2	1.1	100.0	98.9	372
모학력	고등학교 미만 (Upper secondary)	85.4	14.5	0.1	100.0	99.9	1,619	70.6	29.4	91.2	8.2	0.6	100.0	99.4	752
	고등학교 이상 (Higher)	89.7	10.3	0.0	100.0	100.0	397	72.9	27.1	93.6	6.4	0.0	100.0	100.0	179
임부 나이	20세 미만	-	-	-	-	-	-	-	-	-	-	-	100.0	-	-
	20~34	-	-	-	-	-	-	-	-	91.6	7.9	0.5	100.0	99.5	893
	<35	86.2	13.7	0.1	100.0	99.9	100	70.6	29.4	-	-	-	-	-	-
	35~49	93.7*	6.3*	0.0	100.0	100.0	23	73.9	26.1	(92.0)	(8.0)	(0.0)	100.0	(100.0)	38
가구 소득	20% 하위	-	-	-	-	-	-	-	-	83.3	16.2	0.5	100.0	99.5	181
	40% 중위	-	-	-	-	-	-	-	-	89.3	9.8	0.9	100.0	99.1	373
	40% 상위	-	-	-	-	-	-	-	-	98.0	2.0	0.0	100.0	100.0	376

주: () 안의 숫자는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49명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로 표기된 부분은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명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사대상자 수: 지난 3년간 출산한 여성의 수; ** 조사대상자 수: 지난 2년간 출산한 여성의 수; ***숙련된 의료인이 한 번 이상 참석한 15~49세 여성의 비율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2015.12., pp. 84~85,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19-07/2014%20SDHS%20Report_E_final.pdf> (Accessed August 8, 202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2010, p. 63,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19-07/03.10.b.MICS_DPRK_2009.pdf> (Accessed August 8, 2021);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51.

2009년 MICS와 2017년 MICS의 결과를 활용해 임부의 출산 장소와 출산지원 인력에 대한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표 III-7〉 참조).

두 조사에서 모두 대부분의 출산은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7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출산비율이 2009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가정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2017년 MICS에서 12.7%를 차지하였다. 가구소득(Wealth index)이 높은 가구의 대상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 비율이 더 높았다. 출산을 지원해준 인력은 의사 혹은 준의사가 전체 대상자의 89.5% 을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나 지역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간호사 혹은 조산사가 출산을 돕는 경우도 18.0%를 차지하였다.

덧붙여, 산전관리 방문횟수와 출산 장소, 출산 지원 인력에 대한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산전관리 횟수가 많을수록 의료기관을 통해 출산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출산 지원 인력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산전관리를 4회 이상 받은 응답자들이 1~3회 산전관리를 받은 응답자들에 비해 출산 시에 의사 혹은 준의사에 도움을 받아 출산한 비율이 더 높게 관찰되었다.

2017년 MICS에서 분만장소에 따른 출산 지원 인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분만을 할 경우 간호사 혹은 조산사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42.4%로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하는 경우(7.2%)보다 크게 높았으며, 가정분만의 경우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6.6%에 이른다.

〈표 III-7〉 출산 장소와 출산 지원 인력 분포

(단위: %)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09년 MICS			2017년 MICS							
		출산 장소		출산 지원 인력	출산 장소			출산 지원 인력				
		의료기관	의사/ 준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관	가정	합계	의사/ 준의사	간호사/ 조산사	친척/ 지인	합계	
전체		94.7	63.4	36.6	92.2	7.8	100.0	89.5	36.6	10.0	0.5	100.0
지역	도시	99.8	70.4	29.6	95.4	4.6	100.0	95.3	4.7	0.0	0.0	100.0
	농어촌	86.9	52.7	47.3	87.3	12.7	100.0	80.8	18.0	1.3	0.0	100.0
모학력	고등학교 미만	94.3	62.6	37.4	92.1	7.9	100.0	89.1	10.3	0.6	0.0	100.0
	고등학교 이상	96.9	67.6	32.4	92.6	7.4	100.0	91.3	8.7	0.0	0.0	100.0
임부 나이	20세 미만	(*)	(*)	(*)	-	-	100.0	-	-	-	-	100.0
	20~34	94.8	63.5	36.5	92.1	7.9	100.0	89.3	10.3	0.4	0.0	100.0
	35~49	95.5	64.5	35.5	(92.8)	(7.2)	100.0	(94.7)	(2.6)	(2.6)	(0.0)	100.0
가구소득 (Wealth index)	20% 하위	-	-	-	82.7	17.3	100.0	82.9	16.0	1.1	0.0	100.0
	40% 중위	-	-	-	91.3	8.7	100.0	85.2	14.0	0.8	0.0	100.0
	40% 상위	-	-	-	97.6	2.4	100.0	96.9	3.1	0.0	0.0	100.0
산전관리 방문횟수	전혀 없음	-	-	-	(*)	(*)	100.0	(*)	(*)	(*)	(*)	100.0
	1~3회 방문	84.2	-	-	67.5	32.5	100.0	78.9	15.2	5.9	0.0	100.0
	4회 이상 방문	95.4	-	-	93.6	6.4	100.0	90.0	9.9	0.1	0.0	100.0
분만 장소	8회 이상 방문	-	-	-	91.5	8.5	100.0	87.9	12.1	0.0	0.0	100.0
	가정	-	43.8	56.2	-	-	-	51.0	42.4	6.6	0.0	100.0
	의료기관	-	64.5	35.5	-	-	-	92.8	7.2	0.0	0.0	100.0

주: () 안의 숫자는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49명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로 표기된 부분은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명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p. 67, p. 68;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p. 55~57.

다음은 출산 이후에 산모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산후 건강검진 수급과 관련하여 수급 비율과 검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다(〈표 III-8〉 참조). 의료기관 혹은 가정을 통해 분만한 대부분 산모는 출산 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 산모의 학력, 나이, 부유 지수에 따라 차별화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기에 전체적으로 산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조사가 진행된 2017년 전후의 시기에 일반적인 실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출산 시 분만 장소(가정 혹은 의료기관)에 따라 산후 건강검진 수급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에서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산후 건강검진 수급률이 낮게 관찰되었다. 산후 산모 건강검진 서비스의 제공자는 도시의 경우, 의사 혹은 준의사가 92.2%를 차지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간호사 혹은 조산사가 16.0%를 차지하였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활동제약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를 통해 북한사회에서 가정 내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의료종사자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는 인력수급과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이 다소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표 III-8〉 출산 후 산모 건강검진 수급 여부와 검진서비스 제공자 분포

(단위: %, 명)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17년 MICS				
		의료기관 (또는) 가정 내 출산 후 산모 건강검진 수급 여부	출산 후 산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자			
			출산 후 산모 건강검진 수급률	의사/준의사	간호사/조산사	합계
전체		98.2	88.4	11.6	100.0	349
지역	도시	98.2	92.2	7.8	100.0	187
	농어촌	98.1	84.0	16.0	100.0	161
모학력	고등학교 미만	97.9	88.1	11.9	100.0	281
	고등학교 이상	99.3	89.8	10.2	100.0	68
임부나이	20세 미만	-	-	-	100.0	-
	20~34	98.4	88.2	11.8	100.0	333
	35~49	(92.8)	(*)	(*)	100.0	16
가구소득	20% 하위	98.6	85.4	14.6	100.0	88
	40% 중위	97.3	84.0	16.0	100.0	138
	40% 상위	98.8	95.5	4.5	100.0	123
분만 장소	가정	88.8	(76.6)	(23.4)	100.0	45
	의료기관	99.0	90.2	9.8	100.0	303
분만 방법	자연분만	98.1	88.3	11.7	100.0	337
	제왕절개 (C-section)	98.5	(*)	(*)	100.0	12
신생아 성별	남아	98.0	88.2	11.8	100.0	176
	여아	98.4	88.6	11.4	100.0	173

주: () 안의 숫자는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49명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로 표기된 부분은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명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사대상자 수 : 지난 2년간 출산 한 여성 중 일주일 이내 산후 건강검진 수급자 수

자료: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p. 66~67.

출생 직후 신생아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이용과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현황도 살펴보았다(〈표 III-9〉 참조). 전체 신생아 건강검진 수급률은 98.2%로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과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부유지수), 그리고 신생아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만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 분만의 경우 신생아 건강검진 수급률이 88.9%로 의료기관 수급률(99.0%)에 비해 낮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87.2%가 의사 혹은 준의사로 부터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2.8%는 간호사 혹은 조산사에 의해 건강검진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혹은 준의사로부터 신생아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농어촌(81.0%)에 비해 도시(92.4%)에서 더 높게 관찰되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분만의 경우, 의사로부터 신생아 검진을 받는 빈도가 높았으며, 부유지수가 높을수록 의사 검진률이 높은 것은 분만 장소와 소득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III-9〉 신생아 건강검진 수급과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자 분포

(단위: %, 명)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17년 MICS							
		신생아 건강검진 수급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자			
		출생 직후 건강검진 수급률	신생아 건강검진 수급률	합계	조사 대상자 수*	의사/준의사	간호사/조산사	합계	조사 대상자 수**
전체		98.2	98.6	100.0	931	87.2	12.8	100.0	371
지역	도시	98.8	98.9	100.0	559	92.4	7.6	100.0	201
	농어촌	97.4	98.1	100.0	372	81.0	19.0	100.0	170
모학력	고등학교 미만	97.9	98.3	100.0	752	86.4	13.6	100.0	301
	고등학교 이상	99.7	99.7	100.0	179	90.8	9.2	100.0	70
임부 나이	20세 미만	-	-	100.0	-	-	-	100.0	-
	20~34	98.5	98.8	100.0	893	86.8	13.2	100.0	353
	35~49	(92.8)	(92.8)	100.0	38	(*)	(*)	100.0	18
가구소득	20% 하위	98.4	98.9	100.0	181	83.4	16.6	100.0	89
	40% 중위	97.0	97.6	100.0	373	82.6	17.4	100.0	157
	40% 상위	99.4	99.4	100.0	376	95.6	4.4	100.0	126
분만장소	가정	88.9	93.7	100.0	73	(64.4)	(35.6)	100.0	48
	의료기관	99.0	99.0	100.0	858	90.6	9.4	100.0	324
신생아 성별	남아	98.0	98.4	100.0	481	87.4	12.6	100.0	190
	여아	98.5	98.8	100.0	450	87.0	13.0	100.0	182

주: () 안의 숫자는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49명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로 표기된 부분은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명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조사대상자 수 : 지난 2년간 출산 한 여성의 수, **조사대상자 수 : 지난 2년간 생후 1주일 이내 신생아 출생 후 건강검진 수급 대상자
 자료: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p. 62~63, p. 68.

(2) 피임과 가족계획

북한 사회의 가족계획에 대한 수요지표는 2014년 SDHS와 2017년 MICS를 비교하였다.

자녀 수와 자녀 간격에 대한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2014년과 2017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비교해 보았다. 자식(자녀) 수 간격을 위한 충족된 가족계획에 대해 2014년 조사결과는 74.3%가 수요의 필요성을 제시한 반면, 2017년 조사에서는 5.2%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식(자녀) 수 제한을 위한 충족된 가족계획에 대해 2014년 조사결과는 2.2%인 반면, 2017년에는 65.1%로 최근 들어 자식(자녀) 수에 대한 가족계획의 수요가 급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II-10〉 참조).

피임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2014년, 2017년 관련 조사 자료를 취합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III-11〉 참조). 현대적 방법을 활용한 피임은 대부분 여성이 자궁 내 피임기구(Intrauterine device, IUD)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이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통적 피임방법으로는 주기조절법과 질외사정의 방법이 활용되고는 있으나 전통적 피임방법을 활용하는 대상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엔 인구 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에서 발표한 ‘성과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에 대한 국제비교 지표에서도 2021년 기준 북한의 15~49세 사이 기혼 여성의 피임율은 현대적인 방법과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비율 74.0%, 현대적인 피임방법 활용율 71.0%로¹⁹⁴⁾ 2017년 MICS의 각각 70.3%와 69.0%에서 다소 증가하

194) *Ibid.*, p. 132.

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구피임법의 경우, 남성에 의한 영구피임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반면, 여성의 영구 피임법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으로 남성에 의한 현대적 피임도구인 콘돔의 활용은 최근까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북한 사회에서 콘돔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이 대중적이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III-10〉 가족계획 충족 또는 미충족한 15세~49세 기혼여성 분포 및 가족계획에 대한 수요

(단위: %, 명)

가족계획 조사항목	2014년 SDHS							2017년 MICS						
	전체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전체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여성 수(응답자 수)	9,626	412	1,508	1,719	1,739	2,234	2,014	6,009	256	1,012	1,105	1,007	1,302	1,327
자식 수 간격에 대해 충족되지 못한 가족계획	2.0	14.7	6.2	1.4	0.3	0.2	0.4	3.0	9.2	11.5	3.4	0.2	0.0	0.1
자식 수 제한에 대해 충족되지 못한 가족계획	5.0	6.7	6.1	4.4	2.9	3.8	7.6	3.6	1.5	3.0	6.1	4.1	3.0	2.4
충족되지 못한 전체수요	7.0	21.4	12.3	5.8	3.2	4.0	8.0	6.6	10.7	14.5	9.5	4.3	3.0	2.5
자식 수 간격을 위한 충족된 가족계획	74.3	0.0	45.8	69.9	85.6	89.8	84.6	5.2	8.3	15.6	9.5	2.0	0.5	0.1
자식 수 제한을 위한 충족된 가족계획	2.2	0.0	0.3	1.2	1.2	3.5	4.4	65.1	10.6	29.8	61.8	85.1	86.1	69.5
충족된 전체수요	76.5	0.0	46.1	71.1	86.8	93.3	89.0	70.3	18.9	45.4	71.3	87.1	86.6	69.6
자식 수 간격을 위한 전체수요	76.3	14.7	52.0	71.3	85.9	90.0	85.0	8.2	17.5	27.1	12.9	2.2	0.5	0.2
자식 수 제한을 위한 전체수요	7.2	6.7	6.4	5.6	4.1	7.6	11.9	68.7	12.1	32.8	67.8	89.2	89.1	71.9
전체수요	83.5	21.4	58.5	76.9	90.0	97.3	96.9	76.9	29.6	59.9	80.7	91.4	89.6	72.1
충족된 수요	91.6	0.0	78.9	92.5	96.4	95.8	91.8	70.3	18.9	45.4	71.2	87.1	86.6	69.6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72;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49.

〈표 III-11〉 피임방법에 따른 15~49세 기혼여성 분포 변화

(단위: %, 명)

현재 이용하는 피임방법	2010년 생식보건조사 ¹⁾			2014년 SDHS			2017년 MICS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도시	농촌	계
현대적 방법	68.1	61.0	65.3	77.1	75.7	76.5	68.3	69.9	69.0
여성 영구피임	3.1	3.2	3.2	2.5	1.8	2.2	1.5	1.0	1.3
남성 영구피임	0.0	0.0	0.0	0.0	0.0	0.0	0.0	0.0	0
자궁내피임기구	64.3	57.2	61.5	74.2	73.7	74.0	63.9	67.7	65.4
피임주사	0.1	0.3	0.2	0.1*	0.0	0.0	0.3	0.1	0.2
피임 알약	0.2	0.2	0.2	0.0	0.2*	0.1*	0.4	0.1	0.3
콘돔	0.2	0.1	0.2	0.3*	0.1*	0.2*	0.4	0.1	0.2
전통적 방법	6.3	5.6	6.0	1.4	2.0	1.6	1.3	1.4	1.3
주기조절법	4.5	4.6	4.5	1.2	1.6	1.4	1.3	1.3	1.3
질외사정	1.7	1.1	1.5	0.1*	0.4*	0.2*	0.1	0.1	0.1
기타방법	-	-	-	0.0	0.0	0.0	0.0	0.0	0
(전체)방법**	73.6	66.1	70.6	78.4	77.8	78.2	69.7	71.3	70.3
응답자 수	-	-	-	5,540	4,086	9,626	3,661	2,348	6,009

주: * 응답자 수가 25명 미만

** 표에 제시된 피임방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의미함.

1) 2010년 생식보건조사 결과는 2014년 SDHS 보고서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참고함.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64;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46.

(3) 생식기 관련 질환: 암

암은 심혈관계질환과 더불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자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¹⁹⁵⁾ 암 발생과 암 사망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질병부담은 암 유병률과 분포에 대해 사회 경제적 발전도 하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¹⁹⁶⁾ 2020년 세계 암통계 (Global Cancer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여성에 있어 유방암(전체 암질환의 11.%)이 가장 흔히 진단되는 암이라면, 여성의 생식기관 관련 암인 자궁경부암(Cervix uteri, 6.5%)와 자궁체부암(Corpus uteri, 4.5%), 난소암(Ovary, 3.4%)도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¹⁹⁷⁾

북한 여성의 생식기 관련 암에 대한 유병률이나 발생률에 대한 정보 확보의 한계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내원자를 대상으로 주진단에 따른 입원과 외래의 빈도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탈북 여성의 산부인과 의료이용의 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II-12> 참조).

앞서 제시한 생식기 관련 진단 암 가운데, 북한이탈여성의 산부인과 의료이용에 대한 빈도는 자궁경부암 및 전암병변으로 인한 외래 의료이용 비율 12.3%, 입원 의료이용 비율 11.7%를 차지하였으며 난

195) Freddie Bray et al., "The ever-increasing importance of cancer as a leading cause of premature death worldwide," *Cancer*, vol. 127, no. 16 (2021), pp. 3029~3030.

196) Abdel R Omran, "The epidemiologic transition. A theory of the epidemiology of population change," *Milbank Mem Fund Quarterly*, vol. 49, no. 4 (1971), pp. 509~538; Omer Gersten and John Wilmoth, "The Epidemiological Transition and Cancer Transition Theories," *Demographic Research*, vol. 7, no. 5 (2002), pp. 271~306.

197) Hyuna Sung et al., "Global Cancer Statistics 2020: GLOBOCAN Estimates of Incidence and Mortality Worldwide for 36 Cancers in 185 Countries,"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vol. 71, no. 3 (2021), pp. 209~249.

소암의 경우 전체 입원 의료이용의 3.1%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북한 사회의 여성 생식기 암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으나, 자궁경부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질환이 북한에서도 낮지 않은 유병 혹은 발생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III-12〉 북한이탈주민 내원객 산부인과 주진단명 기준의 외래 및 입원 규모

(단위: %, 명)

주진단명	외래		입원	
	연인원수	비율	실인원 수	비율
전체	5,833	100.0	446	100.0
임신	1,332	22.8	187	41.9
자궁경부암 및 전암병변	719	12.3	52	11.7
일반검진	582	10.0	-	-
질/경부염	531	9.1	-	-
골반염	279	4.8	34	7.6
근종	278	4.8	20	4.5
난소종양	245	4.2	21	4.7
난소낭종	-	-	15	3.4
난소암	-	-	14	3.1
자궁출혈(abnormal uterine bleeding, DUB)	220	3.8	-	-
폐경	185	3.2	-	-
피임(intrauterine device, IUD)	183	3.1	11	2.5
자궁외임신	-	-	9	2.0
이외	1,278	21.9	83	18.6

자료: 주성홍, “북한이탈여성의 보건문제-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경험한 산부인과적 임상 특징-,”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2018.5.30.

다. 양육

(1) 수유와 이유식

영아에 대한 수유와 이유식은 적절한 영양공급 뿐만 아니라 수유

방법에 따라 모성과의 애착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출생아를 대상으로 월령별 수유방법과 이유식 섭취에 대한 분포를 2009년 MICS와 2017년 MICS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표 III-13> 참조). 구체적으로 2017년 MICS에서 생후 6개월 이전 시점의 영아들의 경우, 모유 수유만 제공되는 경우는 전체 71.4%였으며, 대체로 모유 수유만 제공되는 비율도 77.9%로 북한 사회에서 영아의 모유 수유 비율이 전체 영아의 3/4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완전모유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남아(62.8%)보다는 여아(80.0%)가 생후 6개월 이내의 모유의존도가 더 높았다. 영아의 월령을 확대하여 생후 1년 시점과 2년 시점에 모유 수유 지속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생후 1년 시점까지 모유수유 지속 비율(전체, 68.8%)과 생후 2년 시점까지 모유수유 지속 비율(전체, 27.2%)로 영아의 돌(생후 1년 시점)을 기점으로 모유 수유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II-1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월령별 모유수유 진행과 계속 수유 현황

(단위: %, 명)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모유 수유 (Breastfeeding)							
		영아: 생후 6개월 시점 (Children age 0-5 months)				영아: 생후 1년 시점 (Children age 12-15 months)		영아: 생후 2년 시점 (Children age 20-23 months)	
		(완전) 모유 수유 진행 비율		(대체로) 모유 수유 진행 비율		모유 수유 계속 비율		모유 수유 계속 비율	
		2009년 MICS	2017년 MICS	2009년 MICS	2017년 MICS	2009년 MICS	2017년 MICS	2009년 MICS	2017년 MICS
전체		88.6	71.4	91.8	77.9	86.3	68.8	36.0	27.2
성별	남아	90.5	62.8	92.6	72.2	87.8	70.3	36.1	24.4
	여아	86.9	80.0	91.1	83.6	84.9	67.0	35.9	29.5
지역	도시	84.1	70.8	89.0	75.5	78.8	66.6	25.5	26.1
	농어촌	95.3	72.6	96.0	82.4	96.0	72.0	53.5	29.2
모학력	고등학교 미만	88.2	70.5	91.7	77.5	87.5	67.8	37.6	27.1
	고등학교 이상	92.7	(74.1)	92.7	(79.2)	81.8	(73.9)	29.6	(*)
가구소득	20% 하위	-	(68.0)	-	(78.9)	-	(71.3)	-	(19.6)
	40% 중위	-	76.8	-	81.1	-	(75.5)	-	25.4
	40% 상위	-	69.2	-	75.2	-	62.4	-	25.4
전체 영아 수		164	170	164	170	-	-	-	-
		-	-	-	-	162	145	-	-
		-	-	-	-	-	-	152	150

주: () 안의 숫자는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49명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로 표기된 부분은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명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p. 35;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93.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 생후 6개월 이전 시기에 모유 수유 이외의 다른 수유 방법인 젖병 수유 실태도 살펴 보았다(〈표 III-14〉 참조). 생후 2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MICS와 2017년 MICS에서 도시 지역에서 젖병 수유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부유 지수가 높을수록 젖병 수유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2017년 MICS에서 영아의 월령에 따른 젖병수유 비율은 생후 6~11개월 시점에 11.6%가 젖병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생후 6개월 미만(8.3%)과 12개월 이상(6.9%)의 영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젖병 수유(분유수유) 현황

(단위: %, 명)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젖병 수유 (Bottle feeding)			
		영아: 생후 0~23개월 시점			
		2009년 MICS		2017년 MICS	
		젖병 수유 비율	영아 수	젖병 수유 비율	영아 수
전체		3.5	851	8.7	911
성별	남아	3.9	436	8.6	466
	여아	3.1	416	8.7	446
지역	도시	4.2	515	9.3	549
	농어촌	2.4	336	7.7	362
모학력	고등학교 미만	3.3	708	8.3	738
	고등학교 이상	4.7	143	10.1	173
가구소득	20% 하위	-	-	5.9	177
	40% 중위	-	-	7.7	359
	40% 상위	-	-	10.9	374
영아월령 (months)	0-5 개월	4.9	164	8.3	170
	6-11 개월	4.2	238	11.6	285
	12-23 개월	2.6	450	6.9	456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p. 40;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98.

생후 영아를 대상으로 2009년 MICS와 2017년 MICS를 활용하여 현재 모유 수유 여부에 따른 이유식 섭취 비율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2009년 MICS에 비해 2017년 MICS에서 생후 6~8개월 영아들이 현재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유식을 섭취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2.5배 증가하여 북한 영유아의 이유식 현황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두 조사에 응답대상자인 6~8개월 영아에서 대부분 현재 모유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로 통계적 비교가 가능한 응답 규모 획득이 불가하여 비교에 제약이 있다.

2017년 MICS에서 현재 모유수유 중인 영아들의 이유식 섭취 비율은 여아(71.9%) 보다는 남아(83.1%)에서 더 높게 관찰되었으며, 농어촌 (74.4%) 지역보다는 도시(80.9%)에서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II-15〉 참조).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 특성과 이유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식재료 수급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성 등이 내밀하게 작동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III-1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북한 영아의 이유식* 현황

(단위: %)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6~8개월 영아 중) 현재 모유 수유 진행 중		(6~8개월 영아 중) 현재 모유 수유 하지 않음		(6~8개월 영아 중) 전체	
		이유식 섭취 비율		이유식 섭취 비율		이유식 섭취 비율	
		2009년 MICS	2017년 MICS	2009년 MICS	2017년 MICS	2009년 MICS	2017년 MICS
전체		27.8	77.8	(*)	(*)	28.9	78.2
성별	남아	26.4	83.1	(*)	(*)	28.3	83.1
	여아	29.6	71.9	(*)	(*)	29.6	72.8
지역	도시	32.4	80.9	(*)	(*)	31.8	81.5
	농어촌	(15.9)	74.4	(*)	-	(21.6)	74.4

주: *이유식: 젖을 떼는 시기의 아기에게 먹이는 젖 이외의 음식으로 고형, 반 고형 혹은 부드러운 게 조리된 음식의 형태를 일컫음
 (*) 로 표기된 부분은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명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로 표기된 부분은 조사대상자 수가 0명이거나 분모가 0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p. 38;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96.

(2) 기저귀

영아 대상의 양육에서 필요한 물품중의 하나가 기저귀이다. AP 통신의 평양산부인과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신세대 엄마들에게 스마트폰하듯 포장 된 일회용 기저귀를 건네주는 장면이 등장한다.¹⁹⁸⁾ 한편, 북한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양육 실태에 대해 비교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 부모들은 아기에게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 부모들은 빨아서 사용해야 하는 천으로 만든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¹⁹⁹⁾ 관련해서 북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조사는 없다.

(3) 영유아 예방접종 실태²⁰⁰⁾

2017년 MICS 조사에서 북한의 신생아,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유아시기에 필수 예방접종은 7종 백신으로 구성(결핵,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수두)되어 있으며, 총 20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²⁰¹⁾ 이들 필수예방접종 중 북한의 영유아(생후 23개월 이하)는

198) “North Korea learns to embrace its inner consumer,” *AP News*, September 29, 2018, <<https://apnews.com/article/business-north-korea-international-news-asia-pacific-ap-top-news-55e9de87113f4c1c8ec4163496aa4dd8>> (Accessed July 8, 2021).

199) “Having a baby in North Korea,” *NK NEWS*, August 12, 2015, <<https://www.nknews.org/2015/08/159496/>> (Accessed July 29, 2021).

200) 해당 부분은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pp. 151~153을 참고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2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29개국

소아마비(폴리오), 홍역(MMR), B형 간염에 대한 접종이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MICS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외 결핵,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DTaP), 해모필루스 B형(HIB 뇌수막염 백신)은 접종률이 99.6%로 보고되었다.²⁰²⁾

MICS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아래 표에서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역별, 행정구역별, 가구소득에 따라 나누어 비교한 결과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유아(생후 24~35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전체 예방접종률이 양강도, 자강도 지역에서 90%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구소득에서도 소득분위 하위 20%가 상위 40%에 비해 전체 예방접종률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²⁰³⁾ 해당 지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영유아예방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접종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6〉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태

(단위: %)

구분	생후 12~23개월				생후 24~35개월	
	소아마비 (Polio)	홍역		B형 간염 (HepB, BCG)	홍역 (Measles)	전체 예방 접종
		Measles 1	Measles 2			
전체	98.9	99.7	77.3	99.6	98.6	97.3
지역						
도시	98.8	100.0	77.7	99.7	99.0	97.6
농촌	99.1	99.3	76.6	99.4	98.0	97.0

제1회 ‘예방접종 주간’ 공동선포, 2011.4.1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741326>> (검색일: 2021.7.29.).

202)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9, 재인용: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 153.

203) 조성은 외, 위의 책, p. 152.

구분	생후 12~23개월				생후 24~35개월	
	소아마비 (Polio)	홍역		B형 간염 (HepB, BCG)	홍역 (Measles)	전체 예방 접종
		Measles 1	Measles 2			
행정구역						
양강도	(97.8)	(100.0)	(82.0)	(100.0)	(95.7)	(89.2)
함경북도	(97.7)	(100.0)	(66.7)	(95.6)	(100.0)	(93.1)
함경남도	(97.7)	(100.0)	(75.4)	(100.0)	(97.8)	(95.6)
강원도	(100.0)	(100.0)	(70.2)	(100.0)	(97.9)	(93.2)
자강도	(95.9)	(100.0)	(87.4)	(100.0)	(93.5)	(89.0)
평안북도	(97.8)	(97.9)	(78.0)	(100.0)	(97.8)	(100.0)
평안남도	(100.0)	(100.0)	(88.8)	(100.0)	(100.0)	(100.0)
황해북도	(100.0)	(100.0)	(80.9)	(100.0)	(97.9)	(100.0)
황해남도	(100.0)	(100.0)	(78.2)	(100.0)	(100.0)	(100.0)
평양	(100.0)	(100.0)	(65.4)	(100.0)	(100.0)	(100.0)
가구소득						
하위20%	99.0	98.7	71.5	98.9	96.7	95.1
중간40%	98.0	100.0	81.7	100.0	100.0	97.0
상위40%	99.7	100.0	75.8	99.5	98.2	98.7

주: 소아마비는 3차 접종임(1, 2차 접종 비율은 99.7%임)

자료: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9, pp. 71~72, 재인용: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 153.

(4) 북한 가정 내 육아환경²⁰⁴⁾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 수준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어떠한 양육 환경에서 어떠한 양육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미래인구의 질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어린이의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일은 필요하나, 아쉽게도 관련된 공식, 비공식 자료 모두 찾아보기 어렵다. 2017년 MICS 조사에 실린 북한 어린이들의 동화책, 그림책, 장난감 등의

204) 해당 부분은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p. 160~161을 참고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실태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문헌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²⁰⁵⁾ 다른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7년 MICS 결과에 따르면, 북한 가정의 절반 정도(50.3%)가 동화책 3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10권 이상을 보유한 가정은 2.3%에 그쳤다. 동화책을 구비하지 못한 가정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에 비해 농촌이 동화책을 구비한 가정이 적었다. 지역별로는 평양이 3권 이상과 10권 이상 동화책을 구비한 정도가 각각 64.4%, 6.3%로 가장 많았고, 3권 이상 보유는 양강도가 35.2%로 가장 낮았고, 10권 이상 보유는 평안북도가 0.5%로 가장 낮았다. 모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화책 보유권수가 많았다.²⁰⁶⁾

장난감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89.8%)이었으나, 직접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응답도 41.9%로 적지 않았다. 도시(91.6%)가 농촌(87.2%)에 비해 장난감을 구입하는 비율이 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장난감을 구매하는 경우가 평양이 97.6%로 가장 많았고, 78.2%로 평안북도가 가장 낮았다. 모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낮을수록 집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표 III-17〉 참조).

요약하면, 평양과 같은 도시의 경우 농촌에 비해 장난감을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고, 농촌에서는 가정에서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대체해서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비율이 도시보다 더 컸다.²⁰⁷⁾ 도서와 장난감 관련 지표는 모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화책 보유 여부와 보유권수가 더 많았으며 장난감구입 비율도 더 높음을 확인하

205) 위의 책, pp. 160~161.

206) 위의 책, p. 160.

207) 위의 책, p. 160.

였다.

2009년도와 비교하면 동화책 3권이상의 비율은 79.1%에서 50.3%로 감소하였으며, 동화책 10권이상 비율은 1.5%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장난감을 구매한 비율도 2009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67.6%→89.8%), 집에서 만든 장난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1.1%→41.9%). 이는 북한 사회에서 소득격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표 III-17〉 참조).

〈표 III-17〉 북한 가정 내 동화책, 장난감 구비 실태

(단위: %, 명)

구분	도서		다양한 놀잇감들				영유아수
	동화책 3권 이상	동화책 10권 이상	집에서 만든 장난감	구매한 장난감	외부에 있는 생활용품	2개 이상 유형의 장난감	
2017년	50.3	2.3	41.9	89.8	39.6	59.4	2,275
2009년	79.1	1.5	31.1	67.6	50.0	47.3	2,172
지역							
도시	50.5	3.2	40.4	91.6	36.5	56.9	1,361
농어촌	43.1	1.0	44.6	87.2	44.1	63.1	914
행정구역							
양강도	35.2	3.1	43.5	86.9	39.6	57.5	71
함경북도	62.1	1.4	52.9	95.5	62.3	76.9	221
함경남도	47.5	1.8	41.3	89.3	43.7	60.2	298
강원도	50.8	0.9	40.9	93.2	29.3	55.8	148
자강도	63.6	3.0	46.3	85.4	32.8	56.3	131
평안북도	40.7	0.5	18.5	78.2	29.1	35.5	264
평안남도	47.9	1.8	47.6	90.1	35.0	67.3	386
황해북도	47.1	2.1	41.3	90.4	52.3	67.8	242
황해남도	40.6	2.9	58.8	89.1	53.1	74.2	237
평양	64.4	6.3	31.9	97.6	19.3	39.9	278

구분	도서		다양한 놀잇감들				영유아수
	동화책 3권 이상	동화책 10권 이상	집에서 만든 장난감	구매한 장난감	외부에 있는 생활용품	2개 이상 유형의 장난감	
모학력							
초등학교	-	-	-	-	-	-	1
중고등학교	49.1	2.0	43.3	89.0	40.2	60.1	1,854
대학교	55.3	4.0	35.8	93.2	36.6	56.4	420
가구소득							
20% 하위	43.3	0.8	46.5	87.0	45.7	63.6	448
40% 중위	48.2	1.7	42.7	88.9	43.3	62.4	912
40% 상위	55.7	3.7	38.8	92.2	32.8	54.3	914

자료: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104, 재인용: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 16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p. 72.

(5) 북한 탁아소·유치원 이용 실태²⁰⁸⁾

가정내 육아환경과 더불어, 교육·보육기관의 이용 여부도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양육경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일찍이 제도화했기 때문에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관련된 최신 문헌자료가 2017년 MICS 조사이므로 여기에서도 기존 연구에서²⁰⁹⁾ 다룬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 <표 III-18>는 북한의 3, 4, 5세 영유아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현황으로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탁아소(72.7%)와 유치원(92.6%)

208) 해당 부분은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p. 165~169을 참고 및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209)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p. 165~169.

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기관의 이용률 중 특히 유치원 이용률이 매우 높는데, 이는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이 의무교육단계란 점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²¹⁰⁾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에 따른 탁아소, 유치원의 이용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소학교나 유치원 어디에도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도 2.9%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농촌, 모학력이 중고등학교, 가구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치가 높았다.²¹¹⁾

전반적으로 교육·보육기관의 이용율은 높지만, 2009년 MICS 결과와 비교하면, 유치원 높은반을 다니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9년 MICS 조사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 낮은반의 이용 실태는 없었다. 의무교육단계인 유치원 높은반의 취학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지역,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8〉 북한 영유아의 탁아소·유치원 이용 실태

(단위: %, 명)

구분	3~5세 유아		6세(소학교 취학 직전) 유아			
	탁아소, 유치원	생후 36~59개월 유아수	유치원	소학교	아무데도 안다님	6세 유아수
2017년	72.7	913	92.6	4.5	2.9	450
2009년	-	-	98.9	-	-	551
지역						
도시	72.7	467	94.6	3.3	2.1	283
농어촌	72.8	446	90.5	5.8	3.7	166
행정구역						
양강도	64.9	28	(93.7)	(2.1)	(4.2)	15
함경북도	53.3	90	(95.9)	(4.1)	(0.0)	48
함경남도	67.5	119	71.5	20.8	7.6	70

210) 위의 책, p. 166.

211) 위의 책, p. 167.

구분	3~5세 유아		6세(소학교 취학 직전) 유아			
	탁아소, 유치원	생후 36~59 개월 유아수	유치원	소학교	아무데도 안다님	6세 유아수
강원도	68.7	60	(92.8)	(0.0)	(7.2)	27
자강도	88.1	52	(92.8)	(4.8)	(2.4)	23
평안북도	77.8	106	(88.7)	(2.2)	(9.0)	52
평안남도	77.8	156	(100.0)	(0.0)	(0.0)	81
황해북도	70.1	97	(100.0)	(0.0)	(0.0)	38
황해남도	76.9	94	(100.0)	(0.0)	(0.0)	42
평양	77.7	112	(97.6)	(2.4)	(0.0)	55
모학력						
고등학교 이하	71.8	748	91.7	4.9	3.5	376
대학 이상	76.8	164	97.1	2.9	0.0	74
가구소득						
20% 하위	75.1	182	91.3	3.9	4.8	95
40% 중위	70.4	380	93.1	4.4	2.5	168
40% 상위	74.0	351	92.7	4.9	2.3	188

주: () 사례수가 25~49개인 미만인 경우

자료: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110, p. 111, 재인용: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 168;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p. 76.

라. 위생

물 부족과 수질 악화, 불충분한 위생시설은 전 세계 빈곤 가정의 식량안보와 생계수단 및 교육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10년 동안 식수와 위생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개선된 식수 공급원에 접근하고 있다고 UN에서 밝힌 바 있다.²¹²⁾ 앞서 살

212)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 Ensure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water-and-sanitation/>>

펴보았던 여성의 생리와 관련해서도 위생교육이나 관리는 궁극적으로 상하수도 및 화장실 시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NOCHA의 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²¹³⁾

북한 사회의 위생과 관련된 지표를 파악함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에 대한 공급과 접근성, 그리고 배설물 처리에 대한 두 가지 현황을 통해 그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식수

안전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은 2017년 MICS 결과를 통해 제시한다(〈표 III-19〉 참조). 안전한 식수의 경우 내열성 대장균(Thermotolerant Coliform, 이하 TTC)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2017년 조사 기준으로 개선된 식수원의 경우 TTC가 없는 식수원이 전체의 79.4%로 개선되지 않은 식수원(35.5%)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수원에 TTC가 없는 경우는 농어촌과 비교하면 도시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선된 식수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다. 개선된 식수원의 공급은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형태가 84.9%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구 내 TTC가 없는 개선된 식수원 보급 비율은 도시지역, 높은 부유지수, 파이프를 통한 식수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Accessed June 23, 2021).

213) UNOCHA, "2018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8, p. 22, <https://dprkorea.un.org/sites/default/files/2019-07/unct_kp_NP2018.pdf> (Accessed November 8, 2021).

〈표 III-19〉 안전한 식수원 접근성

(단위: %, 명)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17년 MICS							
		주요 식수원						필요시 가구 내 TTC가 없는 개선된 식수원 보유 가구원 비율	수질 정보 보유 가구원 수
		개선된 식수원			개선되지 않은 식수원				
		식수원에 TTC없음	필요시 충분한 식수제공	가옥 내 식수이용 가능	식수원에 TTC없음	필요시 충분한 식수제공	가옥 내 식수이용 가능		
전체		79.4	98.5	83.5	35.5	98.4	39.1	60.9	5,150
지역	도시	91.0	98.3	82.2	62.6	100	27.7	71.3	3,143
	농어촌	59.0	98.9	85.8	27.1	97.9	42.6	44.5	2,007
모학력	미취학 혹은 유치원 이하 (Nursery or kindergarten or none)	(*)	(*)	(*)	-	-	-	(*)	10
	초등학교 (Primary)	(*)	(*)	(*)	(*)	(*)	(*)	(*)	21
	중학교 (Lower secondary)	(*)	(*)	(*)	-			(*)	11
	고등학교 (Upper secondary)	79.0	99.2	85.4	30.6	100	37.5	61.6	3,235
	고등학교 이상 (Higher)	80.2	97.5	80.4	50.2	91.7	51.2	60.0	1,873
가구소득	20% 하위	59.7	97.8	75.8	32.2	96.9	46.5	38.5	1,017
	40% 중위	76.2	98.8	86.3	35.4	100	32.7	58.5	2,009
	40% 상위	89.9	98.6	84.0	100.0	100	0	73.8	2,124
개선된 식수원 형태	파이프 수 (Piped water)	84.9	97.8	98.2	na	na	na	81.8	3,058
	튜브 형태 우물 / 보어 홀 (Tube-well/bore-hole)	62.3	99.6	94.6	na	na	na	59.4	850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17년 MICS							
		주요 식수원						필요시 가구 내 TTC가 없는 개선된 식수원 보유 가구원 비율	수질 정보 보유 가구원 수
		개선된 식수원			개선되지 않은 식수원				
		식수원에 TTC없음	필요시 충분한 식수제공	가옥 내 식수이용 가능	식수원에 TTC없음	필요시 충분한 식수제공	가옥 내 식수이용 가능		
우물 또는 샘(Protected well or spring)	66,9	100,0	37,8	na	na	na	23,4	529	
보호되지 않은 우물 또는 샘(Unprotected well or spring)	-	-	-	na	na	na	-	-	
빗물 수집 (Rainwater collection)	-	-	-	na	na	na	-	-	
물 키오스크 (Water kiosk)	91	100,0	0,0	na	na	na	0,0	363	
탱커 트럭 / 탱크 카트 / 드럼 (Tanker truck/ Cart with tank/ drum)	(*)	(*)	(*)	na	na	na	(*)	8	
생수 (Bottled water)	(*)	(*)	(*)	na	na	na	(*)	1	
보호되지 않은 우물 또는 샘(Unprotected well or spring)	na	na	na	36,0	98,3	39,7	0	337	
지표수 / 기타 (Surface water/ other)	na	na	na	(*)	(*)	(*)	(*)	5	

주: (*) 표기된 부분은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명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 로 표기된 부분은 조사대상자 수가 0명이거나 분모가 0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149.

(2) 배설물 처리를 위한 위생시설

2009년 MICS와 2017년 MICS 결과를 활용해 북한 사회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았다(〈표 III-20〉 참조). 위생시설의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2009년 보다 2017년이 조금 더 수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MICS 결과에 의하면,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자 혹은 접근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은 위생시설 사용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81.5%지만,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 사용자의 경우 단독 시설 이용은 14.0%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농어촌 지역(71.5%)에 비해 도시지역(88.0%)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단독 사용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위생시설의 위치는 개선된 위생시설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 내(98.9%)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마당(30.4%)에 위치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거주지와 마당 이외의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30.9%에 달했다.

〈표 III-20〉 배설물 처리를 위한 위생시설 접근성

(단위: %, 명)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09년 MICS		2017년 MICS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자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 사용자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자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 사용자			합계	가구원 수		
				단독 사용	공동 사용		단독 사용	공동 사용				공용 시설	
		단독 사용	5세대 미만		5세대 이상	5세대 미만		5세대 이상					
전체		78.4	13.7	81.5	0.9	0.3	1.3	14.0	0.2	0.4	1.4	100.0	32,455
지역	도시	84.5	7.1	88.0	1.4	0.5	1.8	5.8	0.2	0.6	1.8	100.0	19,779
	농어촌	69.3	23.5	71.5	0.1	0.1	0.6	26.8	0.1	0.1	0.7	100.0	12,675
모학력	미취학 혹은 유치원 이하	-	-	(79.9)	(0.0)	(0.0)	(0.0)	(20.1)	(0.0)	(0.0)	(0.0)	100.0	30
	초등학교	-	-	73.0	0.0	0.0	0.0	24.4	0.0	0.0	2.6	100.0	74
	중학교	-	-	71.5	0.0	0.0	0.0	25.3	0.0	0.0	3.1	100.0	40
	고등학교	-	-	79.8	1.0	0.3	1.4	15.6	0.2	0.4	1.4	100.0	20,407
	고등학교 이상	-	-	84.5	0.7	0.4	1.2	11.1	0.2	0.4	1.4	100.0	11,904
가구소득	20% 하위	-	-	65.5	0.2	0.0	0.9	32.0	0.4	0.0	1.1	100.0	6,491
	40% 중위	-	-	73.1	1.5	0.5	2.6	18.4	0.3	0.9	2.6	100.0	12,981

인구학적 변수	인구학적 특성	2009년 MICS		2017년 MICS									합계	가구원 수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자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 사용자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자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 사용자	단독 사용	공동 사용		공용 시설	단독 사용	공동 사용		공용 시설			
					5세대 미만	5세대 이상			5세대 미만	5세대 이상				
	40% 상위	-	-	98.0	0.6	0.3	0.3	0.5	0.0	0.0	0.3	100.0	12,983	
위생시설 위치	거주지 내 (In dwelling)	-	-	98.9	0.1	0.0	0.1	0.8	0.0	0.0	0.0	100.0	16,995	
	마당 (In plot/yard)	-	-	67.2	1.1	0.0	0.3	30.4	0.2	0.2	0.4	100.0	14,230	
	이외 다른 곳 (Elsewhere)	-	-	7.8	8.4	7.6	30.3	4.9	2.7	7.3	30.9	100.0	1,230	

주: () 안의 숫자는 가중치 적용 없이 조사대상자 수가 25~49명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PRK and 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p. 59;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152.

3. 소결

이 장에서는 성과 재생산 관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들어선 2012년 이후의 북한에서의 모성과 양육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찰하였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에 최근에 제출한 보고서들—2014년 SDHS, 2016년 북한이 UN CEDAW에 제출한 통합보고서(2, 3, 4차), 2009년 MICS, 2017년 MICS, 2021년 VNR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모성과 양육 관련한 최근 정책과 현황들을 알 수 있어서 이들 자료들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북한은 2021년 VNR 보고서에서 북한식 SDGs(NDGs) 이행 동향을 보고하였다. 2015~2020년 동안 67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 인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설립 또는 개설하였다. 여성과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자연재해, 농자재 부족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식량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육아정책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도 여성노동력 확보를 위해서이다.

2012년 이후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감소했고, 모성 사망비, 영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보건 및 영양은 북한 공공보건분야의 과제이자 모성 및 아동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였다.²¹⁴⁾ 한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크다. 모성사망비의 경우, 출생아 십만명당 북한은 89명, 한국은 11명(2017년 기준)이며 5세 미만 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북한은 17.3명, 한국은 3.5

214)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2020,” p. 18.

명으로²¹⁵⁾, 북한의 모성과 양육 관련한 당면과제들이 여전히 많다.

성 건강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안전한 월경주기 관리는 여성과 사춘기 소녀들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복지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적절한 위생시설과 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요한 교육적, 사회경제적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 여성은 생리용품으로 가제천의 재활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²¹⁶⁾하며 가정에서 씻고 갈아입을 수 있는 개인적인 장소가 있고, 위생용품을 사용한 비율이 98.1%이었다(〈표 III-4〉 참조).

산전관리 제공자로 의사/준의사 비율이 2014년보다 2017년에 상승했다. 전문의료인력에 의한 산전관리 비율이 높아져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전관리 비율은 99.5%로 보고되어 임부 대부분은 산전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 참조). 산후관리 현황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모 건강검진 수급률과 신생아의 건강검진 수급률이 각각 98.2%로 같으며 제공자는 의사/준의사가 각각 88.4%, 87.2%로 보고되었다(〈표 III-8, 9〉 참조).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성사망비는 2017년 출생 10만 명당 89명으로 한국의 8배에 이른다(〈표 V-1〉 참조).

가족계획 지표인 피임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임을 한 비율이 2014년 조사에서는 78.2%인 반면, 2017년에는 70.3%로 다소 하락하였다(〈표 III-11〉 참조). 그러나 가족계획이 자녀 수 제한을 위해 충족된 정도는 2014년 조사에서 2.2%인 반면, 2017년에는 65.1%로 급등하였다(〈표 III-10〉 참조). 북한의 점점 낮아지는 합계

2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계청 보도자료]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0.12.28., p. 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365>〉 (검색일: 2021.6.23.).

216) 2017년 MICS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출산율은 적극적인 가족계획의 결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이후 2.0 이하로 떨어졌고, 2020년 기준으로 1.9명으로 보고되었다(〈표 III-5〉 참조). 한편, 탈북 여성들의 산부인과 진료 결과를 감안해서 볼 때, 북한 여성의 생식기 관련한 암 질환이 북한 사회에서도 낮지 않는 발생률, 유병률을 예상할 수 있었다.

북한은 거의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으며 분유수유는 8.7%에 그쳤다(〈표 III-14〉 참조).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시점은 약 70%가 돌(생후 1년 시점)을 기점으로 했다(〈표 III-13〉 참조). 사용하는 기저귀 관련 조사는 실시하지 않아서 실태 파악이 어렵지만, 몇몇 기사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빨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의 예방접종률로 97.3%로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 차이가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표 III-16〉 참조). 탁아소와 유치원 취원율도 약 74%로 대다수 영유아들이 기관을 다니고 있으며, 취학 1년 전 의무교육 단계인 유치원 높은반의 취원율은 약 93%로 보고되었다(〈표 III-18〉 참조). 탁아소와 유치원 이용도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크게 없었다.

자녀의 양육환경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환경을 살펴보았는데 약 90%가 장난감을 구입하며 동화책(3권 이상) 구비는 약 절반 정도의 가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7〉 참조). 양육환경은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도시, 평양, 고소득 가구에서 구비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2009년 MICS 조사와 비교해 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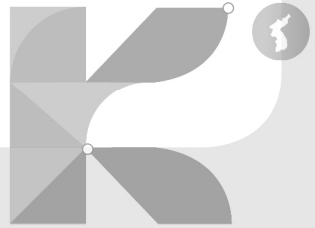
안전한 식수(TTC가 없는 상태)의 제공 여부에 대해 2017년 조사 기준으로 TTC가 없는 식수원이 전체의 79.4%로, 개선되지 않은 식수원(35.5%)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 안전한 식수원 접근성도 도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표 III-19〉 참조).

2017년 MICS 조사를 보면, 예방접종률, 산전·산후관리, 탁아소와 유치원 등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에 따른 모성과 양육의 현황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모성과 양육 관련한 의료시설, 애육원, 보육원 등이 확충되었고, 식량이나 깨끗한 식수 공급 등의 문제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지역, 가구소득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도시 거주,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모성과 양육 관련해서 뚜렷하게 좋아졌으나, 농촌 거주,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북한은 2020년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5.2%가 감소²¹⁷⁾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계속되는 대북 제재 등으로 식량을 비롯한 경제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소득에 따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7) 박영자 외,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방향,” pp. 4~5.

IV. 김정은 시기 모성 및 양육 실태



이 장에서는 본 면담조사에서 실시한 일곱 사례의 모성과 양육 실태에 대해 건강권 관점으로 세부영역별로 분석, 정리하였다.

1. 모성 실태

가. 생리용품

성 건강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안전한 월경주기 관리는 여성과 사춘기 소녀들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복지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적절한 위생시설과 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요한 교육적, 사회경제적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III장에서 주로 활용한 2017년 MICS 조사에서 생리용품 종류를 묻는 문항이 없어서 통계 수치는 확인할 수 없었고, 선행연구를 통해 가제천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단편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²¹⁸⁾

본 면담조사에서 북한에서 사용한 생리용품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총 일곱 사례 중 사례 3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일회용품이 비싸서 군보급 물품으로 받거나(사례 1) 장마당에서 돈을 벌었거나(사례 2) 재력이 있는 친정 또는 시댁과 결혼(사례 4, 5, 7)을 한 사례들은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했다.

고등학교 댄 가제천을 쓰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일회용품을 썼습니다.²¹⁹⁾ 옛날에는 가제를 시장에서 팔았

218) 안현민·심진아,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이런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요』, p. 57.

219) 이하 면담 내용 인용구에서 굵은 글씨는 필자가 강조의 의미로 표기한 것이다.

는데. 지금은 이거(생리대) 전용으로 생산이 되는 게 있어요. (중략) 컬러도 흰색은 빨기 어려우니까. 노란색이나 컬러풀하게 하고 끝에는 파란 띠로 두른 경우도 있고 (중략) 생리대 한통이 북한 돈으로 4천원, 5천원, 6천원 정도거든요. 쌀 1kg에 7천원 가격으로 따졌을 때, 쌀 가격은 아닌 거죠(사례 1).

내가 장사 조금씩 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서 썼어요. 대동강이라고 국내산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천을 썼죠. 가재도 비싸서 그냥 일반 천 쓰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런닝이나 입던 옷 오려서 쓰기도 했어요. 애 낳고도 계속 해서 그렇게 썼어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다 천 써요. **먹고살기 힘든데 일회용품 사서 그냥 버리는 거니까 아깝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못써요.** 그냥 돈 조금씩 쓰는 사람이나 이용하지 지금도 일반 사람들이 쓰기는 힘들어요(사례 2).

저희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서 (일회용품)을 사서 사용했어요. 2015~16년부터 일회용품으로 사용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있긴 했어요. (일회용품이) 비싸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사례 4).

결혼하고 나서부터(2003년) 지금 한국에 나온 생리대가 나왔거든요. 그걸 원래는 군인들한테만 내줬어요. 친정아버지가 군부대에 생활용품을 하셨거든요. 저도 **처녀 때부터 디자인하면서 번 돈에서 회사에다 내는 돈은 얼마 없거든요. 회사에다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리대를 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일회용품만 사용했어요. (중략) 일회용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해 본 적 없어요(사례 5).

생리용품은 **가제천을 썼고, 어디갈 때는 일회용을 썼어요.** (일회

용품) 제가 만들지는 않고 시장에서 사서 썼어요(사례 6).

사례 6은 비용부담으로 가제천과 병행해서 사용한 경우였다. 가제천 생리대는 구입하기도 하고(사례 6), 집에서 천이나 옷을 재단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다(사례 3).

처녀 때까지 가제천을 사용했는데 98년도, 99년도 그 때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가제천을 사용했어요. 한 **2004년도 그때부터는 일회용만을 썼어요.** (비용 부담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사서 하면 되는 거죠. 압록강이란 제품이 있는데 열 개에 북한돈 4500원 정도로 쌀 1kg 가격정도 돼요. 청진은 살기가 다른 데보다 좀 나아요. 시내니까. 청진은 70~80%가 일회용품을 쓰는 것 같아요(사례 7).

나는 생리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여기(한국) 와서 알았어요. 너무 편해서 여기 와서 애 기저귀도 일회용을 썼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사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알고 살고,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죠(사례 3).

가제천 생리대는 손빨래를 하고 재사용했다. 가제천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연구진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빨래하고 햇볕에 말리면 소독도 되어서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가제천 생리대) 손빨래합니다. 여름에는 따로 삶지 않아도. 공기 좋으니까, 해가 쨍쨍할 때, 햇볕에 두 시간 두면 자체 소독이 된다고 군대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서.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해가 많이 안 나오니까, 삶아서 빨거나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 빨고 한번 삶아내고 그렇게 합니다(사례 1).

제가 선생님할 때 바지에 묻은 적도 있어요 (중략) 빨때도 저녁에 애들 못 보게 빨고 너무 불편했죠. 빨 다음에는 빨랫줄에 널어서 말리곤 했죠. 수건이나 스카프같은 거 싹워두고 아니면 얇은 옷 같은 거 싹워두고(사례 2).

살아서 빨고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살았어요. 여기는(한국은) 우리는 못 봤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사는 줄 알았지(사례 3).

생리대는 빨아서 사용했죠. 압록강 가서. 여자들이 다 빨지 남자들은 그런 거 안하죠.(사례 6).

북한에서 일회용품 생리대는 장마당에서 판매는 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진시는 인민의 70~80%가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구술도 있어 지역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7).

나. 가족계획

(1) 임신 및 피임

본인이 원하는 자녀수와 몇 살 터울로 출산할지(본인이 주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계획했는지)를 배우자와 상의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면담조사의 탈북 여성들은 가족계획을 임신 전에 배우자와 상의하거나 결혼하고 원하는 시기에 출산하기 위해서 피임을 한 사례는 없었다. 피임 시기는 첫 아이 출산 후이며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피임을 정하며 피임 방법은 루프(고리)였다. 배우자가 피임한 사례도 없었다.

자녀계획,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거기서도(북한에서도) 보면 돈이 없는 집이 구들 농사짓는다고 그래요. 애를 많이 낳아요. 생겨도 없앨 돈이 없어서 못 없애고. 대책 세울 돈이 없는 거예요. 생기면 생긴 대로 계속 낳아요. 돈이 없으니까. 시집 쪽에서 아들만 낳은 집은, 손녀라도 딸 낳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시엄마가 아들 둘을 낳아서 딸을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오히려 잘됐다고 했어요. 딸 낳으니, **하나만 키우자고 (피임은) 고리 했어요. 남자가 (피임)하는 법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지. 여자가 다 하죠(사례 3).**

가족계획을 남편하고 상의한 적은 없어요. 피임은 첫 애 낳고 했어요. 임신 8개월일 때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신랑이랑 먼저 같이 살았어요.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동거를 많이 해요. **아이 낳고 살기 힘들어서 더 낳을 생각은 없었어요.** 피임은 군병원가서 했어요. 비용은 중국돈 15원 정도했어요(사례 6).

북한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계획을 세우거나 출산 시기를 계획적으로 정하거나 피임을 배우자도 하는 평등한 문화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보였다. 임신과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피임 시기, 피임 방법, 자녀 추가 출산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다.

면담참여자들을 통해 최근 젊은 여성들은 낳더라도 한명이고 낳지 않으려는(사례 1, 4) 경향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1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 인공중절 수술도 했으나, 아파 누워있으면서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출산하게 되었다고 했다.

원래는 결혼은 해도 안 낳으려고 했었어요. 안 낳으려고 해서 2년 정도 아기 안 낳고 있다가, 산부인과 다니면서, 결혼해서는 피임 안 하고 있다가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안 낳으려고 (인공중절)

수술을 하고, 산부인과로 계속 치료받아야 해서 다니는 과정에 첫 아기를 수술하면(낙태하면) 나중에 아기 낳는데 힘들 수 있다고 해주시고, (중략) 결혼해서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아픈데 집에서 혼자 링거 꽂고 있었는데, 그때 집에 옆집에서 연기가 잘못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걸(링거 바늘) 누군가가 빨리 빼줘야 내가 밖에 나갈 수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젊었으니까, 힘 있으니까 나가면 되는데, **나중에 나이들고 남편도 없고 그럴 때, 누가 내 옆에서 누가 이런 걸 해주지.**’ 그래서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사례 1).

면담참여자 중 가장 젊은 사례 4는 동거하면서 피임을 한 경우다. 젊은 여성세대 중심으로 본인이 출산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사례 4에 의하면, 북한에서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워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안하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다고 했다. 사례 5도 임신 8개월에 결혼식을 한 경우다.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출산)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임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뺏거든요. 근데 빼니까 애가 또 바로 생겼어요. (친정에서 동거를 걱정하지 않았나요?) 대부분 수두룩한데, 뭐 그런 걸로. 혼인신고는 안 해도 신경 안 써요(사례 4).

처음에는 애를 하나만 낳아야지 했는데, 첫 애(딸)가 한 7살쯤 되어서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부쩍 생기더라고요. 그 때 루프를 뽑았어요. 그때부터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루프는 의사 집에 가서 했어요. 북한에는 남자들이 피임하는 거 없어요(사례 5).

면담참여자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례 2는 자녀출산 계획은

없었다. 두 번의 중절수술의 이유는 가족계획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있었다.

당시는 몇 명 낳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기를 바라긴 바랬죠. 일 년 동안 안 생기더라구요. 생겼는데 유산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 낳고. 그땐 제가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한 명 더 생겼는데 그 아이는 지워버렸어요. 남편하고는 가족계획에 대해 상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피임은 언제 하셨나요?) 아이 낳고. 그런데 한 명 지우면서 부작용이 심해서 빼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임신 안됐어요(사례 2).

또한, 면담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 추가 출산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를 통해 북한에서 남아선호사상은 거의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

남아선호사상은 지금은 없어요. 딸을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아들 낳았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없어요. 북한은 지금 안 낳으려고 해요.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사례 7).

(2) 낙태

총 7명의 면담참여자 중 사례 7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낙태 경험이 있었다. 자연유산을 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인공중절로 낙태를 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이가 어려서 등으로 출산을 원치 않아서 낙태를 했는데, 병원보다는 의사 집에 가서 한 경우가 많았다.

낙태는 의사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겨울에는 병원에 난방시설이 안되어있어요. 집은 따뜻한데, 병원에는 난방을 자체 부담해야 하니까. 중국돈으로 당시 20~30원이었습니다. (낙태할 때 남편이 반대하지 않았나요?)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나이기도 어리고 해서 낳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낳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사례 1).

낙태는 의사 집에 찾아가서 했어요. 의사 경험했던. 그전에 의사 하다가 나이 들어서 안 하거나 일이 있어서 그만둔 사람들이죠.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고 생겼잖아요. 좀 창피해서...**(사례 4).

낙태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성들이었고, 이를 반대하는 배우자는 없었다. 사례 2는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고 했다.

첫 애 낳고 피임을 했는데도 둘째가 생겼어요. 그 땐 제가 되게 먹고살기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한 명 더 생겼는데 그 아이는 지워 버렸어요. **낙태도 언니(의사출신)한테 했어요. 집에서요.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았구요**(사례 2).

북한에서의 낙태는 합법이다.²²⁰⁾ 그러나 II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낙태시술과 피임을 금지하고, 피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3년의 구속 처벌까지 받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약 11.5%로 보고되었다. 특히, 30대의 낙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산 횟수가 1회인 경우가 8.1%, 2회 이상인 경우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²²¹⁾ 그러나 본 면담조사를 통해 실제 낙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20)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에 의하면, 김정일 시기에는 낙태를 금지했으나 김정은 시기에는 낙태를 허용했다고 함.

221)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 97.

다. 산전관리

임신 후, 본인과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을 간 사례는 없었다. 면담참여자들을 통해 임신부의 정기검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보였다. 이는 2017년 MICS 조사에서 산전관리율이 99.5%(〈표 III-6〉 참조)라는 결과와 완전히 상충된다.

출산 전 병원에 가서 태아 상태를 확인한 경우는 사례 1, 4, 5, 7이다. 산전에 초음파 사진과 검진과 태아 사진을 받아본 경우는 사례 7이 유일했다.

(벧속의) 애기가 커서 6개월 이후부터 병원에 갔었어요. 그전까지는 안 갔어요. (검사비용을 내나요?) 그건 없었어요. 따로 약물이 투입된 게 아니라서. 임신부터 시작해서 아기 예방주사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거라 비용은 안 냅습니다(사례 1).

임신하고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두 세번 정도 병원에 간 것 같아요. 군병원 가서 초음파로 진료를 봤어요. 비용은 없고 인사치레로 선물 준비해서 가면 돼요. 남자분들은 담배 같은 거 좋아해요. 여자분은 의류나 속내의 좋아하죠. (중략) 북한에서는 정기적으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보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사례 4).

임신하고 한 두 번 산원에 갔어요. 유산기가 있다고 해서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집으로 퇴사한 의사가 와서 배를 째 만져보고 애기 심장박동수부터 해서 다 알아요. 그런 비용 안내요. 지나가다가 그냥 스윽 한번 봐주고. 그 정도는. 여기서는(한국은) 다 돈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건 돈 안내요. 여기는 링거 하나 맞아도 돈이잖아요. 주사 바늘 하나 하는 것도 돈인데 북한은 그런 건 안 들어요

(사례 5).

출산하기까지 인민병원을 석 달에 한번 정도 갔어요. 제가 좀 이상하다 하면 아프다 하면 가고, 집 앞이거든요. 초음파로 아기 확인도 하고 숨소리도 듣고 초음파 사진도 다 있어요(사례 7).

임신을 확인하고도 출산 전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는 경우는 사례 2, 3이다. 북한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을 간다고 했다.

저는 병원문 앞에 가 본적이 없어요. 저는 다행히 (산부인과 의사) 언니가 있어서 (태아) 위치 파악 다 언니가 해줬어요. 언니가 청진기를 사용하고 위치 파악할 때는 손으로 만져보고 머리가 자기 위치에 맞는지 확인하거든요. (중략) **임신했을 때 아무것도 못 먹었죠.** 남들은 임신하면 살핀다고 하는데 저는 뼈다귀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장사하면서 온 집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편안한 잠자본 적도 없고. **임신 9개월 말달 때까지도 짐지고 다니고 장사했으니까요(사례 2).**

임신하고 (병원에)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 낳았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별어먹고 살기도 바쁘는데. 그냥 임신한 게 반갑지도 않고, 그냥 낳으면 낳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사례 3).

출산 전까지 두 번 군병원에서 검진했어요.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면 찾아가고 정기검진은 없어요. 초음파는 안했고 손으로 만지면서 (태아) 위치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보고 그것만 말해주죠. 비용은 없고 간단한 인사 같은 거 해요. 많이는 아니고 그 정도는 돈이 아니라 담배 같은 걸 드려요(사례 6).

2017년 MICS 조사에 의하면 임신부의 평균 산전 검사 횟수가 3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시와 농촌 모두 평균 3회였다.²²²⁾ 본 면담 조사에서는 정기적인 산전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4회 이상 산전 검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라. 출산 및 산후조리

(1) 출산

첫 번째 아이를 의료사고로 잃고 두 번째 아이는 제왕절개로 낳아야 했던 사례 5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출산하였다. 사례 7은 출산예정일 직전에 중국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보러갔다가 중국의 친정어머니 집에서 출산했다. 면담참여자들은 북한에서 분만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산은 집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때 산파는 전직 의사이거나 조산원들이었다. 면담자들은 병원에 오고가는 이동수단도 없고, 병원에 가면 전기도 잘 안들어오고 의사한테 대접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출산은 집에서 했어요. 11월에 (출산)해서 병원이 바로 집 앞에 있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할 때 바람맞잖아요. 병원에 있는 기간이 며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아예 불러서 집에서 했어요(사례 1).

집에서 출산했어요. 언니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언니가 집에 와서 했죠. 기구를 다 갖고 와서 소독해서(집에서 낳았어요). 애를 낳기

222)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 52.

힘들어 위험할 때나 병원 가서 낳고, 일반적으로 집에 의사 불러서 출산해요. 집에서 낳는 게 더 안전해요. 병원에 가서 낳고 오면 오는 중에 바람맞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낳죠. **그리고 병원에서 낳으면 의사들한테 대접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요**(사례 2).

옛날에 동네에 할머니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조산업무를 했어요. 우리 마을의 조산을 한 할머니가 있으니까 잘 알거든요. 아무개 할머니 우리 딸 언제쯤 출산할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하면 다 알겠다 하면서 다 해주거든요. 거기는 돈 주는 게 아니라 밥 한 끼 그냥 같이... 얼굴 잘 알고 한 동네고 가까우니까. 고맙다고 밥 한 끼 대접하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낳나요?) **내 생각에는 80%가 다 집에서 낳아요. 잘 사는 집은 겁이 나서 미리 병원 가요. 우리처럼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편하게 낳으니까**(사례 3).

집에서 출산했어요. 병원에 가면 양강도 쪽에는 9월 말 10월 초에 엄청 춥거든요. 여긴 병원 시설이 좋잖아요. 거긴 좀 나쁘거든요. 병원이 더 춥고 전기도 잘 안들어오고 불편하고 안 좋은게 더 많죠. 보통 집에서 출산해요(사례 4).

출산은 집에서 했어요. 그냥 집에서 하려고 다른 출산 잘하는 선생님 찾아서 집에서 했어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받는 출산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돈 드리고 하는 거죠(사례 6).

출산 예정일이 2월 25일이었는데 2월 초에 중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경비대에게 돈을 주고 딸이 국경선을 넘을 수 있게 조치를 해 둔 것 같아요. 산을 4시간을 걸었어요. 눈이 쌓인 산을 4시간 걸었으니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마터면 길에서 낳을 뻔 한 거죠(사례 7).

집에서 출산하면서 나오는 피로 오염된 이불이나 옷들은 여성들이(산모, 친정어머니 등) 강가에 가서 빨라고 한다(사례 3). 병원에서 출산한 사례 5는 친정어머니한테 피 묻은 기저귀를 빨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회용기저귀를 미리 사두어서 사용했다.

근데 우리 시동생이 출산할 때가 됐어요. (시동생 부인) 부모가 없어요. 우리 시엄마가 대신해줘야 하는데. 시엄마가 뇌혈중 걸려서 못하니까, 대신 내가 가서 뒤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중략) 집에서 낳으면 피 빨래. 밑에다 깔고 그런 걸 우린 못 버려요. 다시 써야 해요. 출산 한 번하면 피 있잖아요. **그 피 빨래를 압록강에 가져가서 헹궈서 빨아서 다시 재사용하죠.** 그래서 애 낳는 거 다 봤죠(사례 3).

북한에서 대부분은 비공식적인 사적 공간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도 2017년 MICS 조사결과와 불일치하다. 2017년 MICS 결과에서는 출산 장소로 병원이 약 92%, 집이 7.8%, 출산 지원인력은 의사/보조 의사가 약 90%, 간호사/조산원 10.0%로 나왔다. 본 면담조사 참여자들이 농촌 출신이 많지만, MICS 조사에서 농촌지역도 병원출산이 약 87%로 높았다는 점에서 표본조사와 실제(일부 사례이지만)의 괴리는 크다. (<표 III-7> 참조)

(2) 산후조리 및 산후관리

중국에서 출산한 사례 7을 제외하고는 산후조리는 친정집에 가서 친정어머니가 해주었다. 또는 친정어머니가 와서 해 주었다(사례 2). 산후조리 기간은 사례마다 달랐다.

친정어머니가 3개월 정도 해주셨어요. 친정집에 계속 있었어요.

친정집이 가까워요. 그동안에 시어머니랑 시댁에선 엄마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애기 보러...(사례 1).

해산하기 몇 개월 전에 친정엄마가 집으로 왔어요. 혼자 사시는 걸 힘들어 해서. 그때 너무 (살림이) 어려워서 애 낳고 아마 첫 밥 먹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줬고 남편은 전혀 도움이 안됐어요**(사례 2).

산후조리 못해봤어요. 그냥 빨래하고 기저귀 빨고, 친정엄마가 어떻게 해줘요? 장마당 나가서 벌어먹어야 하잖아요. (중략) 임신 출산하고 병원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깐요. 내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건강상태가 나빠진지도 몰라요(사례 3).

친정에서 산후조리 한달 정도 하고 본가로 갔어요. 그때도 저희 집에 엄마가 와서 밥도 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2주 있다가 탈북했어요(사례 4).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친정아버지와 고모가 해 주셨어요.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받은 선생님이 다시 오는 건 없어요.** 책임이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분만만 하고 끝이에요(사례 6).

출산 후, 산모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이나 출산을 도운 의사에게 간 경우는 없었다. 제왕절개를 한 사례 5도 집에 온 후로는 수술 경과를 확인차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한 달 정도했어요. 미역국 먹고, 안 먹겠다는 거 계속 먹이고. (제왕절개를 하신 후에 병원가서 수술 경과를 확인하지 않았나요?) **실을 다 뽑고 나왔으니까 다신 안 갔죠.** 아물기 전에 나온게(퇴원한게) 아니라 다 아물어서 나왔어요(사례 5).

사례 7은 중국에서 출산하고 2주 후 북한으로 돌아오면서 산후조리는 거의 못했다.

출산하고 제대로 몸조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초가을이 되고 그러면 뭔가 뺏기는 감이 손목이랑 담이 올라오고, 이제 아린 것 같아요. 아파서 걷지 못하고 (중략) (중국에서 출산하고 친정어머니가 미역국은 끓여주셨나요?) 끓였죠. 근데 제가 먹지를 못했어요. 아기 낳고, 중국 미역국을 먹어도 자꾸 토 하는 거예요(사례 7).

오늘날 한국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²²³⁾에서 남북의 출산 문화가 매우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집에서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이후 산후 검진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마. 모유수유

사례 1을 제외하고는 모유수유만 했다. 사례 1은 모유와 분유를 병행했다.

생후 4, 5개월부터 밖에 나다니고 돈벌이를 해야 하니까 애를 두고 얼마나 시어머니가 애기가 볼 때도 있어서 **모유랑 분유 같이 했어요.** 분유는 시장에 가서 중국산으로 사서 했어요. 한국산도 있는데 너무 비싸서. 거의 10배 정도 비싸요. 한국 상품 못 팔게 해서 엄청 비싸요. (분유를 먹으려면,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있어야 하는데, 다 갖춰져 있나요?) 잘 사는 집은 아예 LPG 가스가 집에 있

223) 가장 많이 산후관리로 이용한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5.1%로 가장 많았다. 이소영,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연구/조사/발간자료, 2019.1.16., p. 3,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7424&page=1> (검색일: 2021.10.25.).

어서, 조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집은 불을 떼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애기 있을 때는 끓여서 해요. (중략) **수돗물이 저희 지역엔 다 나와요.** 보통은 살림집이 밀집되어있는 곳은 우물은 사용할 수가 없고 수돗물이 나와요. 자연수니까 **수돗물은 24시간 나와요.** 수돗물을 끓여서 분유를 먹어요(사례 1).

장마당에서 분유를 판매하기는 하지만, 아직 일반화되기에는 비싸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례에서도(사례 5) 분유를 먹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은 모유수유가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문화인 것으로 보인다. 분유는 모유수유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만 먹인다고 했다. 모유수유에 관한 면담 결과는 2017년 MICS 조사와 거의 일치한다(〈표 III-13〉 참조).

모유수유를 오래 했어요. 두 살까지도 먹은 것 같아요. 물은 다 길러서 먹고 쓰고 합니다(사례 2).

모유수유 일년 정도했어요. 여기서처럼 골고루 먹지 못했지만 굶지는 않아서 모유수유하는데 어려움을 없었어요(사례 3).

모유 먹이고 천 기저귀를 썼어요. 대부분 천기저귀를 써요. (출산 45일 만에 탈복하면서) 일회용을 하나 샀죠(사례 4).

모유 수유만 일년 했어요. 제왕절개 해서 모유가 잘 안나왔지만 일년 먹였어요.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유식도 못 먹였어요(사례 5).

일년 반까지 모유수유를 했어요(사례 6).

모유수유했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지만 여자 애라 그런지 딸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먹어요. **모유수유는 1년 반했어요**(사례 7).

한편, 본인 사례는 아니지만, 몸이 망가지는 것이 싫기도 하고 남에게 경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분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사례 1).

애기 모유하면 가슴이 안 예뻐진다더라고 얘기하면서, 모유 안 하고 분유 하는 애도 있고. 전 애 하나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까지 할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분유를 하면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요즘에는 분유도 잘돼서, 애기 모유 영양만큼 다 나온다 하더라고 하고. **분유를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대한 경제력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이면 남편 자랑하고 시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사례 1).

바. 모성상

면담참여자들은 교육열이 높았다.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하고 한국에 온 경우가 많았다. 전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탈북한 경우가 다수였다면, 탈북 동기가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를 위한 선택인 만큼, 무엇보다 한국에서 자녀교육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모습이 확연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자녀의 인생이 곧 자신의 인생이라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와 함께 탈북했던 사례들인 만큼,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어머니’,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이상적인 모성상으로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었다.

애기를 잘 내세워주는 게 좋은 엄마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사례 4).

북한에서도 전 딸이 그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걸 다 실행했거든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딸이 와서 (무용)입단하고 싶다고 하면, 그날로 찾아가서 말해서 다음날에라도 입단시켜주고. 딸이 말하면 무엇이든 다 실행시켜줬거든요. 지금도 딸이 말만 하면 다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맥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북에서는 인맥으로 통했는데 여기선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해결해야죠. 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야죠(사례 5).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중략) 저희 사촌형제들이 먼저 (한국에) 와서 잘살고 있으니까. 남편도 그러려고 왔겠죠. 저도 여기서(한국) 아이한테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와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는 자식한테 잘 못해주니까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한테 지금 부족함 없이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사례 6).

멋있는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어떤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가요?) 우리 딸이 이북에서 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러자면 제가 경제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사례 7).

2. 양육 실태

가. 영아기 예방접종

자녀의 예방접종은 대체로 잘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나 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가서 자비부담으로 했다. 그러나 아이가 불시에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가기 보다는 집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걸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에 아픈 아이를 업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예방접종을 저는 다 했어요. 병원가서 접종했어요. 병원에는 갓난아이를 업고 30~40분 걸어갔어요. 북한에서는 1시간 정도 걸으면 가깝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사례 1).

여기(한국) 오기 전까지 3번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진료소가서 맞았어요. 근데 (아이가) 아파서는 병원에 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어른 약 대략해서 먹었어요. 짐작으로 4분의 1 먹었죠. 그냥 막 키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사례 3).

예방접종을 저는 다 자비로 했어요. 병원가면 말 많더라고요. 시끄러워서. 돈 주고 약을 사서 소아병원 가서 간호사들 보고 뇌달라고 했어요. 소아병원에서 친동생 같은 간호사 알거든요. 사서 가니까 뇌주더라고요(사례 5).

북한에서 동거 커플이 많아지면서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나 탁아소, 유치원을 다니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돈만 있으면 가능한 사회라는 것이다. 동거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사례 6은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해도 이익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절차를 밟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했다.

출생신고는 안 했어요. 해야 하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결혼등록을 해야 출생신고하잖아요. 딱히, 결혼등록을 하고 싶지 않아서 결

혼등록도 안 했거든요. 혼인신고해서 남편 직장에서 월급 타서 배급 나오거나 하면 하겠는데, 딱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점이 없으니까. 출생신고해서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하는게 아니니까. 어차피 애가 있으니까 인민반에서 나와 진료소에서 예방접종 한두 번은 맞았거든요. 예방접종 체계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출생신고 안했다고) 제한받은 건 없었어요(사례 6).

이처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적지 않을 수 있고 예방접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한 당국이 인구 집계 등 인구관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가정내 환경

사례 7을 제외하고는 단칸방에서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살았다. 한 방에서 친정어머니(사례 2) 또는 시부모와 같이 산 사례(사례 3)도 있었다.

방은 단칸이죠. 한 방에서 친정엄마, 사위, 아이랑 다 같이 살았어요. 장난감은 못 사줬어요. 딸랑이도 못 사줬어요. 옷도 물려입을 데가 없어서 손으로 다 만들어 입혔어요(사례 2).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아이 방은 당연히 없죠.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긴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았지 (중략) 장난감은 구경도 못해봤어요(사례 3).

사례 7이 북한의 특이 사례인지 나머지 여섯 사례가 북한의 일부 사례인지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출신 지역이 집중되어 있음), 함부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가족

구성원에 따른 독립공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례 5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마련해 준 단층집 단칸방에서 부부와 자녀가 지냈다.

아이방은 따로 없어요. 남편하고 한방에서 같이 잤어요. 방 단칸에 주방만 따로 있는 집이었어요(사례 1).

단층집에서 살았어요. 단칸방이에요. 아이랑 같이 방에서 살았어요. (대부분 이렇게 사시나요?) 네. (중략) 아이한테 옷이나 장난감, 동화책 엄청 사줬어요. 우리 집앞에 00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 2층에 애들 장난감 매장을 심심하면 갔어요. 안 사주면 (애가) 바닥에 굴러요. 그래서 백화점 판매원들도 다 알아요. (중략) 백화점에서 외식은 비싸서 못하고 일반 식당가서 가끔 해요. 거기서는 다 사서 집에서 해 먹었어요. 집에서 고기 구워먹고(사례 5).

친정집(방 두 칸)에서 신혼방을 차리고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 독방은 없는 거죠. 장난감은 자주는 못 사주고 애가 좀 놀 수 있을 땐 자동차나 오토바이 장난감을 사줬어요. (중략) 냉장고는 없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차피 두 끼 정도밖에 못 먹고 오래 둘 반찬도 없어요(사례 6).

결혼하면서 제가 구입한 3칸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화장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자녀 독방도 있었어요. 장난감도 엄청 사줬어요. 중국 게 더 예뻐요. 중국 놀잇감이 엄청 이쁘게 나와요(사례 7).

자녀의 양육환경 차원에서 파악한 북한의 주거상태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간의 협소함뿐 아니라, 집 마련이 어려워서 동거 커플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북한의 주택문제도 현안임을 알 수 있었

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 것²²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다. 탁아소·유치원 이용

탁아소는 잘 안 보내고(사례 1, 3만 보냄), 유치원은 보낼 나이가 되면 거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탁아소는 보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해서 반드시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유치원은 학교가기 준비단계 교육기관으로 우리말로 배우고 해서 보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탁아소에 맡겼어요. 장사해야 해서, 8~9개월 때부터 보냈어요. 돈 내고, 돈 안 내려면 엄마가 국가 일을 하는 사람만 데려갈 수 있는데, 전 집에서 부양이잖아요.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탁아소에서 뭘 사야 한다고 하는 비용 같은걸 공식적으로 원장이 받는 게 아니라, 명목상 이걸 해야 되니까 돈을 얼마만큼 내라고 하죠. 정기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뭘 해야 하니까 내야 한다. 상시적으로, 돈 낼 수 있냐고 물어보고 80%만 줄 수 있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은 아기 맡기는 집에서는 다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 애한테 잘 못해줄 수도 있거든요(사례 1).

탁아소를 보냈어요. 도시락은 싸지 않고 쌀 5kg씩 한달치 내요. 점심에 밥 먹이게. 가방에는 애 간식 먹을 거 넣었어요. 환경은 애 봐주니까 깨끗해요. 저는 (탁아소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친 이모가 거기 원장을 잘 알아서 보낸 거예요(사례 3).

2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저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번역본),” p. 13.

그런데 탁아소, 유치원 모두 비용부담이 커서 살림이 어려운 집은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 탁아소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비용부담도 있으나 대리양육자가 있어서(사례 6, 7), 청결하지 못해서(사례 2225)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탁아소와 유치원을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의무교육인 유치원 높은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닐 수 있다고 했다.

출생신고 안했지만 탁아소나 유치원 보내는데는 상관없어요. 그냥 보내고 싶으면 보내면 받아줘요. (중략) **탁아소는 이용 안했어요. 외출할 때는 애를 업고 다녔죠. 유치원은 갔구요.** 유치원을 탈북 전까지 낮은반을 3개월 다녔어요. 입학할 때 20원 내고 때마다 10원 내고 도시락은 싸갔어요(사례 6).

여동생이 봐줘서 탁아소는 안 보냈어요. 동생이 조카를 엄청 아꼈어요. 애가 나보고 할머니래요. 동생보고 엄마라 하고. 이모가 엄만가 했어요. **유치원은 보냈어요. 유치원에서는 우리글을 배우거든요. 유치원은 보내야죠. 유치원은 엄청 부담이 많아요.** 탁아소도 부담이 있겠지만 (중략) 내는 게 많아요. 탁아소, 유치원 때부터... 엄마들이 정 바쁜 사람들은 못 보내죠. (중략) **김정은 시기에 와서 돈은 더 들어가죠. 좋아졌지만.** (중략) 김정일 시대에는 건설 이런 게 없었어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외국물 먹고 와서 저렇게 급속하게 현대화를 한다는데, 국가에서 (개인의 삶이) 보장이 안 되니까(사례 7).

탁아소는 안 보내고 친정엄마가 봤어요. 탁아소에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탁아소 문 열고 들어가면 냄새나다 못해 여기 저리 파리 날아다니고, 오줌, 똥 기저귀가

225) 사례 2의 자녀는 2007년생으로 탁아소 이용 시기가 김정은 정권 이전임을 감안해야 함.

있고 보내기 쉽지 않더라구요. (중략) 유치원은 낮은, 높은 반 다
다녔어요. 학교 들어가니까(사례 2).

사례 5에서 탁아소와 유치원 외에도 대리양육으로 개인보육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 개인보육사는 공적 제도는 아
니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다. 개인
이 아이 몇 명을 모아서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시스템인데 이용시
간이 기관보다 자유롭고 편하고, 비용이 비싸지 않고, 무엇보다 아
이를 교육적으로 잘 봐줘서 이용했다고 한다. 사례 5에 의하면 북한
에는 개인보육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탁아소는 안 보냈고 개인 보육사에게 맡겼어요. 그 분 집에다가
맡겼어요. 중국돈으로 한 달에 30원 정도 줬어요. 그 딸이 보육원
자격증이 있어요. 이 분은 자격증 없구요. 집에서 애들 3~4명 정도
본다고 해서 찾아갔죠. 아는 사람 소개로. 국가 탁아소 데려가니
까, 오히려 탁아소 비용이 더 비싸고. 제가 시장을 다니니까, **국가
탁아소를 다니면 4시 반에 무조건 퇴근해서 애를 찾아가야 하는데,
시장에서 일하니까 제시간에 못 가요.** 아침에는 갈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못 맞춰서 개인 보육사한테 맡기고 우리 시간에 맞춰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탁아소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맡기고. 할
머니(개인보육사)가 피아노도 치시거든요. 할머니도 은행 출신인
데, 피아노도 잘 치고. 할머니가 엄청 착하게 나가서 손잡고 공원
가서 한 바퀴 돌고 놀고. 다 씻겨주고. (중략) (이런 분들이 많나
요?) 네. 좀 있어요. 근데 다른 집 갔다가도 다 이 할머니 찾아와요
(사례 5).

라. 배우자의 참여정도

배우자의 육아나 가사일 참여정도는 사례에 따라 달랐다. 사례 3,

4를 제외하고는 면담참여자들의 배우자들은 가사나 육아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남자들은 가정일 그런 거 몰라요. 진짜 몰라요. 우리가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아요. 북한 남자들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냥 나 자체도 여자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일은 남자가 한다고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여전해요(사례 3).

북한 남자들은 아이를 봐 주거나 기저귀 갈아주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요즘 북한 남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꿨다고 하던데요?) 제가 여기 올 때까지 그런 거 못 봤어요(사례 4).

사회변화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거나(사례 1), 배우자의 성향 상 참여하거나(사례 5), 친정어머니가 안 계셔서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참여하거나(사례 6) 등 사유는 다양하나, 세대의 가치관 차이가 생겨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희 세대는 남편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저귀도 빨고 밥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잘하는 편인데, 안 하는 사람도 분명 있긴 한데, 아버지 세대는 아예 안 했죠. 남자가 부엌에 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그래요(사례 1).

남편은 가정일이 전문이에요. 가사일이나 아이 챙겨주는 일을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남편이 해요. **북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다고, 북한 남자치고 이런 사람 없다고들 해요.** 빨래터까지 와서 지키고 있어요. 압록강까지 이고 가는 건 제가 이고 가고, 내려놓고 빨고 놓는 거 제가 하면, 옆에서 지키는 듯이 보고 있어요. 내가 이고 와서 집 앞에서 내리는 거 신랑이 받아서 해줘요. **빨래 널고**

개고 그거 남편이 해요(사례 5).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까) 천기저귀는 남편이 빨았어요. 밖에는 안 나가고 집에서 했어요. 출산하고 20일 후부터는 제가 강에 나가서 했구요. 친정엄마가 있으면 제가 안했겠죠. 수돗물이 없어서 물을 길어 먹었어요. 물은 남편이 길렀어요. 남편이 가사일에 많이 참여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사례 6).

한편, 사례 7은 출산 후 이혼을 했으나, 배우자와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시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사례 7)를 가족으로 대해주었고 딸도 손녀로 대해줬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지원이 계속되었다.

마. 육아정보 습득 경로

한국은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와 같은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화된 공식 기관은 없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주변 사람들을(친정어머니, 자매, 시어머니, 친구 등) 통해 정보를 습득했다. 본 면담에서 사례 7만 유일하게 육아서적을 구입해서 정보를 구했다.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애 몇 명 낳고 이런 말만 들었지. 어떻게 하면 애가 생기고 출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자랐죠. 그냥 부딪히면서 다 했어요. 책을 본 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사례 2).

모유수유하고 재우고 이러는 거 **자연히 되는대로 한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줬죠.** 내가 처음인데 모르죠. 엄마가 목욕시키는 것도 알려주고. 엄마가 다 해줬죠.

육아정보는 **친구들끼리** 그냥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서 공유하는 거죠. **아는 언니들이나**(사례 4).

친정엄마한테도 (육아정보) 못 들었어요. 아기 낳고 모유 먹일 줄도 몰라서 모유도 안 먹였거든요. 부분 마취했으니까. 병원에서도 아이 낳고 나서 모유수유 방법이나 아기 씻기는 거 안 알려줘요 (사례 5).

임신, 출산, 양육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을 수는 없어요. 군병원이나 진료소에서도 못 받는 것 같아요(사례 6).

임신 때부터 출산까지 적힌 책 파는 거 있어요. **그걸 구입해서 봤어요.** 생리 안 하면 임신이라는 걸 알고,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다 있어요. 이유식같은 정보는 시어머니가 아니까 밥 먹여도 된다 이때는 뭘 줘도 된다 하고.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꾸리니까(경제력이 있으니까), 올 때마다 뭘 사 와요. 인제부터는 뭘 먹여도 되고(사례 7).

앞서 언급한 모성과 양육 정보 제공을 위해 “아동을 강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Bringing Up Children Strong and Healthy)” 책자를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만부씩 인쇄, 배포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소결

지금까지 김정은 시기에 임신, 출산, 양육 경험이 있는 탈북 여성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모성과 양육의 실태를 미시적으로 알 수 있었다.

총 일곱 사례이고 지역도 편중되어 있어서 면담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면담 내용도 북한의 한 단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에서의 임신, 출산, 산전 및 산후 관리, 피임 및 낙태 등이 본인 집 또는 의사 집, 즉 사적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2017년 MICS와 불일치한 결과이다. 북한 당국이 위로부터 모성과 양육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의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정책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다. 청진시 출신의 사례 7의 면담은 이러한 북한의 격차를 잘 보여준다.

지역 격차뿐 아니라 소득 격차에 따른 모성과 양육 현황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일회용 생리용품과 기저귀를 사용하지만, 쌀 1kg에 해당하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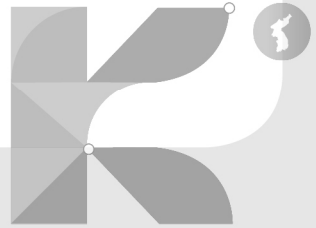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자비 부담이란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병원까지 도보로 1시간 가량 걸어가야 하는 점, 가서도 전기와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서 떨감이나 이불을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점, 의료진 식사까지도 챙겨야 하는 점 등등 병원을 가야 할 필요성이 낮아 보였다.

개인 집에서 행해지는 의료시술, 수술은 위생이나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적 공간에서 모성과 양육, 특히, 모성의 건강권을 보장받기란 불안해 보인다. 탁아소와 유치원도 자비 부

담이 커서 소득이 낮으면 다니기가 어렵다고 한다. 본 면담조사 결과, 탁아소의 이용율은 2017년 MICS와는 다소 상충되었다.

요컨대, 면담조사를 통해서 기근난 이후 붕괴된 북한의 모성과 양육 제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지역과 소득에 따라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7년 MICS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총평

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변동과 정책 변화 분석』 주제 하에 추진하고 있는 3년 프로젝트 연구 중 2년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의 인구수준과 함께, 미래세대인 아동의 인구수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성과 재생산을 건강권 관점에서 김정은 시기 이후 변화된 모성과 양육정책과 실재를 고찰하였다.

서론에서 제시한 건강권의 4대 요소(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고품질)를 분석틀로 해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용성

첫째, 가용성 측면이다. 가용성이란 국가가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보건 의료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고 국민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 수준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에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이다. 공식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부터는 부모가 없는 고아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설립에 힘을 기울인 결과, 67개의 육아원, 보육원, 양로원 등을 설립했다고 국제사회에 보고하였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장마당에 꽃제비들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나왔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의료교육전략(2013~2015), 아동과 모성의 영양실조 통제전략 및 행동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다. 또한, 의료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산 및 신생아 응급 훈련 모듈(표준)을 개발, 배포하였다. 또한, 국제사회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북한 당국은 ‘2016~2020년 보건분야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조산사의 성

과 생식건강서비스의 전문적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재생산 건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사망률과 질병 발생률의 감소 등 모성과 영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모성사망률과 영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의 가용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회용 생리대, 일회용 기저귀 보급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점, 병원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보다는 가정에서 전직 의사 또는 산파에 의한 출산이 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조사 결과와 각종 통계수치 간의 괴리가 커서 어느 한 쪽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담조사와 문헌자료 모두가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 면담조사 결과가 북한의 일부 여성들의 실태라고 볼 수도 있으나, 면담뿐 아니라 문헌자료에서도 가구소득, 지역에 따라 성과 재생산의 서비스를 가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랐다는 점은 공통된 사실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성과 재생산 서비스의 가용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보건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을 양육 서비스로 확장해서 보면, 탁아소와 유치원 모두 자비 부담이 커서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가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탁아소는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기도 하지만, 학교 가기 전에 우리말을 배워야 한다는 실용적 취지에서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탁아소의 가용성은 낮아지고 있으며 유치원의 가용성은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90% 이상)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접근성

둘째, 접근성 측면이다. 접근성이란 보건의료시설, 상품 및 서비스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북한은 국영의료제의 무상치료제도와 호담당 의사에 의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근간으로 1~4차에 이르는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²²⁶⁾ 전국 리·동 행정구역 단위에 1차 보건의료시설 5,000여개소, 전국 시·군·구역 단위에 2차 보건의료시설 200여개소, 3차 진료를 담당하는 도급 종합병원, 그리고 최종 4차 의료기관인 평양에 소재한 평양의대부속병원과 조선적십자 병원으로 체계적으로 설립, 운영²²⁷⁾되고 있으므로 인구수 기준으로 시설의 접근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설 수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상품과 서비스이다.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환자가 자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고 없어서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난방도 되지 않아서 출산하려면 땀감과 이불을 임신부가 직접 준비해서 가져와야 하는 실정이다. 약이나 주사도 환자가 장마당에 가서 사 가지고 와야 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임신부 입장에서는 의료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현실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종합 산부인과라 할 수 있는 산원이 평양시, 남포시, 함흥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다. 북한의 산원은 공식적으로 초산모, 고위험 임신부 및 다태아 임신부(출생아 포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사는 고위험 임신부, 다태아 임신부는 산원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226) 이소희, “북한의 의료체계 및 탈북민 특성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황 분석 및 질병 관리 방안 제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제10차 심포지엄 자료집, 2016.11.23.), p. 14.

227) 위의 글, p. 14.

밖에 없다. 본 면담에서는 산원을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 제왕절개를 한 사례 6도 군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접근성은 교통수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면담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점차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²²⁸⁾ 아직까지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자가용은 일부 특권층의 소유물이다.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다하더라도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의 입소문, 지인소개로 집에서 진료를 보는 전직 의사에게 찾아가서 출산(분만),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체계적인 산전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고, 본인이 산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집에서 진료를 보는 전직의사를 찾아갔다.

의료시설 수는 인구수 대비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제도화된 의료시설에서 전문의료인력으로부터 안전한 성과 재생산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에서 접근성 측면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탁아소, 유치원의 접근성은 기관수가 충분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아이(유아)가 걸어서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탁아소,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수용성

셋째, 수용성 측면이다. 수용성이란 모든 보건의료시설과 상품 및 서비스는 윤리와 문화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228) 본 면담에서는 사례 7이 해당한다. 사례 7은 국가 소속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배우자도 국가 공무원이었다.

이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수용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는 다양한 수준의 보건의료 시설이나 상품 및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찍이 구축한 무상의료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보건의료 상품 및 서비스를 수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피임은 여성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임종류도 여성의 몸에 삽입하는 ‘루프(고리)’로 획일화되어 있으며 남성의 대표적인 피임기구인 콘돔도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사례 3). 그러나 북한 의료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는 북한에도 콘돔은 있다고 했으나, 일반 주민에게 보급되어 있지는 않다고 했다(〈표 I-4〉 구분번호 4). 빨아서 사용하는 천생리대, 천기저귀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일회용품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3은 한국에 와서 일회용품 기저귀를 보고 추가 출산을 결심했다고 했다. 또, 피면담자들은 한국에서 천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의 완전 모유수유의 높은 실천율(〈표 III-12〉 참조)도 분유나 기타 대체물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국처럼 모유와 분유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라면, 모유에 대한 전적인 수용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와의 자유로운 무역이나 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 사회의 폐쇄적인 문화가 성과 재생산 관련한 높은(거의 획일화된)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2015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낙태시술과 피임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피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3년의 구속 처벌까지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미혼 여성뿐 아니라 기혼여성도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낙태를 혼자 결정하는 등 면담조사 참여자들 모두 낙태 경험이 있었다. 북한에서 낙태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낙태 금지명령이 여성들에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여성의 모성 관념에서 낙태 금지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낙태는 북한 여성이 성과 재생산에 있어서 북한 당국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라 하겠다.

양육과 관련된 수용성 측면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주체사상 등 사상교육의 수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일부 사례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경제력 등 새로운 사회문화 자본을 갖춘 신흥계층이 부상하고 이들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권력이 재편되면,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약화, 퇴색되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북한에서 유치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말을 배우는 것이었다. 또,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도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탁아소, 유치원을 통해 주체사상을 가르치려는 북한 당국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점점 수용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고품질

넷째, 고품질 측면이다. 고품질이란 보건 의료시설, 상품과 서비스가 문화적으로는 수용가능해도, 과학적·의학적으로 양질로 제공되는가의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수용하는 보건의료시설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로, 철도, 수도, 전

기, 통신, 공항 등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가동되는 의료장비, 병원이나 가정에서의 난방, 온수 공급, 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이 매우 한정적이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들어서면서 북한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과학기술을 의료에 접목시켜 의학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최신 기술적 서비스가 열악한 평양과 대도시 외 지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양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의료체계)를 구축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농촌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 고도기술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여성건강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북한 의료진 출신 전문가 자문회의(〈표 I-4〉 구분번호 4)에서도 김정은 시기에 의료법을 정비하여 ‘의료의 현대화, 과학화’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의욕적인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기 이후에 탈북한 북한 의료진 출신 의사는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든 여전히 의료장비가 미비하고 약품 보급과 보관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군병원과 구역병원에도 초음파 기기가 없는 병원이 많으며, 함경북도 산원도 초음파 기기가 2대뿐이라고 진술했다(〈표 I-4〉 구분번호 4).

보건의료시설 뿐 아니라 가정과 일부 탁아소, 유치원의 품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담조사 사례 2는 탁아소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를 보내지 않았으며 수도물이 없어서 우물을 길러다가 식수로 사용했다고 했다.

2. 인구통계학적 남북 비교

북한의 연구결과를 한국과 개괄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V-1>과 같다.

한국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모성과 영아의 보건의료체계와 영유아의 양육지원체계의 공공성을 확대, 강화해 왔고, 정책과 실제와의 차이도 거의 없다. 이에 비해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실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 즉, 북한 당국의 정책과 실제 주민이 느끼는 체감의 간극이 크다. 아직까지 정책이 촘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나 한국에 비하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표 V-1> 참조)은 남북 모두 2.0명 이하로 한국은 1.1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1.9명으로 아직은 높은 수준이나 자녀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북한도 저출산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임과 낙태는 성과 재생산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행사하는 영역이었다.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북한 여성들 모두 북한에서 1명의 자녀만 출산했고,²²⁹⁾ 피임을 한 시점은 첫째 아이 출산 이후였다.²³⁰⁾ 이를 통해 북한 여성들은 첫째 아이에 대한 가족계획은 거의 하지 않고, 첫 출산 후 피임을 해서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229) 사례 3의 둘째아이는 한국에서 출산함.

230) 사례 7은 첫 아이 출산 후, 이혼으로 피임을 하지 않음.

한국은 남성이 북한은 여성이 피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 문화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임신, 출산, 산전과 산후관리 까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경제난 이후 사회주의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된 후,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개인이 임신과 출산, 산전과 산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아닌 개인(의사) 집에서 전직 의사출신이나 조산원, 산파에 의한 출산, 낙태, 피임수술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산전 검사의 횟수를 보면, 한국은 평균 13.3회에 비해 북한은 3회에 그쳤다. 한국의 임부들은 임신 초부터 월 1회 이상 체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북한은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점검하기 위한 산후 관리도 한국은 97%가 병원을 가지만, 면담에서는 산후 관리를 위해 병원을 간 사례가 없었다. 2017년 MICS에서는 산후 관리 수급률이 98.2%로 보고되어 면담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표 III-9〉 참조), 출산장소로도 의료기관이란 응답이 약 92%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표 III-7〉 참조). 표본조사와 면담 조사의 큰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한국의 산후관리는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북한은 친정집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방법도 남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모유수유를 돌까지 주로 하지만, 한국은 모유와 분유를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산모는 자신의 건강회복을 위해 병원에 가서 산전, 산후 검사를 거의 받지 않지만, 자녀의 예방접종은 병원에 가서 하며, 이때 비용은 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는 등 체계적이지 않았다.

남북의 영유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보육기관을 다니고 있다.

다만, 북한은 탁아소, 유치원에 다니는 비용과 물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해서 저소득 가구에서는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부담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국공립 교육·보육기관의 이용비용은 거의 없다.

〈표 V-1〉 남북 모성과 양육의 성과 재생산 비교

구분		북한	한국
모성	모성 사망률	출생아 십만명당 89명 (2017년)	출생아 십만명당 9.9명 (2019년)
	영아 사망률	출생아 천명당 13,898명 (2020년)	출생아 천명당 2.7명 (2019년)
	합계출산율	1.91(2020년)	1.1(2020년)
	희망하는 자녀수	1.89(2014년) *실제 1명(면담조사)	2.2명(2012년) *실제 1.2명(2018년)
	피임방법 (가장 일반적)	여성이 루프	남성이 콘돔
	산전 검사	3회(2017년 MICS) - 본인이 원할 때 받음	13.3회(2018년)
	출산장소 (가장 일반적)	- 집: 주로 전직 의사 집 *2017 MICS: 병의원	- 병의원
	산후조리 (가장 일반적)	- 친정집	- 산후조리원
	모유수유	- 완전 모유수유가 가장 많음	- 모유+분유가 가장 많음
	산후 수진 경험	- 실제 1명도 없음(면담)	- 산모의 94.6%가 받음
양육	예방접종	-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97.0%(BCG 등 6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보육기관	- 탁아소 73.7% - 유치원 92.6% - 자비부담 큼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70% 이상 - 자비부담 거의 없음.

자료: 북한의 경우 본 연구총서에 언급된 수치 외에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DPRK and UNFP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74; UNICEF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및 면담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 "2019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 2019,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검색일: 2021.10.25.);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이소영,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보도자료,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등 4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북한의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이 개선되면서 여성과 아동 인구 수와 질 모두 향상되었으나, 한국과 비교해서는 그 수준이 여전히 낮다(〈표 V-1〉 참조). 2020년 현재 인구 수는 한국이 2배가량 많다. 그러나 인구성장률,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인구 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0~14세와 10~24세의 아동 및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인구가 젊은 반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약 16%를 차지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젊은 인구가 한국은 노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향후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북한의 젊은 인구를 적극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직하다. 언어가 같고, 교육수준이 높아서 한국의 부족한 젊은 노동 인력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기대수명은 남북이 10년 정도의 차이가 났다. 북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 보건, 의료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표 V-2〉 참조).

남북 모두 남아선호 사상은 거의 사라졌으며 오히려 남북 모두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남북 모두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미래 한반도의 인구 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모두 안정된 공교육체제와 높은 교육열로 양질의 인력이 양성되면서 인구 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양질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구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북한은 경제난 이후 지역, 소득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여성과 영유아 인구의 질적 격차가 북한 내에서도, 남북 사이에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V-2〉 남북 인구통계학 지표(2020년)

구분	인구 (백만명)	인구 성장률 (2015~2020)	연령별 인구구성비율				성비 (%)	출산율 (명)	기대 수명 (세)
			0~14세 (%)	10~24세 (%)	14~64세 (%)	65세 이상 (%)			
한국	51.3	0.2	12.5	15.5	71.7	15.8	1.056	1.1	83
북한	25.8	0.5	19.8	21.3	70.8	9.3	1.062	1.9	72

주: 성비는 출생 여아 1인당 출생시 성비

자료: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보도자료,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p. 12.

3. 정책적 시사점: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 중심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북 지원사업과 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면 다음의 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표 V-3〉 참조).

첫째, 교류협력사업은 대북 지원사업이 재개되면 북한의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와 함께,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를 지원해서 여성의 생활의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더 나아가 개발협력사업으로 기저귀, 생리대 공장을 설립하고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북한의 모성과 양육 관련 분야는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남북 간 모성과 양육 분야의 격차 제로를 목표로 취약지역, 저소득층 가정 중심으로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분유를 지원한다. 향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분유공장 설립을 지원한다.

넷째, 북한 영유아들은 장난감, 동화책, 교재·교구, 자전거, 유모차, 키보드 등의 놀이기구나 유아용품들을 구비하지 못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의류나 신발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처음에는 바자회 방식이나 중고장터를 통한 물물 교환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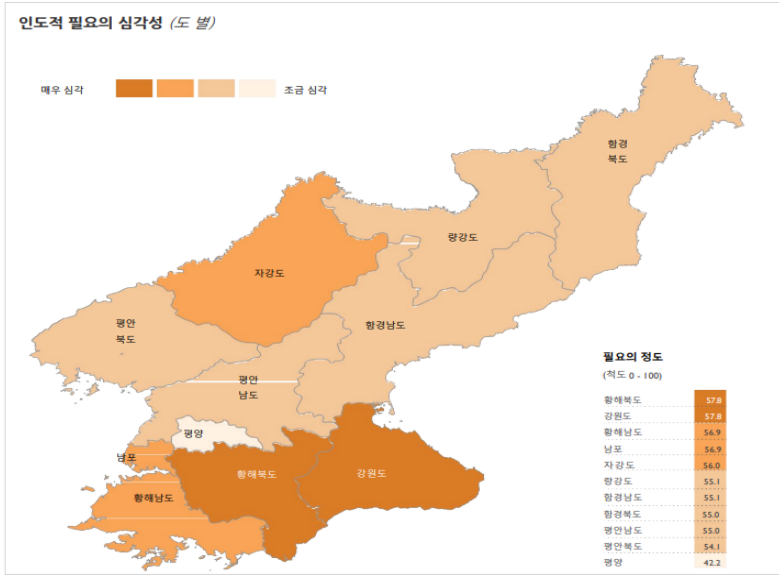
〈표 V-3〉 남북 모성과 양육 분야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분야		현황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방안
모성	생리대·기저귀	- 천생리대, 천기저귀 대부분 사용	- 일회용생리대, 기저귀 공장 건설
	임신·출산	- 모성사망률 개선(파상풍 면역 84.1%) - 병원 출산 시, 이불, 옷, 음식, 빨감 등을 가지고 가야 함.	- 모성사망률 감소를 위한 취약지역, 저소득가정에 의약품 지원 - 산원에 물품 지원
	모유수유	- 모유수유 비율 99.6%	- 모유수유를 못하는 산모를 위한 분유 지원 *분유는 끓은 물이 필요하므로 전기, 난방 시설 설치
양육	발육상태	- 만성영양부족 19.1%	-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의약품 지원
위생	식수	- 농촌 식수 오염 가구 45.2% - 우물을 아무 처리하지 않고 먹는 비율 83.2%	- 수도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정환경	동화책, 장남감	- 가정에 3권 이상 도서 구비 50.3%, 10권 이상 2.3%	- 취약지역, 저소득가정에 동화책, 장남감, 인라이스케이트 지원
보육·교육	탁아소, 유치원	- 탁아소, 유치원에 다니려면 도시락을 싸 가야 하며 빨감비(화목대)를 내야 함.	- 탁아소, 유치원에 직접 식량, 옷 등 지원 - 탁아소, 유치원의 전기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자료: 조성은,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사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pp. 345~346에서 일부 발췌하여 필자 재구성.

끝으로 대북 지원사업은 북한의 취약계층, 취약지역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류협력사업은 북한 전 지역에 골고루 실시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다음 지도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표기한 것인데, 색깔이 진할수록 인도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다. 향후 대북 지원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지역 중심으로 필요한 물자를 지원한다.

<그림 V-1> 북한의 인도적 지원 필요 우선지역



자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2020,” p. 20.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일규 외.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서울: 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2.
- 김동식·송효진·동제연·이인선.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1.
- 박영자. 『북한 여자』. 서울: 엘피, 2017.
- 안현민·심진아. 『북한 여성 생리 관련 실태-이런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요』.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 오나 도나스 지음. 송소민 옮김. 『엄마됨을 후회함』. 서울: 반니, 2016.
-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이운진·김아름·이민경·박영자·김화순. 『남북한 여성가족 통계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2016.
- 이운진·구자연.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분야 통합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3.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최장호·권율·최유정·이대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홍제환·김석진·최지영·김수경.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황나미·최정수·김소운. 『통일한국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 전략』.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UNFPA. *My Body is My Own*. New York: United Nation Population Fund, 2021.
- WHO et al.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Geneva: WHO, 2019.

2. 논문

- 김석향·박민주.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3집 1호, 2016.
- 김영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권 4호, 2014.
- 김정혜.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法學論叢』. 제27집 1호, 2020.
- 신희영·이혜원·안경수·전지은.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 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8권 2호, 2016.
-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 2006.
- 천희란. “지표로 보는 한국여성의 재생산건강.” 『보건복지포럼』. 제235호, 2016.
- 황나미. “북한의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도 및 우선순위 보건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92권, 2012.

- Bray, Freddie et al. “The ever-increasing importance of cancer as a leading cause of premature death worldwide.” *Cancer*, vol. 127, no. 16, 2021.
- Gersten, Omer and John Wilmoth. “The Epidemiological Transition and Cancer Transition Theories.” *Demographic Research*, vol. 7, no. 5, 2002.
- Oman, Abdel R. “The epidemiologic transition. A theory of the epidemiology of population change.” *Milbank Mem Fund Quarterly*, vol. 49, no. 4, 1971.
- Starrs, Ann M. et al.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Guttmacher–Lancet Commission.” *The Lancet*, vol. 391, no. 10140, 2018.
- Sung, Hyuna et al. “Global Cancer Statistics 2020: GLOBOCAN Estimates of Incidence and Mortality Worldwide for 36 Cancers in 185 Countries.”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vol. 71, no. 3, 2021.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자유아시아방송』.

AP news.

NK news.

고운맘카드 <<http://ah.korea-ins.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법제처 <<https://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ksm.or.kr/>>.

위키문헌 <<https://ko.wikisource.org/wiki>>.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unescokor>>.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

통계청 <<https://kosis.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https://kostat-sdg-kor.github.io/>>.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

한국다양성연구소 <<https://www.diversity.or.kr/colum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

한국마더세이프 <<https://mothersafe.or.kr/>>.

DPR Korea UN <<https://dprkorea.un.or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https://millenniumindicators.un.or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UNFPA <<https://www.unfpa.org/>>.

UNICEF <<https://www.unicef.org/>>.

UN Doc. E/CN.4/RES/2003/28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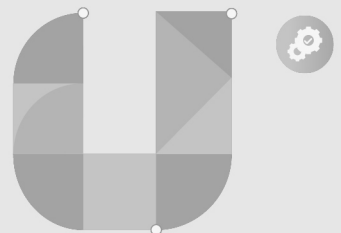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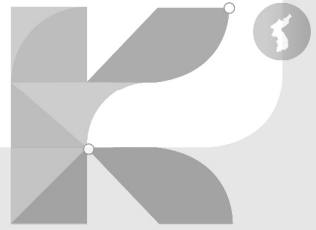
UN Doc. CEDAW/C/PRK/1 (2002).

UN Doc. E/C.12/2000/4 (2000). 재인용: 최세문.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토픽리뷰 세미나발제 자료(비공개). 2004.5.11.

이소희. “북한의 의료체계 및 탈북민 특성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

민의 진료 현황 분석 및 질병 관리 방안 제안』. 국립중앙의료
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제10차 심포지엄 자료집. 2016.11.23.
주성홍. “북한이탈여성의 보건문제-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경험한 산부
인과적 임상 특징-.”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2018.5.30.
최세문.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토픽리뷰 세미나발제자료(비공개).
2004.5.11.

부 록



부록 1. 심층면담 질문지

면담지

- 위탁과제; 북한의 성과 재생산 권리(II): 모성과 양육

〈심층면담 질문 내용〉

-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주세요(출생년도, 출생지역, 학력, 직업, 결혼연도, 탈북연도, 입국연도 등).
 - 북한의 배우자와 같이 온 경우, 배우자의 인적사항도 말씀해주세요.
- 북한에서 경험한 임신 및 출산연도, 자녀 현황,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 지금부터 귀하께서 경험하신 여성으로서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경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흐름은 산전 경험(생리)과 결혼이후 가족계획, 임신·출산,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리]

- [생리 용품 접근성] 북한에서 생활하실 때, 생리용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셨는지요?.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 물품을 기억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 가운데 주로 사용했던 용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생리 용품 접근성] 앞서 말씀해 주신 생리용품을 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생리 용품 접근성] 앞서 말씀해 주신 생리용품의 하루 사용량, 가격, 구입방법, 사용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족계획]

- (북한 거주시를 기준으로, 이하 동일) [가족계획에서의 본인의 의사 반영] 귀하가 원하는 자녀수는 몇 명이고 터울은 어느 정도 두고 출산할 계획이었나요? 임신 전에 배우자와 이러한 가족계획에 대해 상의하셨나요?
- [가족계획 방법] 배우자와 가족계획에 대해 상의하였다면, 가족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은 다음의 예(임신 시기, 자녀 수, 피임 방법 등)에서 주로 어떤 방식을 활용하셨나요?
- [피임]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피임] 가족계획을 위해 피임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떤 피임방법을 사용하셨는지요? 귀하 가정의 피임방법 선택은 부부가 서로 조율하여 결정하였는지요? 혹은 귀하의 주도적 판단 하에 결정하셨는지요?
- [임신] 귀하는 결혼 후 언제 첫 임신을 하셨는지요? 본인이 원해서(계획대로) 임신하셨는지요?
 - 두 번째(이상) 임신은 언제 하셨는지요? 본인이 원한 자녀 터울이었나요?

- [낙태] 가족계획의 한 방법으로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귀하는 낙태 경험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하게 된 이유, 낙태 방법, 그리고 낙태 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신·출산 관련 제도 : 직장내, 의료서비스 이용 등]

- [산전 사회적 배려] 북한에서 임신한 근로자(노동자)에 대해 출산 준비와 출산 이후 회복을 위한 출산휴가 혹은 출산 이후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다면, 자녀별로 모두 말씀해 주세요.
- [산전 사회적 배려] 출산 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했다면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였으며 이에 대한 회사(근무지)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귀하가 휴직을 결정하는 선택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배우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산전 의료서비스] 산전 정기검진을 받으셨는지요? 첫 수진시기, 검사 횟수(또는 검사 주기; 예) 임신초기·중기·말기별 검사 횟수, 검사 서비스(엽산 복용, 파상풍 접종), 검사 비용, 검사 만족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검사 받기 위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병원(의사)은 어떻게 선택하셨는지요?
 - 병원은 다니기 편했는지요?(지리적 접근성)
 - 원격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²³¹⁾

231) 김정은 시대에는 먼거리 수술지원체계, 먼거리 의료봉사체계 등의 보건의료체계가

- [출산 및 산후 의료서비스] 출산은 정기검진을 받은 병원(의사)²³²⁾에서 출산하셨는지요? 아니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장소(예: 가정)에서 출산하셨는지요? 출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출산방법: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선택 여부
 - 입원기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에 따라 입원날짜 차이
 - 출산 후 첫 모유 시기, 산후 2개월 비타민A 복용 등
 - 출산 비용
- [산후조리] 산후조리는 누가, 얼마동안 해주셨는지요? 본인이 희망한 사람(예: 친정어머니)이 해 주셨는지요? 배우자의 참여는 어느 정도인지요?
 - 가족(예: 친정어머니, 배우자) 이외에 산후조리를 위해 별도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산후조리 도움이 수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후조리를 도와준 분(배우자, 친정어머니 등)은 직장에서(산후/출산) 휴가를 받아서 사용하였는지요?
 - 출산 후, 산모 건강 회복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셨는지요?
 - 산후 합병증, 산후 우울증 등과 같은 출산 후유증은 없으셨는지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 [모유수유] 모유 수유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었고(희망기간) 실제 하셨는지요

변화함. 신희영 외,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8권 2호 (2016), pp. 181~211.

232) 북한은 1차, 2차, 3차, 4차 의료기관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선택권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 필요

[자녀 양육]

- [양육: 건강] 신생아~영아 자녀(만 1세 이전)의 예방접종, 정기 검진, 이유식 시작 시기와 종류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 지정의 필수예방접종 종류와 비용, 예방접종 시 어려운 점 등
 -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유무
- [양육: 보건·위생] 신생아~영아 자녀의 식수, 배설물 처리 방법, 기저귀 처리 방법 등에 말씀해 주십시오.
 - 분유를 먹인 경우 언제부터 시작했고,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 귀하는 분유와 모유 중 선택을 본인의 의지로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양육: 가정내 환경] 가정에 자녀 독방이 있었나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자녀와 한방에서 지냈나요?
 -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장난감, 동화책 등이 구비되어 있나요?
 -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는 무엇인가요?
- [양육: 탁아소 이용] 직장 복귀를 위해 자녀를 탁아소에 맡겼다면, 언제부터 인가요? 직장 복귀 외에 탁아소를 이용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탁아소 선택권 유무, 탁아소 하루 일과, 탁아소 이용 만족도 등
- [양육: 배우자의 지원] 자녀양육 및 가사일에 배우자는 어느 정도 참여했나요?
 - 자녀양육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정보 습득]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정보는 어디서 주로 습득하시나요? 북한에서 이러한 정보는 제공하는 공식 기관이 있나요? (예: 한국에서는 공적 기관으로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

가정지원센터 등이 있음)

- 북한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가장 보람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모성]

- 귀하는 어떠한 어머니가 되고 싶으셨나요? 이상적인 어머니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귀하가 희망하는 어머니상이 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태교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노력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남북한의 모성과 양육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북한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 정책에서 필요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2. 노동신문 육아관련 기사 정리(2012~2021)

노동신문 육아관련 기사 정리(2012~2021)

가. 2012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2.1.31.(4면)	후대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어버이사랑 - 근20년간 수도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수십만 t의 콩우유 생산공급, 콩우유차들의 주행거리 1520여만 km	·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제일 좋은 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012.2.19.(4면)	사랑의 축복 속에 꽃피는 재능 -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조류정어린이와 평양갈림길중학교 김현희학생의 그림, 붓글씨 작품집을 보고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워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2012.5.2.(5면)	미래를 위해 바치는 순결한 마음 - 중앙은행 황해북도지점 일군들과 종업원들	· 우리 당은 제일 좋은 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012.5.11.(5면)	미래를 위해 바치는 뜨거운 마음 - 강원도 소아병원 의료일군들	·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는 것은 나라의 전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2.5.19.(4면)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는 송고한 후대관이 안아온 내 조국의 자랑 - 제20차 국제청소년쇼팽피아노경연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 1등상과 특별상 쟁취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2.5.24.(4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어린이들의 운명을 통해 본 판이한 두 제도.	·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2012.5.26.(4면)	국제무대를 뒤흔든 선군조선의 행복동이들 - 경상유치원 기타4중주단공연 모스크바국제축전에 서 대파문	
2012.5.26.(4면)	조선의 어린이들이 부럽다 - 외국인들의 반향중에서	· 학생 청소년들을 위해 이처럼 황홀한 공전이 일떠섰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사랑에 머리가 숙여진다. 궁전소조실들의 운영은 물론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정말 특색이 있다. 조선의 교육체계가 제일이다.
2012.5.27.(5면)	친근한 길동무 - 〈아동문학〉	· 오직 우리 식 아동 문학만이 우리 어린이들을 주체가 선 조선의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2012.5.27.(5면)	태양의 축복받은 내 조국의 행복동이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 6.6절경축행사소식에 접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폭풍같은 반향	· 우리 혁명의 계승자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미래인 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니다.
2012.5.27.(5면)	국제 아동절의 유래	
2012.5.27.(5면)	영원한 사랑의 메아리	·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혁명의 미래입니다. ·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량할 때 우리도 명량하고 너희들이 잘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 어서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무럭무럭 커서 나라의 훌륭한 기둥들이 되거라.
2012.5.31.(4면)	미래를 사랑하라!	· 혁명가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보다도 내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라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2012.5.31.(6면)	영원한 사랑이 있어 세상에 부럼없는 이복의 어린이들 - 남조선인민들이 경탄	
2012.6.1.(4면)	걸음걸음 사랑과 정을 담아	· 우리 민족의 장래는 후대들을 어떻게 육성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2012.6.1.(4면)	세상을 놀래우는 음악신동들이 여기서 자란다.	· 우리 당은 제일 좋은 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2012.6.2.(4면)	잊을 수 없는 모임 - 김성주소학교에서	· 당의 품을 떠나서는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배울수도 없고 아름다운 이상을 꽃피울수도 없습니다.
2012.6.2.(4면)	모르고 받는 혜택	
2012.6.2.(4면)	송고한 후대관을 전하는 사랑의 친필	
2012.6.2.(4면)	각지에서 6.1국제아동절을 즐겁게 맞이	·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좋은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2012.6.2.(4면)	축복 속에 활짝 피어난 행복동이들의 웃음꽃 - 은정어린 유희기재들을 받아안고 6.1국제아동절을 맞이한 경상유치원 어린이들	
2012.6.2.(4면)	꽃과 뿌리	·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고 혁명의 계승자들입니다.
2012.6.2.(4면)	6.1 국제아동절 62돏기념 친선련환모임 진행	·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입니다. -김정은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2.6.5.(2면)	아동도서를 더 많이, 더 좋게	·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 특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2.6.6.(2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혁명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입니다. ·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2012.6.10.(2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2012.6.10.(3면)	가장 훌륭한 것을 후대들에게	· 새 세대들은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다.
2012.6.11.(2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영원한 제일중대 사이다	·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2012.6.11.(6면)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라는 명언을 내놓으신분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이신 김일성주석이사이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후대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였다. 이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해방직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첫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시였던 것이다. 조선에서 수십년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반적 11년 의무교육도 그이의 숭고한 후대관의 결실이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해마다 아무리 바쁘시여도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에 꼭꼭 참가하시였다. ·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하신 후인 1990년대 후반기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과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하여 최악의 시련을 겪을 때에도 조선에서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비롯한 아이들을 위한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었다. 엄혹한 식량난속에서도 매일 콩우유차들이 아이들을 찾아 달렸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그의 풍모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는 참으로 많다.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나라, 조선의 미래야말로 창창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다. 김정숙탁아소는 현대적인 어린이보육교양기지로 꾸러졌다.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듯 훌륭한 탁아소를 지어주고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있다.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송고한 후대관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다.
2012.6.22.(6면)	어린이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사회주의 나라	
2012.6.27.(4면)	복받은 어린이들 경상 탁아소에서	·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2012.6.27.(4면)	고운 꿈이 커가는 집 - 경상유치원을 찾아서	· 어린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012.6.27.(4면)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희망의 나라 더 활짝 펼쳐라 - 새로 건설된 평양창전소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자기자신과 자기세대를 위하여서뿐만아니라 후대를 위하여 훌륭히 미래를 마련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산 위인들의 불명의 령도업적이 깃든 우리 학교를 전국의 본보기학교로 더욱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2.7.15.(5면)	사랑의 축복받은 행복동이들 - 평양대동문유치원을 찾아서	· 우리의 어린이들은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2012.7.22.(1면)	절세 위인들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워 나가자 - 경상유치원 종업원들의 꺾기모임	
2012.7.22.(4면)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 뜨겁게 넘쳐나는 평양아동 백화점 - 명당자리	· 바로 여기서 자식들에게 고운 옷도 사입히고 학습장도 한가방씩 사가지고 가 공부를 시키곤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손자손녀들을 앞세우 고 오니 정말 생각이 많아지오. ·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와 함께 건물들의 위치가 다 달라졌는데 이 평양아 동백화점만은 변함없이 여기에 자리잡고있구만요. 만수대언덕아래 바로 이 명당자리에 말이예요.
2012.7.22.(4면)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 뜨겁게 넘쳐나는 평양아동백화점 - 아이들로 흥성이는 실내놀이터	·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 더 활짝 웃어라, 마음껏 놀아라. 무럭무럭 어서 자라 크나큰 그 사랑에 보 답하거라.
2012.7.22.(4면)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 뜨겁게 넘쳐나는 평양아동백화점 -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좋은 사회주의제도에서 행 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2012.8.14.(4면)	지능 계발을 방법론있게	· 어린이들의 지적발육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2012.8.14.(4면)	미래를 위해 바쳐가는 뜨거운 마음	· 우리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12.8.14.(4면)	혁명전 어린이교육을 이들처럼 참신하게 하자 - 경상유치원에서	·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문제는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 제입니다.
2012.9.29.(4면)	후대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온정깊은 사랑 - 남포시 원아들과 어린이들이 첫물감을 받아안았다	·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모든 원아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을 부강조국건설의 기동감들로 역세게 키우겠습니다.
2012.10.7.(5면)	사랑의 축복 속에 꽃피는 재능 - 평양대동문유치원에서	· 우리의 어린이들은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 편지와 사진을 기쁘게 받아보았다. 앞으로 훌륭한 재능을 더 활짝 꽃피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거라.
2012.10.31.(1면)	어머니당이 후대들에게 베푼 또 하나의 뜨거운 사랑 -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원 원아들 에게 은정어린 꿀이 전달되었다	
2012.11.14.(4면)	날로 더해만 가는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2012.11.17.(4면)	복동이	· 우리 항명이가 잘나서이겠습니까. 외진 섬초소에서 남편들과 함께 조국을 지켜가는 군인가족들이 미덥고 대견하시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것입 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주신 후부터 우리 애는 항명이라는 이름대신 복 동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젠 그게 이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012.11.17.(4면)	숙소의 탁아소	· 인민들은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으며 우리 당을 어머니 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2.11.20.(2면)	후대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는 뜨거운 사랑 - 당의 은정이 깃든 물고기가 혁명학원들과 평양시내 유치원, 탁아소들에 전달되었다	

나. 2013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3.1.7.(2면)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친어버이사랑	
2013.1.13.(4면)	보건사업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 드높은 열의 - 보건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2013.1.16.(2면)	원아들에게 베푸신 뜨거운 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친혈육의 정으로 혁명학원원아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신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였으며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계승자들로 자라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였습니다.
2013.1.16.(4면)	후대사랑의 송고한 뜻 받들어 - 평안남도검찰소 일군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생활은 자기 개인과 자기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영원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생활입니다. · 그곳 교양원들을 만나보면서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보살펴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가 그 애들을 친부모된 심정으로 도와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저번에 예술소품공연을 하는 원아들을 보며 그들을 더 잘 내세워주고싶은 마음에서 마련했을 뿐입니다.
2013.3.17.(4면)	든든한 뿌리있어 열매가 주렁진다 - 뛰어난 재간둥이들을 키워낸 교육자들의 사업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워나갈 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2013.4.3.(4면)	희망의 나라를 더 활짝 펼치라 3중영예의 붉은기 평양창전소학교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어린이들은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3.4.10.(2면)	제일 좋은 곳에 아이들의 궁전을	·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후대들을 키우는데 바치신 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2013.4.13.(3면)	원수님과 아이들	·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2013.4.19.(5면)	어린이들을 위해 바친 뜨거운 지성 평안북도소아병원에서	·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5.4.(4면)	우월한 보건제도를 마련해주시어	·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입니다. ·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
2013.5.17.(5면)	미래를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평안북도 소아병원 의료일군들	·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 품모입니다.
2013.5.22.(4면)	원아들을 위해 바치는 진심 평안북도육아원 축산기지를 찾아서	·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는 것은 나라의 전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3.6.1.(5면)	태양의 축복안고 더 밝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국제아동절을 맞는 경상유치원을 찾아서	·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혁명의 미래입니다. · 끝없이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유치원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3.6.2.(4면)	각지에서 6.1 국제아동절을 즐겁게 맞이	·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둥감들이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민족이 흥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며 조국이 빛나게 됩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3.6.2.(4면)	6.1 국제아동절 63돐기념 친선연환모임 진행	
2013.6.5.(4면)	활짝 피어라, 활짝 피어라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을 찾아서	·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2013.6.12.(5면)	미래를 키우는 위대한 사랑의 품	· 이북의 어린이들이 부르는 <장군님과 아이들>은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부르는 행복의 노래이다. ·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는 이북민중모두가 한목소리로 터치고 한마음으로 노래하는 가식없는 진정의 말이며 행복과 기쁨의 상징어이다.
2013.6.12.(6면)	밝고 창창한 조선의 미래	·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어린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미래이다. 후배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 성쇠를 좌우한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온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새 교복을 마련해주시고 새웃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너무도 기쁘시여 몸소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시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아직도 생생하다. 또한 산골마을 세쌍둥이를 위해 직송기까지 띄워 주신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후대사랑이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 있다. 그 사랑이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 있다.
2013.6.20.(5면)	네쌍둥이를 위해 바친 뜨거운 정성	·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일군들이 지켜야 할 정신도덕적 품모입니다.
2013.7.14.(2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신 기념보고회 진행	
2013.8.9.(5면)	활짝 피어라 행복한 꽃봉오리들아 - 신의주시 남송지구탁아소를 찾아서	·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3.9.26.(2면)	송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 김정일애국주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송고한 후대관으로 하여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안겨옵니다.
2013.9.30.(4면)	지덕체의 나라를 활짝 펼치며 - 소조실들을 찾아서	· 오직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평양학생소년궁전과 같은 큰 궁전에서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2013.10.6.(1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 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2013.10.13.(5면)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 수도의 여러 공원을 돌아보고	·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2013.10.14.(4면)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 속에 궁궐같이 일떠선 옥류 아동병원 개원식 진행	·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시던 사업들을 총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이상과 염원이 이 땅위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3.11.9.(5면)	후대사랑의 전설같은 역사를 펼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 귀중한 모든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되며 어린이모두가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는 이북민중모두가 한목소리로 터치고 한마음으로 노래하는 가식없는 진정의 말이며 행복과 기쁨의 상징어이다. 상상만으로도 그 신비경에 찬탄이 터져나오거늘 그 신비의 세계에서 왕으로 되고있는 북의 어린이들이 어찌 세상에 부럼없다고 세계를 향해 소리치지 않겠는가. 북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정녕 나라전체가 행복의 요람이며 기쁨의 동산이다. · 이북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국가의 혜택속에 북을 누리고 있다. 행복에 겨워 웃음지으며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고 노래부르는 새 세대들의 모습은 이상세계의 전부이며 21세기의 밝은 미래이다. · 세상에 2명의 아이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악기들과 교구비품들도 그쁘히 갖추어주는 나라는 오직 이북밖에 없다. 우리 량주가 돈을 들이며 아이를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키워보겠다고 애를 태우고있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고 이북민중이 정말 부러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로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화폭들이었다. 나라의 축복속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장면과 소년궁전에서 학생들의 과외 학습장면, 묘향산에서의 야영생활장면 등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쉬운 장면들이었다. · 교육이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는 여기 이남땅과는 너무나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후대교육과 참인간육성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새 세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키우는 이북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남땅에도 그런 세상이 어서 와야 한다. · 이북의 청소년교육교양사업이 국가적대사로, 전사회적인 과제로 되고있는 것은 후대교육을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훌륭한 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어린이를 보라는 말이 있다. 어린이는 바로 그 나라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북에서는 어린이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제일 좋고 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이북의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다. 이북은 민중의 나라이며 어린이들의 천국이다.
2013.11.11.(2면)	후대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2013.11.17.(5면)	동심을 반영한 새 노래와 유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그들의 정서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2013.11.27.(2면)	노동계급과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준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	

다. 2014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4.1.11.(3면)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 새겨안고 더욱 분발 - 황해북도의 당일군들	·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우리 당과 함께 꺾듯이 이어가는 참된 동지,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2014.1.17.(4면)	당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 - 팔영령 분교를 스스로 맡아 건설한 정주청도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	·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라는것입니다.
2014.1.20.(5면)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빛내이는 종합적인 치료 봉사기지 -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문수기능회복원을 찾아서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 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 현대적인 설비들을 마음껏 이용하며 기능회복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눈앞에서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 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료 및 봉사기지를 훌륭히 꾸릴 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땅위에 천가지, 만가지의 행복을 펼쳐주십니다. ·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치료봉사활동을 더욱 개선하며 우리 인민들이 당의 은덕을 폐부로 느끼며 건강한 몸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열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4.1.22.(5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는 뜨거운 마음 - 선교구역 룰곡유치원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인민군군인들	· 우리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14.1.25.(2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러	· 우리는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2014.1.27.(5면)	세쌍둥이가정에 바쳐진 지성	
2014.2.5.(4면)	행복만 넘치는 집	· 온 사회에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시대의 영웅들과 공로자들을 내세워주며 후대들을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더욱 꽃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4.2.5.(4면)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이 행복 끝없어라.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따뜻한 보금자리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2014.2.5.(4면)	눈물속에 전하는 이야기 - 겨울을 모르는 육아원 세쌍둥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2014.2.5.(4면)	아버지!	·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력사에 관통되어있는 고귀한 혁명정신입니다. ·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있습니다.
2014.2.8.(4면)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들의 위험성과 그 예방대책	·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4.2.14.(4면)	조국의 미래를 위한 뜨거운 사랑	·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끼울것이 없습니다.
2014.2.18.(6면)	조선어린이들의 천국 - 월남인터넷 옥류아동병원을 소개	
2014.2.19.(4면)	어머니당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활짝 꽃피워나가자 -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 종업원결기모임 진행	
2014.2.24.(2면)	옥류아동병원과 전국의 소아병원들을 연결하는 먼 거리의료봉사체계 새로 수립	·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의료봉사조직도 잘하여야합니다.
2014.2.25.(2면)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넘치는 평양애육원과 평양 시육아원을 돌아보고	· 새 세대들은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다. 혁명의 전도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2014.3.27.(1면)	우리 당의 사랑이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하자 -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종업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2014.3.30.(2면)	북변 땅에 어린 은혜로운 사랑	· 우리 당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제일 좋은 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014.4.6.(5면)	어린이 건강관리와 부모들의 역할	· 어린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키우며 그들에게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2014.4.8.(2면)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는 은혜로운 사랑	· 새 세대들은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다. 혁명의 전도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새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2014.4.21.(4면)	세대를 이어 올려퍼지는 영원한 충정의 노래 - 평양 제4소학교의 교원, 학생들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자면 혁명적수령관을 세워야 합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4.5.11.(3면)	태양의 축복받은 새 세대들의 기쁨과 행복 끝없어라 -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첫기 야영 시작, 다채로운 체육문화행사 진행	
2014.5.13.(1면)	세상에 부럼없어라	· 후대들의 밝고 명량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2014.5.14.(4면)	따사로운 햇빛아래 만발하는 꽃송이들 - 평안북도 룡천육아원을 찾아서	·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2014.5.23.(5면)	민족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2014.5.25.(5면)	학생소년들의 꿈과 희망 내려퍼는 곳 -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찾아서	· 앞으로 학생소년궁전과 청소년회관들에서 예술소조뿐아니라 물리소조, 체육소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소조활동을 활발하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14.6.1.(2면)	송고한 후대사랑을 전하는 이야기 - 병원에 펼쳐진 동화세계, 동시에 받는 혜택	
2014.6.1.(2면)	세상에 부럼없어라	·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 목표입니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됩니다.
2014.6.1.(2면)	아동단원들과 함께 걸으신 행군길	· 우리의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런 위대한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2014.6.1.(4면)	재능의 나라를 마음껏 펼쳐가는 행복동아들 - 국제아동절을 맞는 중구역 대동문 유치원을 찾아서	· 조국의 앞날과 민족의 전도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음악교육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이 유치원의 조기 음악교육으로부터 대학에 이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거치며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 밖에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의 사랑을 받는 연주가들로 자라난 제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은 남다를 긍지로 설레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교육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2014.6.2.(1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었다	
2014.6.2.(4면)	행복의 요람에 넘쳐나는 아버지사랑	
2014.6.2.(4면)	6.1 국제아동절 64돏기념 친선연환모임 진행	
2014.6.22.(5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있습니다.
2014.6.23.(2면)	후대사랑의 정과 열이 굽이친 뜻깊은 하루 - 국제아동절에 펼쳐진 감동깊은 사연을 더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 목표입니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됩니다. · 그 돈으로 헐벗은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입힌다면 어머니도 이뻐하실 것이다.(어머니,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곁을 떠난지도 네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딱한 고비를 여러번 겪으면서도 장래를 생각해서 그럭저럭 보존해 왔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20원을 소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벌이가 하나도 없는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혀야겠습니다. 장차 이보다 더 험한 고비가 있을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마음먹고 택한 결심이니 어머니도 지지해주시시오. 아이들을 유달리 좋아하는 저의 성미를 어머니야 잘아시지 않습니까)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4.6.26.(4면)	수도의 어린이들이 받아안은 은정깊은 포도	
2014.7.15.(5면)	모성영웅과 평양산원	· 환자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의 집중적 표현입니다.
2014.8.12.(2면)	원아들의 웃음소리	·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투쟁 목표입니다.
2014.9.6.(3면)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 이 열걸음 떠진다	
2014.9.19.(5면)	행복의 요람에 넘쳐흐르는 은혜로운 사랑	
2014.9.22.(3면)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볼 때마다	·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2014.10.5.(4면)	옥류아동병원을 자랑합니다.	
2014.10.28.(1면)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이 떠올린 행복의 요람 - 평양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잘 키워야 합니다.
2014.11.1.(3면)	우리가 인거사는 따뜻한 품 - 옥류아동병원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들을 읽고	·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으며 자기 두리에 인민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있습니다.
2014.11.6.(1면)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워나가자 - 평양육아원, 애육원 종업원들의 께기모임	
2014.11.7.(3면)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이 행복의 새 요람에 보 금자리를 폈다.	
2014.11.8.(2면)	원아들의 공전에 넘치는 아버이 뜨거운 정	·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2014.11.13.(5면)	사랑의 꽃수레를 타고	·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입니다.
2014.11.13.(5면)	하늘땅에 넘치는 감사의 인사-아버지원수님 고맙습	·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끼울 것이 없습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니다. 사랑의 새 보금자리에서 꽃피는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 원아들의 행복한 생활. 노동당 시대의 복받은 귀동자, 귀동녀들	
2014.11.13.(5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장래운명을 걸머지고나갈 보배들입니다.
2014.11.13.(5면)	세상에 부럼없어라	
2014.11.16.(5면)	군인가정과 세쌍둥이	·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자기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 2015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5.1.2.(1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시였다.	
2015.1.4.(4면)	새해 첫날 원아들과 함께 - 황해북도육아원에서	·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동감들이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입니다.
2015.1.15.(5면)	복둥이들과 불운아들 - 행복의 단면과 불행의 일단을 돌이켜보며	· 나는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갈 결심을 더 굳게 다지곤 합니다.
2015.1.19.(1면)	올해의 첫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 우리 나라처럼 국가가 어린이로부터 애기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 평양산원에서	돈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2015.1.25.(5면)	따사로운 햇빛아래 만발하는 재능의 꽃 - 노래집 <원수님 그 품속에 우리 자라요>를 펼치며	· 음악적소질은 어린시절부터 나타나는것만큼 그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일찍 부터 키워야 음악적재능이 더욱 빛이 나게 할수 있다. · 솔직히 작곡이라고 하면 전문가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창작의 세계가 아님 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뛰어난 소질을 가진 윤정이를 잘 이끌어주면 꼭 훌륭한 작곡가로 키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1.26.(5면)	판이한 두 사회, 아이들의 낙원과 지옥	· 학대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폐쇄하라. ·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였다.
2015.1.29.(5면)	아버이 사랑 속에 이 땅의 미래는 더욱 밝다 -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한해 생활을 돌이켜 보며	·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은 자기자신과 자기 세대를 위해서뿐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것입니다.
2015.1.29.(5면)	우리 원수님과 원아들	
2015.1.29.(5면)	감탄의 목소리	· 놀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조선의 평양에 고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이 훌륭하게 일떠섰다는 소식을 들었을때만해도 모든 것이 이처럼 최상최고의 수준일줄은 미처 몰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족들만이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도 고아들을 위한 복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할 것이다. 평양뿐아니라 지방에도 육아원, 애육원들이 훌륭히 꾸려져있고 국가적인 관심과 전인민적인 보살핌속에 부모없는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니 조선은 정말 아이들의 왕국, 아이들의 천국이다.
2015.1.29.(5면)	사랑의 궁전에 꽃피는 1월 이야기	·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밝고 명량한 모습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2015.1.30.(3면)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사회주의승리가 비긴다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바로 나라의 꽃봉오리들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높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2015.3.8.(5면)	조선 여성의 값높은 삶의 노래 내 나라의 행복 - 보건사책을 통해 본 우리 여성들의 행복	·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곳 의료일꾼들이 공장에까지 찾아와 자신도 모르고 지내던 병을 조기적 발해주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루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이것은 동무의 권리이기 전에 의무이라고 말하며 이끝 때 저는 울었습니다.
2015.3.15.(2면)	원아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집	·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이 땅위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2015.4.2.(4면)	주체104(2015)년 새 학년도 시작 - 각지 학교들에서 개학식 진행	· 우리는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2015.4.2.(4면)	조국의 미래로 아름답게 피어나거라 - 동대원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신리소학교를 찾아서	· 우리 당과 국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최대한의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있다. · 몇해전에 아들 일영이를 앞세우고 개학날 학교에 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딸과 함께 왔습니다. 올해에도 멋진 새 교복과 함께 책가방, 학용품을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준 당의 후대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저는 오늘 심장으로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2015.4.10.(6면)	국제사회계가 격찬 사랑의 화원에서 사는 조선의 어린이들	
2015.4.22.(4면)	세쌍둥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2015.5.12.(5면)	세쌍둥이 가정에 찾아온 친혈육들	
2015.5.12.(5면)	친부모처럼 위해줍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5.5.21.(5면)	애어린 꽃망울을 누가 지키는가 -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임상제2의학부 소아외과학강좌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껴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5.6.1.(3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집니다.> 김정은 - 위대한 사랑속에 나라의 왕으로 부림없이 자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바로 나라의 꽃봉오리들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높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2015.6.1.(3면)	어린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 싶은 것이 나의 심정입니다.
2015.6.1.(4면)	원아들의 공전은 어버이사랑을 노래한다. -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 우리 원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아이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2015.6.1.(5면)	어린이들이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신비한 황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에 가보아도 모두 부럽다. 김정숙탁아소, 평양산원, 창팡유치원, 평양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참으로 이북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러움과 설음이란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자라고 있다. 인생의 새싹이 뿌리내리고 자랄수 있는 터전이 깡그리 황폐화된 차가운 대지에서 가정적재난에 눈물짓고 온갖 사회악에 물젖어 시들어가는 이남의 어린이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정말 부럽다. · 세상에 2명의 아이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악기들과 교구비품들도 그뿐히 갖추어주는 나라는 오직 이북밖에 없다. 우리 량주가 돈을 들이며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고 이북민중이 정말 부러웠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귀중한 모든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되며 어린이모두가 왕으로 받들리는 나라가 이북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북은 나라전체가 행복의 요람, 가장 만족스런 기쁨의 동산이다. 이북어린이들은 궁전같은 산원에서 출생의 첫울음을 터치고 탁아소에서 재롱의 첫걸음을 땀다. 행복의 유치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희망의 소년궁전과 배움터들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이북의 소년궁전들을 한번만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혹되어 이북의 어린이중시정책과 그 생활력에 감복하지 않을수 없다. · 어린이들을 위하여 야영소에 좋은 문화오락기재와 피아노를 마련해주시고 앞으로 새로 꾸릴 야영소의 표준설계도 보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2015.6.1.(6면)	위대한 사랑의 화원, 행복한 조선의 어린이들 - 국제사회계가 격찬	
2015.6.2.(3면)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6.1 국제아동절을 맞는 어린이들을 축복	
2015.6.2.(4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여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신 1돐과 국제아동절 65돐기념 친선련환모임 진행	
2015.6.3.(3면)	강원땅의 경사 - 원사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성대히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5.6.6.(4면)	우리 원수님과 아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대견한 모습과 정다운 얼굴들을 보니 동무들을 평양으로 뜨겁게 바라워준 소년단원동무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의 부모형제들을 다 만나보는것만 같습니다. ·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2015.6.27.(4면)	원아들의 친어머니가 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비대들입니다. · 보육원들 모두가 원아들을 نرم하게 잘 키워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안고 일합니다. · 놀이감을 좋아해서 낮잠도 자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물놀이를 특별히 좋아하는 원아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 원아에게 알맞은 교양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개성을 꽃피워주고 잘 이끌어준다면 누구나 앞날의 쓸모있는 역군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2015.6.29.(4면)	밝은 미래와 아름다운 꿈 꽃피워주는 위대한 사랑의 꿈 - 원산육아원, 애육원에서 아버지 그 사랑 하늘에 비기랴, 바다에 비기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2015.7.11.(5면)	무대위에 펼친 동화세계, 아이들의 웃음꽃바다 - 평양 인형극단의 평양시와 원산시에서의 공연활동 둘 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 공연을 본 소학교 학생들의 나이는 보통 7살입니다. 모든 사물현상들이 사 진기처럼 생동하게 기억되는 이 나이에 상식교육과 지능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오늘의 인형극은 교탁이 없는 하나의 귀중한 수업이었습니다.
2015.8.27.(5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밑거름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미래와 직접 관련되어있습니다.
2015.9.5.(5면)	이런 고마운 품에 안겨 우리 후대들이 자란다 - 당의 은정속에 새로 개건확장된 창광유치원을 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아보며	<p>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속에 이 기계와 함께 1년분의 튀기 용강생이, 사탕가루를 비롯한 원자재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후 또다시 많은 원자재를 실은 차들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우리는 당의 고마운 후대사랑에 목이 메여 울었습니다.
2015.9.18.(6면)	아이들에게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자 - 총련 제 10차 중앙어머니 대회 오사카에서 진행	
2015.9.19.(5면)	어린이들의 자랑모임 진행	
2015.10.3.(5면)	더 밝게 웃어라, 더 활짝 피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2015.11.7.(5면)	원아들의 행복넘친 목소리 - 〈아버지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 평양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복받은 한해를 돌이켜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2015.11.20.(6면)	어린이 보호와 인류의 장래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
2015.12.11.(5면)	옥류아동병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 사리원시 구천4동 43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천성 동무의 가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 아버지 원수님, 저는 오늘 아버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옥류아동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눈을 고치고 퇴원하게 됩니다. · 우리 아동병원아이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아버지원수님께서 다 알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고 계셔요, 그러니 빨리 영양보충도 하고 눈도 고쳐 건강한 모습을 아버지 원수님께 보여드리자요. 알겠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는 아동병원에서 새 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새 눈을 찾아준 여기 옥류아동병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5.12.23.(5면)	올해 평양산원에서 12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 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 2016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6.1.28.(5면)	<p>과학기술전당에 어린이꿈관이 있다.</p> <p>– 겨울철방학기간 쑥섬을 즐겨찾는 학생소년들과 함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아동열람실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있는 딸애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저렇듯 행복한 아이들이 또 어데 있을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어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꿈관이야말로 어머니들이 그려보던 우리 아이들의 궁전, 우리 나라에만 있을수 있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2016.1.9.(5면)	함경북도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2016.1.31.(1면)	<p>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p> <p>– 중앙과 지방의 위생방역기관들사이 실시간감시 통보체계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기야 하겠습니까.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6.2.10.(5면)	행복의 절정에 올라선 원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2016.2.17.(2면)	혁명학원원아들과 전국의 어린이들, 소학교학생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	
2016.3.10.(1면)	육아원, 애육원을 훌륭히 완공 - 자강도에서	·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2016.4.6.(5면)	원아들의 친할머니로 사는 인생의 보람 - 원산시 양지종합진료소 의사 김순복동무에 대한 이야기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안산아동단원들을 위해 바치신 그 소중한 돈 20원을 생각하자꾸나. ...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없듯이 원아들을 위해 바치는 우리의 마음에는 오로지 혈육의 진정만이 가득차있어야한다.
2016.4.15.(5면)	강계, 평성, 사리원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2016.4.22.(3면)	남포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2016.5.1.(6면)	신의주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2016.5.2.(5면)	해주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2016.5.19.(4면)	함흥, 해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2016.6.1.(2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도하신 1돐 기념보고회 진행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6.6.1.(2면)	우리는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우리 후대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김정은 온 나라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 〈세상에 부럼없어라〉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바로 나라의 꽃봉오리들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높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2016.6.2.(4면)	6.1 국제아동절 66돏기념 친선연환모임 진행	
2016.6.6.(6면)	세상에 부럼없는 아이들의 천국 - 남조선 가계가 끝없이	
2016.6.6.(6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아름다운 대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령수님의 숭고한 뜻이 이북을 아이들의 천국으로 면모시켰다. 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자라는 이북아이들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수님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김정은령도자님의 무한대한 사랑의 열도를 느끼군한다. 온 나라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민족의 만족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김정은령도자님을 모시여 우리겨레는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릴 것이다. · 이북에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입양아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린이의 천국이 바로 이북이기 때문이다.
2016.6.8.(3면)	위인을 모시여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후대사랑의 화원 -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선의 행복동아들	· 이 세상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뿐이다.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짜 꽃피울 수 있는 보다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줄 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김정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p>
2016.6.17.(5면)	<p>우리의 집은 당의 품, 세상에 부럼없어라 - 각지 육아원, 애육원들에서 누러가는 원아들의 행복을 두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누가 저 애들을 부모없는 아이들이라 하겠습니까. 어머니당의 품이 있어 이 땅에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 이곳을 돌아보면서 조선혁명과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떠선 육아원과 애육원은 정말 세계최상급입니다. 사회주의사회만이 이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훌륭한 전사로 자라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6.6.23.(4면)	<p>따사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러가는 학생소년들의 기쁨 끝없다. -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위대한 후대사랑의 서사가 엮어진 뜻깊은 하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2016.6.23.(4면)	<p>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온 나라가 밝아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단야영소에서는 학생소년들이 야영기간에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도록 야영생활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2016.9.3.(1면)	<p>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평양시탁아소유치원물자</p>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공급관리소에 콩우유운반차들을 보내시었다	
2016.10.13.(5면)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안고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콩우유가루직장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영예감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와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노동에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 자동조종반에 손가락이 한번 가닿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실비들이 웅웅 돌아가는데 이전엔 여러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다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손도 마음을 막 떨렸습니다. · 우리 힘으로 만든 설비는 고장이 나도 걱정없이 우리 손으로 수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대에 더욱 애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 원수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 하는 것을 생산정상화의 동음으로 보여주겠습니다.
2016.10.16.(5면)	남조선에서 우심해지는 야만적인 어린이학대행위는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치가 낳은 필연적 귀결이다 -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대답	
2016.11.16.(4면)	친어머니된 심정으로	
2016.11.21.(6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어린이인권보호	
2016.11.24.(4면)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 당의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가는 참된 보건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 이제부터 원아들에게 공산유를 만들어 먹이자구요, 소학반나이의 아이들이면 경우 몸을 추켜세우는데서 제일 좋은 것은 흡수률이 높은 공산유거든요.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희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우신 아버지가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 은원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언제나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다.
2016.12.2.(4면)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끝없이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 -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학교들에서 개학식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 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 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2016.12.2.(6면)	나라의 꽃,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조선의 여 성들과 어린이들 - 외국인들의 반향	
2016.12.3.(5면)	조선에서 참다운 아동권리, 여성권리의 실현을 보다	
2016.12.28.(1면)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창조 물들 -올해 20여개의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교, 중등 학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 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하며 그들에게 세상 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바. 2017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7.1.20.(4면)	원아들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또 하나 일떠섰다. - 평양초등학교 훌륭히 개건	·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뉘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2017.1.27.(2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 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 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2017.1.29.(2면)	원아들에게 돌려주신 친어버이사랑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 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 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2017.2.3.(6면)	아이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내일을 보았다. - 외국인들의 반향	
2017.2.6.(1면)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는 원아들의 따듯 한 보금자리, 훌륭한 배움터 - 평양초등학교 준공식 진행	· 우리는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양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 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 으로서 인민의 이상과 꿈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2017.2.6.(2면)	원아들의 가족사진	·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됩니다.
2017.2.8.(4면)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원아들을 강성조선 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키우자 - 평양초등학교 교직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 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 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2017.2.17.(5면)	2월의 조국강산에 흘러넘치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후대사랑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혁명학원원아들과 전국의 어린이들, 소학교학생들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았다.	
2017.2.28.(4면)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 당의 은정 넘치는 평양초등학교를 돌아보고 영원한 태양의 품속에 우리 원아들이 안겨산다	·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2017.3.21.(1면)	후대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	·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7.4.2.(4면)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개학식 진행	
2017.4.3.(3면)	행복의 노래 울릴 아이들의 궁전 - 려명탁아소와 려명유치원을 돌아보고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2017.5.23.(5면)	어린이건강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2017.6.1.(4면)	온세상이 보란 듯이 밝게 웃어라, 활짝 피어라 -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에서	·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 이 모든 것은 주체68(1979)년 5월 11일 유치원 교육단계에서부터 조기음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2017.6.1.(5면)	세상에 부럼없는 아이들의 요람 - 보건성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	·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입니다. ·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제도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을 찡고 우리가 늘 범상히 말하곤 하던 국가적부담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였는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 나라의 귀중한 모든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되며 어린이모두가 왕으로 받들리는 나라가 이북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북은 나라전체가 행복의 요람, 가장 만족스런 기쁨의 동산이다. 이북어린이들은 산원에서 출생의 첫울음을 터치고 탁아소에서 재롱의 첫걸음을 떼다. 행복의 유치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희망의 소년궁전과 배움터들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2017.6.1.(5면)	국제아동절에 담은 여성들의 소원을 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이상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복과 사랑, 이해의 분위기,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2017.6.2.(4면)	6.1 국제아동절 67돛기념 친선연환모임 진행	
2017.6.6.(1면)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조선의 행복동이들 - 국제사회계가 찬양	
2017.6.8.(2면)	세상에 부럼없는 이북의 행복동이들 - 남조선 각계가 격찬	
2017.6.12.(5면)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행복한 어린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어린이를 보라는 말이 있다. 어린이는 바로 나라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북에서는 어린이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제일 좋고 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특히 이북에서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상적인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고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북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국가의 혜택속에 복을 누리고 있다. 이북 새 세대들의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이상세계의 전부이다. · 이북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설음이란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자라고 있다. 이북어린이들은 궁전같은 산원에서 출생의 첫울음을 터치고 탁아소에서 재롱의 첫걸음을 댄다. 행복의 유치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희망의 소년궁전과 배움터들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인생의 새싹이 뿌리내리고 황폐화된 차거운 대지에서 가정적재난에 눈물짓고 온작사 회악에 물젖어 시들어가는 이남의 어린이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정말 부러움을 금할 수 없다. · 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만을 알고 자라는 이북어린이들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무한대한 후대사랑의 열도를 느끼곤 한다. · 김일성주석님께 있어서 민중이 하늘이라면 아이들은 하늘나라의 왕이었다. · 김일성주석님께 있어서 제일 기쁘신 것은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것이였고 그분의 제일 큰 낙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이였다. 현지지도를 하실 때면 탁아소, 유치원, 학교부터 찾으시였고 명절날이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재롱을 부리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시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김일성주석님의 사랑은 우주공간에 끝없이 비쳐가는 햇빛마냥 한계가 없는 사랑, 시공간을 모르는 무한세계의 사랑이였다. · 아이들의 낭랑한 웃음소리와 재롱스러운 모습에 민중의 행복을 위해 기울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모든 심혈과 사랑의 자욱이 어려있다. 대국상으로 온 나라가 피눈물에 젖어있을 때에도 세쌍둥이와 산무를 위해 머나먼 산간 벽지에까지 사랑의 비행기를 띄워주셨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만은 하루라도 번질세라 공우유를 보내주신 아버지, 아영소로 떠나는 아이들을 손저어 배래주시며 전선으로 가신 장군님이시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는 이북의 현실은 이남과는 너무나 대조적. · 이북에는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입양아란 말자체가 없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린이의 천국이 바로 이북이기 때문이다.
2017.6.27.(4면)	수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공원 훌륭히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2017.7.4.(5면)	원아들의 친부모, 학부형이 되어 - 량강도안의 일군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원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국가의 보살핌속에 근심걱정없이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7.8.20.(5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적들과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면서도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그려보군 합니다. ·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2017.8.27.(5면)	어린이성장발육과 영양섭취	
2017.9.5.(4면)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종합공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017.10.17.(4면)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치는 어머니당의 따뜻한 사랑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7.10.22.(5면)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 행복동아들 - 김책시학생소년회관을 찾아서	·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에서 과학기술소조와 체육소조, 예술소조를 잘 운영하면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2017.11.7.(6면)	사랑의 화원에서 복을 누리는 조선의 어린이들 - 외국인들의 경탄의 목소리	

사. 2018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8.1.9.(4면)	위대한 품에 안겨사는 행복동아들 -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걱정 토로	
2018.1.10.(5면)	A형감기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2018.1.28.(5면)	조선인민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감상록을 펼치고	· 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새해의 소원과 우리 인민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어린이 1명당 청음시창교양원, 전차교양원, 담임교양원 이렇게 3명씩 배치되어 배워주고 있습니다. · 조선의 어린이들은 실로 자랑할만한 어린이들입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펼쳐보여준 일생 잊지 못할 공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어린 동무들! 동무들이 있기에 조선은 앞으로 더욱더 강대해지고 번영할것입니다. 사회주의만세! · 조선의 국가령도자들이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었는데 이 사진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p>을 보니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동깊게 안겨옵니다. 아이들을 위해 바치시는 그 로고에 정말 머리가 숙어집니다. 이처럼 자애로운 품속에서 왜 어린이들의 재능이 활짝 꽃피나지 않겠습니까.</p> <p>· 나와 아내는 오늘 조선에 와서 천재들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령도자가 위대하여 인민도 위대하고 어린이들도 이렇듯 위대한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는 조선에서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더 좋은 앞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p>
2018.3.14.(4면)	한 어린이의 소생에 비긴 우리 사회의 참모습	<p>·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p>
2018.3.22.(4면)	한 어린이의 소생에 비긴 우리 사회의 참모습 - 함경남도소아병원 의료일군들과 함흥의학대학 청년대학생들	<p>·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보건사업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기초적인 사업입니다.</p>
2018.4.3.(4면)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개학식 진행	
2018.6.1.(2면)	따사로운 햇빛아래 꽃피는 내 조국의 미래	<p>·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p>
2018.6.1.(2면)	우리 유치원에 찾아오신 수령님	<p>·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다총살림집밀에 탁아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녀성들의 부담도 덜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p> <p>· 다총살림집 몇채를 합쳐서 아래층에 탁아소, 유치원을 만들어 녀성들이 아이들을 업고다나지 않게 하여야 하겠습니다.</p>
2018.6.2.(5면)	6.1국제아동절 68돐기념 친선연환모임 진행	
2018.6.4.(5면)	원아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	<p>· 누구나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p>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 어머니가 보내준 것을 받아안고 모두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학원에 오시면 더 고와진 우리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018.7.20.(6면)	후대사랑의 훌륭한 본보기가 창조되는 조선 - 국제사회가 찬탄	
2018.7.21.(2면)	전화의 나날에 수놓아진 후대사랑의 서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역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2018.7.29.(5면)	우리 당의 장애인보호정책의 생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 있습니다. · 조선의 장애인들이 민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고 재치있는 예술적 기교를 보여주는 것이 놀랍기만 하고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너무도 감동되어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이번공연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높은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 조선의 장애인들은 공화국의 일반근로자들과 다름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 관람자모두가 조선의 장애인들이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제도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어떠한 혜택을 받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하여 얼마나 황당한 허위 선전을 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었을 것이다.
2018.8.2.(5면)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식술된 기쁨과 행복 -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을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화폭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입니다. · 우리 회복원은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과 똑같이 국가공급체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장애자들은 자주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나의 조국을 대표하여 장애가 있건없건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회의 성원으로 되게 하려는 조선의 노력을 적극지지 성원하겠다.
2018.8.9.(5면)	철의 도시의 애기공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황철로동계급의 자녀들을 위한 애기공전이 일떠선 때로부터 어느덧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 우리 공전에는 이런 방들이 수백개나 된답니다. 햇빛이 잘드는 동남쪽으로는 침실, 유희실이 있고 서북쪽으로는 위생실, 목욕실이 배치되어있어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염소들도 많이 키워 아이들에게 영양가높은 염소젖을 정상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해 애기공전까지 일떠세운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황철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애들이 황철의 내일을 떠메고나갈 기둥들이여서 더더욱 정이 간답니다.
2018.8.17.(6면)	국제적관심을 끄는 수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아들은 그 유치원에 다니지 불과 2주일만에 다른 아이처럼 변하였다. 아들은 이전에 비해 쾌활해졌으며 다른 사람들을 즐겨 도와주었다.
2018.8.30.(5면)	어머니들의 판이한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의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마련해주신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2018.8.31.(4면)	2018년 세계어머니 젓먹이기주간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8.9.3.(5면)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어가는 참된 간호원 -은천군인민병원 간호원 안경실동무에 대한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수십년간의 간호원생활을 통하여 저는 환자들을 친혈육으로 대할 때, 자기의 부모나 형제, 자기의 친자식처럼 여길 때 그러한 정성과 헌신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이란 없다는 것을 심장으로 깨달았고 불같은 인간애는 죽음도 이긴다는 것을 진리로 새겨안았습니다.
2018.9.16.(3면)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은천군 덕천리당위원회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 이전에도 야외물놀이장은 있었지만 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소. 그러니 물놀이장의 물 보장을 위한 양수장을 따로 건설합니다. · 농촌의 아이들도 도시아이들 못지 않게 문명하고 훌륭하게 키우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요.
2018.10.12.(5면)	쌍둥이들의 판이한 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 국가는 특히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키우는 여성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을 전적으로 맡아키운다.
2018.10.16.(2면)	육류아동병원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8.10.16.(5면)	지능교육을 개선할수 있는 새로운 교재가 완성되기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을 지적체로 겸비한 유능한 인재로 키워야 우리 조국이 융성번영 할수 있습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8.10.23.(4면)	- 경상유치원 일군들과 교양원들 조선의 훌륭한 교육제도가 키워낸 재능동이들 - 경상유치원 어은금3중주단공연 모스크바국제축전에서 절찬	
2018.11.8.(5면)	그 품 떠나 우린 못살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는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입니다. · 애들을 낳기만 했지 다 나라에서 키워주었지요. 그런데도 어린애가 많다고 6시간로동제를 실시하도록 하여주었으니 그런 큰 혜택이 또 어디에 있었겠수. 제도가 하도 좋아 난 103살 장수자가 되었고 50명이 넘는 끝끝한 자손들을 거느리게 되었구려.
2018.11.13.(2면)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에 어린 은혜로운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2018.11.19.(5면)	원아들을 키우는 믿거름이 되어 - 평양육아원 호동장 리춘월동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우자면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 2019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9.1.17.(4면)	의료봉사수준과 인민보건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에서 의료봉사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자자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구구 뼈에 새길수록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체질화한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살려는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2019.2.3.(5면)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치료식품	· 꽃망울이 커야 피는 꽃도 크고 탐스러운것처럼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시기부터 건강하게 키워야 어른이 되어도 건강합니다.
2019.3.8.(5면)	어머니의 마음 - 창성군 읍에서 살고 있는 김영녀여성의 생활에서	·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 그애들을 뭐 내가 키우나요?! 나라에서 키워주지. · 그 누구보다도 당의 사랑을 많이 받아안고있는 세쌍둥이의 어머니인 제가 응당 우리 창성군을 더욱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리는 사업에 앞장서야하지 않겠나요.
2019.3.20.(1면)	학교, 유치원건설 및 개건사업 진행 - 신의주시에서	·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합니다.
2019.4.2.(4면)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 개학식 진행	
2019.5.19.(5면)	어린이건강증진에 좋은 치료약 개발	
2019.5.22.(4면)	어린이건강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2019.5.31.(3면)	어린이교통공원들을 새로 건설 - 남포시에서	· 우리는 새 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조적 능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건강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2019.6.1.(6면)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 국제아동절을맞으며	·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9.6.1.(8면)	행복한아이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내일을 보았다 - 국제사회계가 격찬	
2019.6.2.(4면)	장애어린이들의 6.1국제아동절 기념모임 진행	
2019.6.2.(4면)	세상에 우리보다 고운 꽃은 없어요 - 평양 3월 3일 탁아소에서	· 우리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런 위대한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2019.6.2.(4면)	재간둥이들을 키워내는 실력가 - 다재다능한 교양원	
2019.6.2.(4면)	제일 좋은 집	·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지고 사회에 따뜻한 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2019.6.2.(4면)	6.1국제아동절 69돐기념 친선연환모임 진행	
2019.6.2.(4면)	앞날의 꿈을 안고 활짝 피여라 -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을 찾아서	·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입니다.
2019.7.22.(5면)	의료봉사사업개선을 위한 좋은 기풍	· 의료봉사사업은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에 의한 당과 국가의 의료상 혜택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9.7.22.(5면)	개건현대화공사를 다그친다	·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2019.7.22.(5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게 하자 -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면 보건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적인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19.7.28.(5면)	어린이지능개발에 효과적인 주산교육	·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019.8.23.(4면)	2019년 세계 어머니젓먹이기 주간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	
2019.10.15.(6면)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손씻기	· 우리모두의 깨끗한 손
2019.11.5.(6면)	재일조선인의 인권과 민족교육의 권리를 굳건히 지키자! - 조선학교 유치반의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도적 용을 요구하여 일본 도쿄에서 집회와 시위	
2019.11.21.(6면)	유엔아동권리협약채택 30돐 어린이들의 기념모임 진행	
2019.12.5.(5면)	어린이예방접종의 날에 있는 일	·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 어린이예방접종을 비롯하여 모든 예방접종에 드는 일체 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답니다.
2019.12.9.(5면)	당의 보건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 정성의 바통을 꿋꿋이	
2019.12.9.(5면)	당의 보건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 대를 이어 지켜가는 초소	· 저는 어버이 수령님의 존람이 모셔진 시계의 초침소리를 심장의 박동으로 새겨안고 앞으로도 영원히 농업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2019.12.11.(5면)	당의 보건 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 의료일군들은 정력적인 학습과 탐구, 성실한 임상실천을 통하여서만 높은 과학기술적자질을 갖추수 있습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 신도덕적풍모입니다.

자. 2020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20.3.7.(4면)	의료일군들은 높은 의학적자질을 지니고 인민을 위 해 헌신적으로 복무해나가자 - 의사재교육이 철저히 임상실천에 이바지되도록 -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담보	· 의료일군들이 임상기술수준을 높여야 병을 바로 진단하고 제때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일군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만큼 누구보다도 당에 충실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책임성과 기술실무적자질이 높아야 합니다.
2020.3.7.(4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 노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2020.3.8.(1면)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수오한 도덕의리심은 우리 나라 여성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이런 훌륭한 여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2020.3.8.(2면)	우리 여성들에게는 위대한 어버이품이 있다	· 조국의 앞날을 떼메고나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친근하고 다정한 부름에는 후대들을 위해 천만고생을 락으로 달게 여기며 사랑과 정을 바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존중과 높은 기대의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여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20.3.8.(5면)	사회주의조선의 여성들이 정말 부럽다 - 옥류아동병원의 감상록을 펼치고	· 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도 있을수 없습니다. · 우리는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하며 그들의 건강한 모습과 밝은 웃음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2020.7.29.(3면)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맡아줄수 있는 교육으로 만 들자! - 교육발전전략을 목적지향성있게, 전망성있게 - 사범교육의 질제고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 -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끝까지 밀어주자	· 현시기 우리 당의 의도와 결심은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나라의 교육수준을 빠른 기간에 가장 발전된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워 모든 학생들을 부강조국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키우자는것입니다. · 후대교육을 위한 원종장인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입니다. · 전당, 전국, 전민이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책임적으로 밀어주어 나라의 교육발전을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2020.7.30.(2면)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여성의 끝없는 긍지	· 북조선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초안은 지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접수한 다음 각 정당, 사회단체, 공장, 직장들에서 대중적인 토론을 충분히 진행한 결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에서 이 법령초안을 정식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법령으로 채택하자고 합니다. · 수령님께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여 녀성들을 오랜 세기에 걸친 봉건적억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2020.7.30.(2면)	당의 딸, 당의 며느리	·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입니다.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20.7.30.(5면)	한 산과외사의 수첩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온갖 배려를 베풀어주고있으며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있습니다. · 이 애들의 첫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가 이제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까?>하고 묻고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너무도 큰 행복속에 살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2020.7.31.(1면)	평양종합병원 의료봉사의 지능화, 정보화를 위한 준비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쌓인 애로와 격난을 뚫고 수도의 한복합에 솟아오르게될 평양종합병원은 적대세력들의 더러운 제재와 봉쇄를 웃음으로 짓부시며 더 좋은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과 우리 혁명의 굴함없는 형세를 그대로 과시하는 마당이 될것입니다.

차. 2021년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2021.3.8.(2면)	훌륭한 여성혁명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가치따라 여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 여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도 있을수 없습니다.
2021.3.8.(4면)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갱신하자 - 교육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기본요구, 중심과업 - 참신한 교육방법의 창조와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 현시기 교육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교육방법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입니다. · 천편일률식에 중지부를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 오늘만이 아니라 조국의 먼 앞날을 위해	
2021.6.21.(4면)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 조선의 영원한 혁명정신-후대들을 위하여 - 최고의 숙원 - 크나큰 걱정에 잠 못 들며 - 활짝 피여라, 너희들은 나라의 왕이란다: 김정숙 탁아소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위하여, 이것은 조선혁명의 전력사에 관통되어있는 고귀한 혁명정신입니다. · 제12조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 것이 나의 심정입니다. ·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의 움직임수 없는 원칙으로 되고있지만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던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이 원칙의 요구에 따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었다. 아이들이 먹고 입고 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부대를 출동시켜 전투까지도 서슴없이 조직하곤 하였다. · 우리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2021.7.12.(2면)	최고의 숙원	·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제일중대사업입니다.
2021.7.12.(2면)	찬비에 옷자락이 젖어들었건만	· 나라의 왕이며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21.7.12.(2면)	조선혁명은 후대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며 승리한다	·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가슴깊이 새기고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조국과

연도월일(면)	기사제목	주요내용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외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외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을 결정요인 분석	정은외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창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환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변명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운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감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
모성과 양육